



##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허 경 옥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소비자학 분야의 가계재무관리행동  
연구 고찰

2014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생활문화소비자학과  
민 경 진

소비자학 분야의 가계재무관리행동 연구  
고찰

허 경 옥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생활문화소비자학과

민 경 진

# 인 준 서

민경진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개요

본 연구는 가계의 재무관리 행동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여 개념, 이론, 선행연구의 실증적 결과에 따라 가계재무관리 행동을 종합적으로 정리·통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계재무관리행동의 이론적 배경으로 가계재무의 경제학적, 심리행동적, 생애주기적인 이론적 접근을 살펴보았고 가계재무관리행동의 이론적 관점에 따른 중 개념으로 휴리스틱, 닷 내림효과 조정, 양떼현상, 대표성 편향, 자기과신, 프레임효과, 손실회피와 가격전략, 매몰비용효과와 고객관리, 언패킹효과와 광고소구 방법을 살펴보았다. 둘째, 가계재무관리의 이론과 행동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가계재무구조인 가계소득, 지출, 저축, 부채, 자산, 경제적 안정도와 비상자금을 살펴보았고 가계재무 건전성 및 가계재무평가에서는 가계재무건전성의 개념 및 이론적 배경, 선행연구, 측정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개인과 가계의 재무관리행동에서 위험과 가계재무관리행동, 가계자산 포트폴리오, 가계재무관리전략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가계의 재무관리 행동 연구의 주제가 다양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들 대부분 영향요인 조사에 그치고 있다. 가계재무관리 행동은 전 생애에 걸쳐 진행되므로 향후 후속연구에서는 생애주기별 체계적인 연구가 더 필요하다. 또한 연구는 가계의 실제적인 재무행동에 지침이 되고 실천 강령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연구가 더 필요하다. 예를 들면 가계재무 건전성을 직접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가계재무관리 행동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고 금융단체, 금융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연구가 더 필요하다.

# 목 차

## 논문개요

I. 서론 .....	1
II. 가계재무관리행동의 이론적 배경 .....	5
1. 가계재무관리의 이론적 접근 .....	5
1) 가계재무관리의 경제학적 접근 .....	5
2) 가계재무관리의 심리행동적 접근 .....	7
3) 가계재무관리의 생애주기접근 .....	9
2. 가계재무관리행동의 이론적 관점에 따른 주요 개념 .....	14
1) 휴리스틱 .....	14
2) 닛 내림효과 조정 .....	15
3) 양떼현상 .....	16
4) 대표성 편향 .....	16
5) 자기과신 .....	17
6) 프레임 효과 .....	17
7) 손실회피와 가격전략 .....	18
8) 매몰비용효과와 고객관리 .....	18
9) 언패킹효과와 광고소구 방법 .....	19
3. 가계재무관리 선행연구 분석 .....	19
1) 가계재무관리 개념 및 영역 .....	19
2) 연구주제별 가계재무관리 .....	22

3) 연구방법별 가계재무관리 .....	28
4) 선행연구 문제점과 과제 .....	29
<b>III. 가계재무관리의 이론과 행동 .....</b>	<b>31</b>
1. 가계재무구조(단순지표) .....	32
1) 가계소득 .....	32
2) 지출 .....	32
3) 저축 .....	33
4) 부채 .....	33
5) 자산 .....	43
6) 경제적 안정도와 비상자금 .....	46
2. 가계재무 건전성 및 가계재무평가 .....	47
1) 재무건전성의 개념 및 이론적 배경 .....	48
2) 재무건전성 관련 선행연구 .....	51
3) 가계재무건전성 측정방법 .....	57
3. 개인과 가계의 재무관리행동 .....	59
1) 위험과 가계재무관리행동 .....	63
2) 가계자산 포트폴리오 .....	76
3) 가계재무관리전략 .....	81
<b>IV. 결론 및 제언 .....</b>	<b>91</b>
참고문헌	
ABSTRACT(영문초록)	

## 표 목 차

<표2-1> 개인재무관리의 영역 .....	21
<표3-1> 가계재무구성요인 .....	31
<표3-2>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 및 부채현황 .....	36
<표3-3> 과소비·부채가계에 대한 부정적 증거와 긍정적 증거 .....	42
<표3-4> 투자 관련 개념의 분류체계 .....	45
<표3-5> Lytton, Garman, Poter의 재무비율 .....	56
<표3-6> DeVaney의 재무비율 .....	57
<표3-7> 경제적 불안 측정척도 .....	86
<표3-8> 재무관리행동 척도 .....	87
<표3-9> 재무지식 척도 .....	89
<표3-10> 가계재무관리 행동유형과 평가내용 .....	90

## 그 립 목 차

<그림3-1> 가계신용의 분류 .....	36
------------------------	----

## I. 서론

개인과 가계는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구성원의 가치와 욕구를 반영하면서 소비, 저축, 투자 등의 의사결정을 통해 경제운영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즉 가계는 자원을 관리하는 재무관리의 주체이다. 그런데 최근 국내·외 급속한 경제변화 속에서 가계의 경제적 복지를 유지하는 가계경제 및 가계재무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가계의 저축, 투자, 자산관리 등 가계재무관리행동은 가계의 주요한 경제활동이며 또한 학문적 연구대상이다. 이때 가계의 저축행동, 투자행동, 가계재무관리 행동들은 상호 영향을 미치며 재무의사결정 또는 재무관리행동결과 다양한 가계재무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최근 우리경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경제활동인구 감소, 부동산거품 붕괴, 가계부채급증, 내수부진과 디플레이션 조짐, 국민연금고갈, 국가재정악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면에 처해있다. 세계 시장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유럽경제위기 등 금융시장환경의 변화, 세계 각 국의 부동산자산 붕괴우려, 유럽경제위기의 타지역으로의 확산 등 많은 변화를 맞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개인과 국가 경제의 근간이 되는 가계의 경제관리 또는 재무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또한 소득의 증가에 따른 자산규모의 증가와 수명연장에 따른 노후준비의 필요성 급증, 조기사망, 상해, 질병, 실직 등 개인위험의 증가와 더불어 복잡한 금융공학기법을 적용하여 개발된 다양한 금융상품의 출현, 저금리 기조에 따른 저축에서 투자로의 전환 움직임 등으로 인해 개인이 스스로 재무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다. 또한 공급측면에서 금융기관의 여수신액에서 개인고객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금융시장개방과 규제완화로 인한 경쟁심화로 인해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지원체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금융기관의 개인고객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재무관리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교육을 받은 개인재무관리서비스 전문인력

을 요구하게 되었다. 즉 금융기관이 단순한 금융상품 관련 지식에 기반하여 제공하는 고객서비스에서 벗어나 가계의 수입과 지출 그리고 재산내용에 기초하여 가계운용에 대한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개인재무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면서 이를 담당하는 전문인을 배양하기 위한 형태로 교육이 탈바꿈하고 있다(최현자 등, 2008).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IMF 구제금융 지원 이후 경제사정이 악화되면서 금리인상, 급여삭감, 실업자 증가, 자산디플레이 등으로 인하여 가계경제도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가계소득의 감소, 부채의 증가, 신용불량자 증가 등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가계의 경제생활 안정과 건전화는 개별 가계에서 스스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되며 가계재무관리의 실패는 생활수준과 가족목표의 하향조정 뿐만 아니라 생계에 곤란을 가져오며 더 나아가 가족체체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가계는 경제생활을 관리하고 평가하는 능력을 함양하고 생활구조를 강화함으로써 경제적 기초를 단단히 형성해야 할 것이다(정운영, 황덕순, 2002).

개인의 효율적인 가계재무관리행동은 날로 복잡해지는 시장환경, 빨라진 은퇴후생활, 부동산 가치하락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이같은 상황에서 최근 가계자산 포트폴리오가 부동산자산에서 금융자산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금융자산 간의 포트폴리오 조정도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저금리 기조로 시중부동자금과 예·적금 등 안전자산에 몰려있던 가계금융자산이 펀드 등의 투자자산으로 이동하는 변화도 경험하였다. 저금리, 부동산가치 하락의 분위기 속에서 일부 가계는 고위험, 고수익상품을 선호하면서 개인의 재무심리적 요인, 위험감수성향이 가계재무관리분야의 연구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 자산관리사, 가계재무 관련 종사자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은 저축, 신용카드, 보험, 자산관리 등의 금융상품개발 및 판매에 있어 가계재무관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이처럼 가계의 재무관리행동이 변하고 있고 가계재무관리행동이 업계에서 중요한 관심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가계의 재무

관리행동 분야의 연구조사는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많은 연구들은 관심 있는 특정 주제를 가지고 연구목적을 달성해왔으나 이 분야의 연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및 정리는 충분히 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수행된 재무관리분야 선행연구들에 대한 이론적 고찰, 실증적 연구결과들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이 이루어진 바 없다.

가계재무행동의 이론적 접근, 가계재무구조, 가계재무 평가지표, 재무관리 행동, 등 가계의 생애주기에 따라 변화하는 가계재무관리행동에 대한 선행 연구들의 공통적 견해 또는 이들 연구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주요 내용 등에 대한 이해가 시급하다. 특히, 소비자 개인의 위험감수도, 현상유지도, 재무정보탐색 및 가계재무관리행동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나 분석 없이 가계의 재무관리행동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기 어려우며 가계의 재무관련 컨설팅 및 정책적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없다. 경제생활만족을 위해 필요한 재무 관련 의사결정이나 가계재무관리행동에 대한 충분한 이해, 위험감수성향, 가계성향 등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다시 말해 가계의 가계재무관리행동을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해 기존의 연구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리하는 것은 필수적인 작업이다.

본 연구는 가계의 재무관리 행동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여 개념, 이론, 선행연구의 실증적 결과에 따라 가계재무관리 행동을 종합적으로 정리·통합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소비자학 분야에서 진행되어 온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을 중심으로 가계재무관리 분야에 통찰력 있는 이해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가계의 재무정보 및 가계재무관리행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계의 재무관리상담 및 컨설팅, 경제생활만족도를 높이는 각종 컨설팅 등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재무관리행동에 대한 본 연구의 종합적인 고찰은 개인과 가계의 재무관리 관련 의사결정에 기초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금융소비자교육, 소비자재무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가 개인과 가계의 저축, 부채, 자산관리 등의 합리적

의사결정, 가계재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 금융산업 및 부동산 등에 대한 재무관리정책수립 및 이행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II. 가계재무관리행동의 이론적 배경

### 1. 가계재무관리의 이론적 접근

#### 1) 가계재무관리의 경제학적 접근

경제학의 패러다임은 이성적 경제주체가 이익이나 효용을 극대화 한다는 전제에서 시작된다. 경제학의 세계에서는 합리성이 전제되고 경제학자들은 이에 기초하여 모형을 제시한다. 경제학자들은 비이상적으로 보이는 행태까지도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하기 때문에 합리성은 기존경제학의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이러한 합리적 측면과 함께 개인들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는 ‘이기적 인간’이라는 특징이 적용되어 경제학의 패러다임을 형성한다. 그러므로 경제적 인간은 합리성을 가지고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동한다(이시영, 이호찬, 2010).

한편, 행동경제학은 실제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나아가 이런 행동의 결과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이라 할 수 있다. 행동경제학은 주류경제학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분야의 학문으로 각광받으며, 행동결정이론, 인지경제학으로도 불리고 있다.

기존 경제학과 행동경제학은 다른 시각으로 개인과 가계에 대해 접근하고 있다. 기존 경제학에서는 인간은 합리적이며 이성적 존재로서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일관된 선호를 갖고,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한다고 전제한다. 따라서 인간의 행동은 예측가능하다고 하겠다. 반면 행동경제학에서는 인간의 합리성은 제한적이며 이를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이라 한다. 감성적인 존재로서 상황에 따라 선호가 바뀔 수 있다고 전제한다. 결국 개인과 가계는 효용을 극대화하기 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수준을 만족시키는 대안을 선택하기 때문에 인간의 행동은 예측하기 어렵고 때때로 예측불가능하다고 가정한다.

물론 기존 경제학에서도 현실적인 개인 또는 의사결정을 설명하기 위해 제한적 합리성이 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제한적 합리성이란 경제주체들이 한 두 번 정도 실수를 범하더라도 더 이상 실수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적 합리성은 주로 진화경제학(evolutionary economics)에서 유용하게 활용되는 가정이기도 하다. 제한적 합리성은 완벽한 합리성처럼 비현실적인 인간상을 전제하지 않고 보다 현실성 있게 장기적 관점에서 합리성을 전제하고 있다.

반면 행동경제학에서는 경제주체들이 합리적이지 않으며 편향된 행동을 하는 다수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경제주체들이 비이성적인 행동을 일관되게(consistent)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비이성적인 행동이 어떠한 패턴을 가지고 반복되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비합리적(predictably irrational) 행동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이런 비이성적인 판단은 휴리스틱스에 의하여 발생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편향된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비록 편향적이지만 경제주체들이 비이성적 행동에서 특정 패턴을 찾아낼 수 있다면 보다 효율적인 정책처방이나 정책입안이 가능하며 비합리적인 요소를 사전적으로 최소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행동경제학은 이러한 패턴을 우선적으로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연구과제이다(이시영, 이효찬, 2010).

행동경제학은 실제 개인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나아가 이런 행동의 결과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특히,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인하여 촉발된 국제금융위기 이후 기존의 전통적 경제학을 보완할 수 있는 이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다. 행동경제학은 심리적 접근을 근간으로 한 다양한 실험과 실증분석을 통한 연구들로 학문체계를 형성하였다. 행동경제학에서 개인과 가계는 효용의 극대화 보다는 주관적인 만족 수준을 충족하는 대안을 선택한다고 전제한다. 행동경제학은 편향된 행동을 하는 다수의 사례를 제시하여, 인간의 행동은

예측하기 어렵고 때때로 예측 불가능하다고 가정한다.

행동경제학 중에서도 재무행동경제학은 1900년대 이전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활발히 연구되어 왔으며, 2000년도 이후에는 우리나라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재무행동경제학은 다양한 심리 요인을 금융시장에 적용하여 재무적으로 해석하는 학문분야이다. 아직까지는 재무행동경제학 관련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며, 재무행동경제학적 모델 도출 및 심리적 요인을 가계재무관리행동에 연결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행동경제학 이론들중 기대이론(prospect theory)처럼 보편화된 이론도 있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의 행동경제학 관련 연구는 초기성장 단계라 할 수 있다. 인간의 행동이 왜 일어나고 그로 인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다루는 행동경제학은 개인과 가계의 재무의사결정, 재무 관련 국가정책 결정, 기업의 활동에 이르기까지 연구 및 활용 분야가 무한하다.

## 2) 가계재무관리의 심리행동적 접근

개인과 가계의 재무의사결정, 재무관리행동을 설명하는 다양한 모델이나 이론적 접근이 계속적으로 개발되어왔는데 최근 심리학적 접근을 도입하고 응용한 이론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프로스펙트 이론

프로스펙트 이론(prospect theory)은 심리학과 경제학의 접점에서 공동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한 Tversky와 Kahneman 의해 1979년 탄생했다. 프로스펙트 이론에서 사람은 변화에 반응한다는 것을 출발로 하며, 인간은 손실을 싫어한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사람들은 손실회피(loss aversion) 성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프로스펙트 이론은 기존 경제학에서의 기대효용이론의 대체 이론으로 고안되었으며, 가치이론이라고도 불린다. 프로스펙트 이론은 준거 의존성(reference dependency), 민감도체감성(diminishing

sensitivity), 손실회피성(loss aversion)을 특징으로 한다. 프로스펙트 이론은 의사결정자의 선택과정이 기대효용이론의 정리들에 위배된다는 실증적 연구를 제시한다. 기대효용이론의 효용함수에 해당하는 가치함수는 이익에서 얻는 심리적 만족(효용)에 비해 동일한 금액의 손실을 보는 경우 심리적 고통(비효용)이 더 큰 현상을 잘 설명한다. 프로스펙트 이론에서는 의사결정자가 의사결정에 이를 때 기존 경제학의 효용함수에 대응하는 가치함수와 확률의 중요성과 관계있는 확률가중함수를 적용하여 최대의 주관적 가치를 갖는 대안을 최종 선택한다.

## (2) 재무행동 심리적 이론

재무행동 심리적 이론은 의사결정자가 의사결정 결과를 인식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인지 심리적 측면을 강조한다. 예를 들면, 심리회계에서는 의사결정자가 의사결정 시에 어떤 준거점을 가지고 손실과 이익을 지각하는지가 의사결정자의 판단이나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프로스펙트 이론의 가치함수가 이익영역에서는 오목한 형태로서 위험회피성향을 나타내는 반면, 손실영역에서 볼록한 형태로서 위험선호경향을 나타내고 있다는 가치함수의 이익과 손실영역에 따른 비대칭적 형태를 설명한다. 의사결정과정에서 단기적 또는 특정 사안에 국한되는 심리계정에 따라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의사결정자의 위험선호경향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결국 상황변수들을 종합 판단하는 방법은 객관적인 법칙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상황인식에 따라 가변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재무행동심리학 관점은 이익은 각각 분리하는 반면 손실은 통합하며, 소규모 이익은 대규모 손실로부터 분리하는 반면 소규모 손실은 대규모 이익에 통합되어 인식된다고 전제한다.

재무행동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선택 시점에 형성된 ‘준거점’에 따라 개인은 이득과 손실이 각기 다른 크기를 가질 수 있으며, 소비자는 이득보다는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을 선호한다. 이는 지각된 손실을 피하고자 하는 손실회피 경향성으로 나타나며,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더욱 크게 영향을 받는다. 재무행동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이 여러 번의 작은 손실보다 한 번의 큰 손실을 더욱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따라서 이득과 손실의 통합 혹은 분리에 따라 개인이 느끼는 만족감이 달라진다고 주장하였다. 재무행동심리학적 관점의 일반적 원칙은 다음과 같다.

- 이익영역에서 원점에 오목한 가치함수에 따라 이익을 분리할 때, 손실 영역에서 원점에 볼록한 가치함수에 따라 손실을 통합할 때 주관적 가치가 최대화된다는 점이다.
- 평가이익과 손실을 상계하여 잔액이 이익이 되는 경우 손실회피를 위하여 이익과 손실을 통합하여 실현한다.
- 평가이익과 손실의 상계결과가 손실로 귀착되는 경우 작은 이익과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손실을 분리한다.
- 심리회계기준에서 이익과 손실 실현의 분리 또는 통합은 시간적 차이에 의한 매도를 통해 실현된다.
- 이익 또는 손실들을 분리 또는 통합하는 가장 대표적인 인지적 관찰방법은 평가손익을 실현하는 거래일을 구분하는 것이다.
- 평가이익 주식들을 상이한 거래일에 분리하여 매도함으로써 이익을 분리 실현하는 반면, 평가손실 주식들은 동일한 거래일에 통합하여 매도함으로써 손실을 통합하여 실현한다.
- 이와 같이 통합과 분리의 원칙들 활용하여 개인 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할 수 있다.

### 3) 가계재무관리의 생애주기접근

금융환경의 변화로 인해 개인이나 가계의 재무의사결정은 더욱 복잡해져

가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장기적차원 즉 생애주기별 재무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전 생애에 걸친 소득과 자원을 적절히 관리하는 것은 개인, 가계, 그리고 학문적 차원에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가계는 전생애를 통해 다양한 재무문제와 목표에 직면하게 되며 또한 이러한 문제나 목표들은 때로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소득과 지출 흐름의 불균형은 전 생애에 걸친 체계적 재무설계가 필요한 이유이다. 개인이나 가계가 생애주기의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가에 따라 각종 재무적 니즈가 다른 양상으로 펼쳐지고 주요 재무관리 우선순위가 달라지게 된다.

이 같은 관점에서 전통적 생애주기가설(life cycle income hypothesis)에 입각한 경제학적 이론을 검증하는 연구(예: Chen, Finke, 1996; Gourinchas, Parker, 2002; Hall, 1978) 가계나 개인에게 좀 더 실질적인 제언을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생애주기 단계에 따른 가계재무문제에 관한 연구들(예: 범수인, 문숙재, 1992; 이은실, 최현자, 1998; Baek, Hong, 2004; DeVaney, Chiremba, Vincent, 2004)에서 생애주기 개념이 많이 활용되어 왔다. 생애주기 단계를 적용해 분석한 연구들은 생애주기 별로 재무목표나 목표 우선 순위는 어떠한 것들인지를 파악하거나 생애주기별로 보유중인 자산유형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연구가 수행되었다(예: 백은영, 문숙재, 2005, 이은실, 최현자, 1998).

재무설계를 수행할 때 생애주기의 중요성은 가장 또는 가계에 속한 어느 한 개인의 연령 자체 보다는 그 가계가 어느 단계에 속해 있는지가 중요하며, 또 각 해당 단계별로 재정적 양상은 어떻게 펼쳐지고, 그 다음 단계에 어떠한 양상이 펼쳐질 것인지에 대해 인지하고 미리 계획을 세워 재정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잣대로써 중요하다. 따라서 재정적 측면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 가계인지 또 어떠한 목표를 세웠는지를 불문하고 각 가계별로 생애주기별로 소득 중 저축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며, 어떠한 요인들이

이에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개인재무관리 컨설팅 등의 실무에서 재무설계를 직접 수행하거나 생애주기 별로 실무적 조언을 하고자 할 때 비교적 객관화된 정보로 기준을 삼을 만한 생애 주기적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다.

#### (1) 가계재무구조와 생애주기

생애주기에 따른 재무구조, 저축과 관련된 연구들의 이론적 토대로는 전통적인 생애주기 이론을 들 수 있다. 생애주기이론은 저축 및 소비를 설명하는 기본적인 이론으로 개인 및 가계는 전 생애에 걸쳐 일정한 소비수준을 유지함으로써 효용을 극대화 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그러므로 가계의 저축 또는 소비는 당시 소득에 영향을 받기 보다는 전 생애의 소득흐름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어 개인 또는 가계는 생애주기 초기와 후기에는 지출흐름이 소득흐름을 상회하고 중간 단계에는 소득흐름이 지출흐름을 상회하는 흐름을 보이게 된다고 본다(Ando, Modigliani, 1963). 생애주기 단계는 개인재무분야 전반에 걸쳐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생애주기 단계 개념을 도입하여 가계의 예산 수립, 부채, 투자계획이나 재정목표, 재정문제 등을 살펴본 연구들이 있었고, 생애주기에 따른 포트폴리오 분석이나 비상자금 등에 대한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예: 백은영, 문숙재, 2005; 범수인, 문숙재, 1992; 이은실, 최현자, 1998; 정운영, 한경미, 2004; Baek, Hong, 2004; Davis, Carr, 1992; DeVaney, Chiremba, Vincent, 2004).

이러한 전통적 생애주기가설이 개인의 소비와 저축행동을 설명하는데 유용한 분석틀을 제공해 왔지만,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 생애주기가설이 설명되지 못하면서 부분적으로 이 이론의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다(예: Hubbard, Skinner, Zeldes, 1994; Shefrin, Thaler, 1988; Thurow, 1969). 이들 연구들은 생애주기에 따라 소득과 소비흐름이 거의 평행한 흐름을 보여주는 역 U자형의 패턴을 보여주었다고 하였다. 또한 Fisher(1965)는 전통

적인 생애주기가설이 연령만을 고려함으로써 가족 수나 가족구성원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서로 다른 생애주기 단계마다 나타나는 가계의 소비니즈를 보다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 (2) 재무관리를 설명하는 생애주기접근의 주요 개념

재무행동학적 생애주기가설은 전통적 생애주기 가설에 3가지 주요한 행동적 측면을 고려함으로써 실제 가계의 저축과 소비행동을 설명하는데 추가적 관점을 제공하는 이론이다. 행동학적 생애주기가설에서 고려하는 3가지 주요 개념은 자기통제(self-control), 심리계정(mental accounting), 프레이밍(framing)으로 이들 개념을 적용해 보면 기존의 전통적인 생애주기가설이 설명하지 못한 저축이나 소비행동에 대한 설명이 추가적으로 가능하다. 예를 들면, 자기통제의 개념에서는 한 인간의 내면에 행동가와 계획가가 존재한다고 보고 행동가와 계획가는 서로 다른 행동적 특성을 가지고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소비결정을 달리하게 된다고 본다. 행동가적 자아가 더 강하게 나타날 경우 현재 소비를 더 선호하게 되며, 계획가적 자아가 더 강하게 나타날 경우 계획과 목적에 따른 저축 및 소비 행동을 통해 효용을 극대화하게 된다(Shefrin, Thaler, 1988). 또한 가계 또는 개인은 심리적으로 자산(소득) 유형을 서로 다른 회계 계정으로 구분하여 소비 또는 저축하게 된다고 보므로(Shefrin, Thaler, 1988; Warneryd, 1999) 현재 부채가 있으면서도 일부는 위험관리를 위한 계정에 돈을 저축하고 있고 또는 은퇴준비를 위한 계좌에 돈을 따로 저축하는 행동들을 설명할 수 있다(Graham, Isaac, 2002). 이러한 자기통제나 심리회계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가계가 재무설계를 통해 재무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현재 자기통제를 하며 소비를 억제하거나 계획을 세워 저축을 하려고 하는 행동, 또는 서로 다른 목적에 맞는 저축 및 투자를 계획하고 실천하는 행동 등을 설명할 수 있게 된다.

### (3) 생애주기 구분 방법

보통 가족생활주기 단계를 6단계로 신혼기, 자녀출산 및 양육기, 자녀의 초등교육기, 자녀의 중등교육기, 자녀의 대학교육기, 자녀의 독립 및 은퇴기로 나눌 수 있다. 유영주(1984)는 가족생활주기를 6단계로 구분하였다. 즉, 1단계는 형성기로 결혼~첫자녀의 출산 전, 2단계는 자녀양육기로 첫자녀 출산~첫자녀 초등학교 입학 전, 3단계는 초·중·고교육기로 첫 자녀 초등학교 입학~첫자녀 대학교 입학 전, 4단계는 대학교육기로 첫자녀 대학교 입학~첫자녀 대학교 졸업(군복무시기 포함), 5단계는 자녀독립기로 첫자녀 대학원 입학, 취업, 결혼~막내자녀 결혼, 6단계는 노년기로 막내자녀의 결혼이후 시기를 의미한다.

### (4) 생애주기별 가계재무관리행동 선행연구

생애주기 전반기에는 주로 주택문제, 중반기에는 자녀교육이나 결혼문제 후반기에는 노후와 관련한 문제가 주요 목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주요 경제목표에 맞춰 투자목표가 달라지고 어떠한 종류의 투자목표냐에 따라 투자기간을 달리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범수인, 문숙재, 1992). 심층면접을 통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생애주기에 따른 재무 목표는 초기단계에서는 막연하게 설정되었던 것이 생애주기 단계가 진행되면서 목표가 보다 분명해 지는 것이 발견되었으며 노년기 가계에서는 특별한 재무목표가 없는 것이 발견되었다(백은영, 문숙재, 2005).

일반적으로는 생애주기가 형성기, 확대기로 진행하면서 보다 복잡한 재정 문제에 직면하다가 다시 자녀독립과 더불어 축소기에 이르면 재정문제가 단순화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백은영, 문숙재, 2005). 예산수립행동의 경우, 생애주기 초기단계일수록 특히, 가족이 확장되는 시기에 보다 체계화된 예산수립을 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은퇴기에는 예산수립을 거의 하지 않는 등 생애주기에 따라 가계의 예산수립 행동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avis, Carr, 1992).

이은식, 최현자(1998)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포트폴리오 구성의 다양성은 형성기에서 첫 자녀 미취학기까지 증가하다가 노년기로 갈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은퇴시점이 다가오면서 보유하고 있던 금융자산을 소진하거나 부동산 형태로 전환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보유자산 종류별로 보면 전반적으로 은행예금 형태의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으나 형성기에는 은행저축을 노년기에는 부동산 형태의 자산보유가 더 많았다. 또한 생애주기를 막론하고 보험이나 연금 구성비가 주식 등 보다 높아 대부분 가계가 안정성 높은 자산과 위험을 대비한 자산에 자산배분이 많이 이뤄지고 있었으며 형성기 및 자녀미취학기를 제외한 전주기에서 총자산의 2/3 이상을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어 부동산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이은실, 최현자, 1998).

## 2. 가계재무관리행동의 이론적 관점에 따른 주요 개념

가계재무행동을 설명함에 있어 여러 학문적 접근에서 주로 사용되는 개념이나 효과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휴리스틱

행동경제학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 중 하나가 휴리스틱(heuristic) 즉 직관 또는 직감이다.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인간은 정보를 처리할 때 인지적 노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선호한다. 즉 사람들은 판단을 위해 직관(직감)을 사용하고, 이것을 휴리스틱이라고 한다. 의사결정이나 문제해결에서 직관을 사용하는 경우 판단오류나 판단편향을 유발하기도 한다. 우리가 흔히 판단을 할 때 활용하는 고정관념, 브랜드, 원산지 등도 일종의 휴리스틱이다.

행동경제학에서는 경제주체들이 비이성적인 행동은 일관되며, 패턴을 가지고 반복되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비합리적 행동이라고 말한다. 휴리스틱은 비이성적인 판단을 부르는 요인이며, 궁극적으로 인간은 편향된 행동을 보인다. 비록 편향적이지만 인간의 예측불허의 행동 속에서 특정 패턴을 찾아낼 수 있다면 보다 효율적인 처방 또는 대처가 가능하며 비합리적인 요소를 사전에 최소화 시킬 수 있다. 행동경제학의 주장에 의하면 이러한 패턴을 우선적으로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연구과제가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물건을 구매할 때 상품가격이 상품가치에 적합한지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때때로 가격을 기준으로 상품의 가치를 판단한다. 우리가 흔히 싸게 비지떡이라든가 비싼 만큼 제 값을 한다고 말하는 가격·품질 연상도 일종의 휴리스틱이라 할 수 있다.

## 2) 닷 내림효과 조정

인간은 의미 없는 임의적 정보를 얻게 되더라도 이를 의미 있게 반영하여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 사람들은 불확실한 사건에 대해 예측이나 판단을 할 때, 미리 제시된 기준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1차적으로 예측을 하거나 판단을 하고 난 후 이러한 예측이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조정(adjustment)과정을 거치지만 그런 조정과정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오류나 편향을 닷 내림(anchoring)과 조정(adjustment) 또는 닷 내림효과(anchoring effect)라 한다.

기준점 효과와 조정은 또한 불확실한 상황일수록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 예로 불확실성이 큰 주식시장에서 보다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미래의 수익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정보가 기준점으로 작용하여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 편향을 가져오게 된다. 예를 들어, 과거의 시장지수, 개별주식의 최근 가격 등과 같은 지표들은 미래의 수익률과 직접적 연관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점으로 작용한다. 또한 금융기관들은 이러한 편향성을

금융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 3) 양떼현상

양떼현상(herd behavior)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타인의 행동이 간접적인 정보로 활용되어 타인의 행동을 모방하는 행동패턴을 양떼현상이라고 한다. 패턴화 현상 혹은 자기양떼현상(self-herding)이 행동과학적 연구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양떼 현상은 새로운 경험을 시도하고 그 경험에 만족하게 되면 그것을 기준 삼아 자신의 행동을 패턴화 하는 현상이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불확실성과 비예측성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패턴화 현상은 편향적 행동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유사한 상황에서 패턴화 현상은 연계사고(associative thinking)를 유발시켜 편향성을 나타나게 한다. 연계사고는 하나의 사안에 대하여 어떠한 논리가 적용되면 마치 다른 개별 사안(context)에서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된다고 인식하여 사고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실크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실크 샴푸의 경우 실크 성분이 머릿결 개선과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크의 부드러움을 머릿결에 연계시킴으로써 머릿결이 좋아진다고 생각하게 된다. 사람들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개별적인 두 사안을 연계시키는 경향이 있고, 이는 편향된 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정확한 분석이 어렵기 때문에 유사한 환경이나 사안과 연계사고하여 패턴화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된다.

### 4) 대표성 편향

인간은 특정사안의 발생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다양한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때 특정 정보를 사안의 대표성으로 인지하여 판단의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성 편향을 활용한 판단은 매우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

지만 대표성 직관으로 활용되는 속성이 겉으로 드러난 부분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판단오류를 유발시킬 가능성도 크다.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은 특정 기업의 과거성장이 미래에도 지속될 것으로 믿는 경향이 있다. 즉, 최근까지의 과거 사업실적이 미래의 실적을 대표한다고 오인하여 다른 정보를 무시한 상태에서 투자하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과거의 사업실적이 미래의 사업실적을 대표할 수 없으며 반대로 과거의 낮은 실적이 미래의 사업실적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들의 실증분석결과에서는 과거 사업실적이 낮았던 기업의 주식들이 오히려 높은 수익률을 나타내 투자자들의 일반적 경향이 편향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 5) 자기과신

자기과신은 능력을 절대적 또는 상대적으로 과대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통 자기과신에 의한 편향성은 자주 발생되는데 설명하면서 복잡한 과정은 발생횟수를 증가시키고 높은 불확실성은 오히려 횟수를 감소시키는 경향을 보여준다. 자기과신은 직접적인 선택, 연속적 결과, 업무의 친숙성, 정보의 양, 참여형태, 과거의 성공에 의하여 발생되고 있다. 온라인 증권투자에서부터 자신의 운전능력까지 자기과신은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적절한 정도의 자기과신은 바람직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나친 자기과신은 편향된 사고를 유발하여 비이성적 행태를 보이게 한다.

#### 6) 프레임 효과

상황이나 문제의 표현방법에 따라 사람들의 선택이 달라지는 것을 구성효과 또는 프레임 효과(Framing Effect)라 한다. 기존 경제학에서는 선호는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불변의 원칙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데 반해 행동경제학에서는 프레임에 따라 사람들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프레임 효과가 존재한다면 프레임을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선택

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람들의 의견이나 평판을 교묘히 조정하거나 조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방 10% 함유가 아닌 90% 무지방으로, 실패율 1%가 아닌 성공률 99%로 표현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제품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들 수도 있고, 생존율 90%가 아닌 사망률 10%로 표현함으로써 보험의 필요성을 소비자가 좀 더 심각하게 인식하도록 할 수도 있다. 특히, 마케팅 전략이나 선거전략, 또는 미디어 시장에서 이러한 프레임 전략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 7) 손실회피와 가격전략

사람들은 같은 크기의 이익과 손실이라 해도 이익에서 얻는 기쁨보다 손실에서 느끼는 고통이 더 크기 때문에 손실(고통)을 줄이려는 성향을 손실회피(loss aversion)라고 한다. 자동차와 같이 기본 모델과 옵션이 있을 때 가격을 제시하는 방법은 기본 모델에 자신이 원하는 옵션을 추가하는 옵션 추가 방법과 풀 옵션 모델에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옵션을 제거하는 옵션 제거 방법이 있다. 옵션 추가 방법은 증가된 효용만큼 소비자가 지불하는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옵션 제거 방법은 옵션 제거로 감소된 효용만큼 소비자가 지불하는 비용이 감소하게 된다. 이 때 사람들은 옵션을 추가해서 효용상의 이득을 보는 것보다 옵션을 제거해서 효용상의 손실을 보는 것에 더 큰 고통을 느끼게 된다. 그러므로 옵션 제거 조건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장착된 옵션을 쉽게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종적인 가격은 옵션추가 조건보다 옵션 제거 조건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

#### 8) 매몰비용효과와 고객관리

경제주체가 의사결정을 하여 그 결정을 실행한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돈, 시간, 노력) 중 회수할 수 없는 비용(irreversible)을 매몰비용(sunk cost)이라 하고 일단 시간, 돈, 또는 노력을 투자하여 어떤 결정을 한 후 과거의 결

정을 계속 유지하려는 사람들의 성향을 매몰비용 효과라고 한다. 매몰비용 효과는 고객관리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첫째, 시간과 돈, 노력을 투자한 고객은 쉽게 떠나지 못한다. 둘째, 떠나려는 사람에게 매몰비용을 상기시키면 쉽게 떠나지 못한다. 셋째, 매몰비용 때문에 전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확실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면, 기존 한글을 사용하면서 익힌 기술들이 MS 워드로의 전환을 막는 매몰비용으로의 역할을 하였고 MS 워드는 한국 시장에서 고전할 수밖에 없었다.

#### 9) 언패킹효과와 광고소구 방법

어떤 사건의 발생 확률을 예측할 때 포괄적으로 묘사했을 때보다 자세하게 풀어서 묘사할 때 사람들이 발생 확률을 더 높게 예측하는 것을 언패킹 효과(unpacking effect)라 하고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빈도지식(frequency knowledge)이 있다. 정보처리에 대한 동기나 관여도가 낮으면 메시지의 질보다는 양에 의해 메시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양이 많을수록 더 좋은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보험회사에서 각종 질병과 사고를 보장해 준다는 말 대신 “6,656가지 질병과 사고를 보장해 준다”라고 광고를 하게 되면 보험에 가입할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도 소비자들이 보장받을 수 있는 확률을 높게 평가하기 때문이다. 단 이 경우 소비자의 기대수준이 함께 높아지기 때문에 나중에 실망도 커질 수 있으므로 가입후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 3. 가계재무관리 선행연구 분석

#### 1) 가계재무관리 개념 및 영역

##### (1) 가계재무관리 개념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재무관리, 개인재무, 소비자재무 또는 가계재무라는 용어로 혼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재무설계나 개인재무설계와도 자주 혼용되고 있다. 개인재무관리와 더불어 많이 사용되는 개인재무설계(Personal Financial Planning)는 개인재무의 적절한 관리를 통해 삶의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과정(process)을 말한다. 국제재무설계표준위원회(Financial Planning Standards Board)에 따르면 개인재무설계는 개인이 자신의 삶의 목표를 파악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재무적, 비재무적 자원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개인의 재무를 둘러싼 현금흐름과 소득관리(신용과 부채관리 포함), 세금설계, 위험관리, 투자설계, 노후설계, 상속설계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인재무관리는 예산수립, 현금관리, 부채관리, 신용관리, 위험관리, 은퇴설계 등 다양하고 복잡한 영역을 포함하고 있고 이러한 개인재무의 관리과정이 개인재무설계이기 때문에 개인재무관리에서 포함하고 있는 내용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개인재무설계는 재무관리의 과정에 초점이 맞추어진 분야라고 할 수 있으며 개인재무관리의 하위영역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 (2) 가계재무관리 영역

개인재무관리 분야는 크게 재무설계, 재무상담 그리고 재무교육으로 나눌 수 있다. 위의 세 영역은 모두 소비자의 재무적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며 재무설계, 재무상담, 재무교육 전문가로서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상의 내용 또한 대동소이하다. 재무설계를 하는 가운데 재무상담이 이루어지기도 하며 재무교육의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고 재무교육을 하면서 재무상담이 이루어지기도 하며, 재무상담을 하면서 재무설계로 문제를 풀어나가기도 하기 때문에 재무설계와 상담과 교육을 구분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으며 많은 경우 재무설계와 재무상담을 혼용하여 사용하기도 한다.<sup>1)</sup>

그러나 재무설계와 재무상담을 엄밀히 구분하면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갖는다. 즉 재무설계는 현재 또는 미래의 소득, 자산 등 재정자원을 보존시키고 증대하여 소비자 개인과 가계가 기대하는 생활양식에 적합한 재무 목표를 달성해가는 전 생애에 걸친 과정으로 재무목표 달성을 통해 재무상태를 향상시킴으로써 재정적 복지를 실현해 가는 과정이다. 일반적으로 재무설계는 미래에 대한 계획으로 재무목표의 설정으로부터 시작하며 현재 당면하고 있는 재무적 문제가 없더라도 필요한 작업이다. 하지만 재무상담은 문제를 가진 소비자의 문제를 평가하고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작업으로 소비자가 경제적 복지를 달성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술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모든 자원을 창조적으로 이용하도록 도와주는 과정으로서 재정위기의 해결, 신용 및 부채 관리 등의 주제와 관련된 것이다. 한편 재무교육은 재무문제를 예방하고 재무문제 해결 능력을 계발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즉 단기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장기적인 측면에서 주어진 상황에서 재무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문제를 예방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인 것이다.

<표 2-1> 개인재무관리의 영역

	재무설계	재무상담	재무교육
공동목표	소비자의 재무적 복지 증진		
영역목표	중장기적 재무목표의 달성	단기 재무문제의 해결	재무적 능력 향상과 재무문제 예방
효과	재무상태의 향상	재무문제의 완화, 해결 또는 통제	재무관리능력의 향상

출처: 성영애, 양세정, 이희숙, 차경욱, 최현자(2006), 소비자재무설계 및 상담 교과과정의 발전적 운영을 위한 소고, 소비자정책교육연구, 1(2). 24.

1) 개인재무관리와 개인재무, 소비자재무, 가계재무 중 본 연구에서는 ‘가계재무관리’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 2) 연구주제별 가계재무관리

1980년-90년대에 이루어진 소비이론 및 소비패턴에 관한 연구는 주로 비목별 또는 집단별 소비패턴에 대한 것으로 소비지출 비목별 패턴이나 영향요인의 규명 또는 특정집단내의 소비지출 분석 및 집단 간 소비지출 비교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재무관리와 상담에 관한 연구는 가계의 저축, 부채, 노후준비행동, 지출관리 등과 같은 재무관리연구나 재정상태 평가나 경제적 복지감, 재정문제, 경제적 안정 등 재정복지에 관한 논문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재무설계와 상담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게 이루어졌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1980년대 초중반에는 가계경제분야 연구 중 가계재무와 관련된 연구들이 상대적으로 많았는데 80년대 중후반으로 가면서 소비행태를 주제로 한 연구의 상대적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90년대 초반 이후 가계경제관련 연구가 급증하였으며 특히 재무관리와 재정복지에 관한 연구가 괄목할 만 하게 증가하였고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재무설계 및 상담영역의 연구가 눈에 띄기 시작하였다.

주요 연구로 주부취업의 가계경제적 기여도 측정(양세정, 1999) 가계재무관리 software개발을 위한 연구(박명희, 이승신, 박미혜, 1997; 박명희, 이승신, 배미경, 1998), 은퇴준비를 위한 재무계획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기초연구(문숙재, 김순미, 1997), 재무관리유형에 따른 은퇴계획(김순미, 양정선, 1994), 부채농가의 경제적 대처행동(손상희, 1995), 신용카드의 자금유통성 사용목적과 가계관리(이영호, 임정빈, 1997), 소비자재무설계사의 제도화 방안에 관한 연구(윤정혜, 손상희, 김경자, 성영애, 1997), 농가의 경제적 복지 측정 및 관련 변수 연구(최은숙, 노자경, 1991)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한편, 90년대 이전에는 거시적 저축률이나 저축규모의 추이 분석에 집중되었던 저축관련 연구들이 90년대에는 개별가계자료를 이용하여 가계의 저축행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저축 및 투자행동 관련 연구들은 개별 투자대안의 선택에 관한 지식제공에 머무르고

있고 최적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위한 가계의 자산선택행동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평균수명의 증가와 조기퇴직이 늘어나면서 은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이를 반영하여 은퇴계획 및 은퇴를 위한 실질적 준비행동(준비실태, 의식, 영향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들이 수행되었으나 자료의 대표성에 따라 일반화는 제한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평가하였다. 한편 가계의 궁극적 목표인 재정복지와 관련된 연구들을 객관적 재정복지와 주관적 재정복지를 측정한 연구들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소득, 지출, 자산구조 등을 중심으로 재정상태를 측정한 연구들과 더불어 재무비율을 활용하여 재정상태를 분석한 연구들이 나타나면서 진일보한 분석방법으로 평가하였으며 경제적 안정도를 지표화하려는 시도들도 수행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객관적 재정복지와 관련된 연구동향을 분석하면서 손상희(2000)는 1990년대에는 대표성이 확보된 대우경제연구소의 한국가구패널조사 자료가 가용해지면서 결과에 신뢰성을 확보할 만한 연구들이 다수 수행되었으며 정책적, 교육적 제언제시에 역점을 둔다면 유용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최현자(2010)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주제는 개인재무설계의 실행(69.4%)이며 다음으로 재무상태의 평가(12.5%), 재무복지(7.7%), 재무교육(7.4%), 재무설계 및 상담서비스(3.0%)의 순으로 이루어졌다. 소분류를 보면 재무설계의 실행영역에서 소득과 지출관리부문의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들은 주로 다양한 유형의 가계의 소비지출구조를 분석하거나 비목별 소비지출행태를 규명한 것들로 비목별 소비지출의 경우 교육비문제 해결을 위한 기초연구로 사교육비 지출실태를 분석한 연구(박미희, 여정성, 2000; 이성림, 2002a, 2002b, 2005, 2006; 이승신, 2002, 2003; 손상희, 정영숙, 2003; 김경자, 2007; 허경옥, 2007; 박선옥, 2008a, 2008b 등)가 가장 많이 수행되었으며 여가비(김영숙, 2002; 허은정, 김우성, 2003; 구희일, 최석준, 2009; 이성림, 김기욱, 2009), 경조비(김혜연, 김미성, 2001), 교통비(전윤숙, 이희숙, 2000; 이희숙, 2000), 피복비(이미영, 2006), 연

료비(김숙향, 황덕순, 2002), 식료품비(노민영 등, 2006), 주류비(허은정, 2003), 의료보험비(김혜연, 홍성희, 2001) 등의 지출실태와 영향요인 등을 파악한 연구들이 있었다. 한편 소비표준을 설정하기 위한 연구들도 다수 수행되었는데 주관적생계비나 최저생계비를 계측하거나(김경자, 2000; 정영숙, 2005), 노인가계의 적정 지출수준의 파악(양정선, 김영순, 2004), 가구주의 연령과 직업에 따른 적정소비수준 추정(양연선, 임정빈, 2000) 그리고 지속가능한 생활양식을 실현하기 위한 소비표준 설정을 위한 연구(손상희, 2001)들이 수행되었다. 소득과 지출관리 관련 연구는 2000년대 전반에 주로 이루어졌으며 후반으로 오면서 연구가 차츰 감소하고 있다. 가계의 지출은 재무설계에 있어서 생애자금을 예측하여 재무목표를 설정하거나 행동계획을 수립할 때 꼭 필요한 자료로서 재무설계의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교육비나 자녀양육비 마련은 주요 재무설계영역으로 허경욱(2007), 이성림(2006, 2007), 박선옥(2008b)의 연구는 재무설계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연구사례들이다.

다음으로 많이 이루어진 연구주제는 재무설계의 실행영역의 은퇴설계와 상속으로 전체 개인재무관리 관련 연구의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득과 지출관리 연구와는 달리 2000년대 후반에 더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은퇴설계관련 연구들은 주로 은퇴(노후)준비 실태와 영향요인을 분석한 연구들과 은퇴소비수준과 소득원천 등에 대한 연구들이 있다. 특히 여윤경(2002, 2006, 2007)이나 홍성희(2004, 2006, 2007), 차경욱(2008, 2009) 등은 은퇴설계를 주제로 한 수편의 논문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어 한 가지 주제에 대한 연구의 축적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주로 이론적인 틀 없이 실증 연구를 수행한 것과는 달리 여윤경(2002, 2006)은 이론적인 틀로 생애주기 가설에 근거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여윤경의 2002년 연구를 보면 가계지출함수를 통해 가계에 적절한 목표소득대체율을 추정하였으며 그 결과 부부가계의 목표소득대체율은 82.4%, 독신가계는 이 보다 조금 높은 85.1%

라고 하였다. 이와는 조금 다른 결과로 한국의 은퇴준비지수산정에 관한 연구를 한 최현자 등(2008)은 우리나라 근로자 가계의 목표소득대체율을 62%로 추정하고 이러한 목표소득대체율을 달성하기 위해 은퇴직전소득의 21%가 추가로 필요함을 밝힌바 있다. 목표소득대체율은 각 가계가 은퇴후 생활비를 예측하기 어려울 때 대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서 위와 같이 연구자 마다 결과가 다른 점을 감안 할 때 각기 다른 가계의 특성을 반영하여 좀 더 정확한 목표소득대체율을 산정할 수 있는 후속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은퇴설계와 상속 관련 연구의 약 1/4은 상속(증여)과 관련된 연구들로 중·노년기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경제적 자원이전 행태(이전시기, 이전여부, 이전액, 이전기준 등)와 상속동기나 상속의식 또는 상속행동을 다룬 연구들이다.

신용과 부채도 많이 다루어진 주제이다. 특히 2000년대 후반에는 다중연체자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는데 누가 다중연체자인가를 밝히고 이들의 다양한 특징을 분석한 연구들(김미라, 김혜선, 2008; 김미라, 황덕순, 2008)이나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성(성영애, 2008; 성영애, 정희영, 2008)과 신용회복과정에서 채무조정과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밝히고자 하는 연구(최현자, 조혜진, 2008)도 수행되었다. 한편 신용 및 부채 사용행동에 대한 연구도 다수 수행되었는데 이들은 신용사용여부(부채보유여부)나 부채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한 연구들(김경자, 2000; 성영애, 최현자, 2000; 정순희, 2003; 성영애, 2007)이다. 신용카드사용과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용행동이나 연체행동을 다루고 있다(김영신, 2004, 2005; 김창미, 김영신, 2005). 신용과 부채관련 연구에서 특징적인 것은 채무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부채부담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지표와 준거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연구들이 수행되었으며(채은석, 성영애, 2000; 최현자, 2001) 소비자과산이나 신용회복지원제도 등과 같이 가계의 채무관련 문제와 관련된 제도에

대한 태도, 국제비교, 정책기초자료에 대한 연구(이영희, 이승신, 2006; 허경옥, 2000; 성영애, 2006; 이은영 2008)가 수행되었다는 점이다. 기존의 연구가 부채보유여부나 총부채액, 유형별 부채보유여부 및 부채부담과 관련된 요인을 규명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진 데 비해 채은석과 성영애(2000)는 가계에 주관적으로 부담을 가중시키는 객관적인 부채부담 포인트를 추정함으로써 부채관련기준의 설정을 시도하였으며 최현자(2001)도 가계의 경제구조를 왜곡시키는 부채부담의 상한선을 25%로 설정하는 등 부채관리에 필요한 준거기준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는 연구들이다.

신용과 부채와 함께 많이 다루어진 연구주제는 경제구조와 재무상태에 관한 연구들이다. 재무상태의 평가는 재무설계 과정의 초기 단계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주로 2000년대 전반에 이루어졌다. 기존의 연구들은 이들을 주로 객관적 복지수준에 관한 연구들로 분류하였으나 이들은 그동안의 다양한 경제활동의 결과로 한편으로는 현재의 객관적 복지수준을 나타냄과 동시에 현재의 재정상태를 말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가계의 경제구조와 재무상태에 대한 연구는 주로 객관적인 경제적 복지를 측정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어 온 척도인 소득이나 소비수준 자산수준이나 구성(포트폴리오)를 분석한 것으로 가계의 경제적 복지의 구성요소인 복지의 적정성, 향상성(또는 안정성) 그리고 평등성 측면 중 복지의 적정성(소득이나 소비수준)이나 안정성(자산)을 다루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한편 1990년대 후반 이후 가계의 전반적인 재무상태를 나타내 주는 소득, 지출, 자산, 부채 등과 같은 가계 경제 요소를 결합하여 산출한 재무비율을 이용하여 재무상태를 평가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양정선, 1997; 최윤지, 최현자, 1999) 이들은 미국에서 개발된 재무비율의 종류나 준거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하지만 금융시장환경도 상이하고 주택마련과 자녀교육을 주요 재무목표로 하는 우리나라 가계의 재무관리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재무상태 평가지표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우리나라 가

계의 재무상태를 평가하는데 적합한 지표와 준거기준을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가 수행되었으며(최현자 등, 2003) 이후 이를 기준으로 가계의 재정상태를 분석하고 평가하거나 평가지표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등의 후속 연구가 다수 수행되었다(성영애 외, 2004; 이희숙 등, 2004; 김민정, 최현자, 2007; 유우정, 배미경, 2007)

저축과 투자에 관한 연구는 2000년대 이루어진 개인재무관리 관련 연구의 약 10%를 차지하는데 저축관련 연구가 약 1/3을 투자관련 연구가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저축관련 연구는 2000년대 초반에 그리고 투자관련 연구는 2000년대 후반에 많이 이루어졌는데 특히 FPR에 집중적으로 게재되었다. 2000년대 초반의 투자관련 연구는 포트폴리오 구성이나 주식투자 또는 인적 자본에의 투자와 관련된 것들이나 2000년대 후반에 들면서 투자위험에 대한 태도, 인지, 위험수용성향 등에 관한 연구(길재욱 등, 2008; Grable 등, 2009; 조혜진, 최현자, 2009)와 간접투자를 주제로 한 연구들(성영애, 주소현, 최현자, 2009; 송영출, 2009; 주소현 등, 2009)이 수행되기 시작하였다. 저축과 관련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재무관리행동에 관한 연구는 체계론에 근거한 재무관리행동 연구와 용돈관리(김효정, 2001; 이은희, 남수정, 2004; 김효정, 2004)나 소득관리(윤정혜, 송현주, 2009) 그리고 가계수지의 균형을 위한 관리행동을 다룬 연구(성영애, 2008)를 포함하고 있다. 한편 재무교육에 대한 연구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이를 위한 기초연구들과 교육효과를 분석한 연구들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2000년대 후반에 더 많이 이루어졌다. 교육프로그램은 주로 아동이나 청소년, 대학생 등의 화폐관리나 부채관리, 신용관리 교육이 주 내용이며(성영애, 손상희, 양세정, 2001; 김나연, 이기춘, 2006; 김시월, 2007) 노인이나 농촌여성 등 특수계층의 재무관리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한 연구들도 있었다(최윤지, 최현자, 2004; 손주영, 2006). 한편 기존의 교육과정(초·중·고교과과정 중 금융소비자교육내용, 생활경제교과, 학교 외 금융소비자교육프로

그램, 온라인 어린이 금융교육 웹사이트)을 분석하고 향후 교육에의 제언점을 제시한 연구들(최남숙, 백은영, 2004; 최현자, 최은진, 2005; 박명숙 외, 2006; 최은진, 최현자, 2006; 고순화, 차경옥, 2008)도 다수 수행되었다. 교육효과를 분석한 연구들로 미국 대학생들의 주관적 재정관리 행동문제 인지에 미치는 재무교육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백은영 등, 2004)가 있으며 안창희, 정순희(2006)는 객관적 경제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개인재무교육의 효과를 입증하였고 이들은 최근 후속연구(2009)로 자산수준별로 재무교육이 주관적/객관적 재무성과와 재무행동에 미치는 연구를 통해 재무교육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한편 주소현(2008)은 재무교육의 일환인 직장에서의 종업원을 대상으로 한 종업원 재무교육이 은퇴준비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미국의 Retirement Confidence Survey 자료를 이용해서 살펴보았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연구영역으로 우리나라의 자료가 구축될 경우 종업원 재무교육의 당위성과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주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2000년대에도 여전히 상대적으로 연구가 활발하지 않은 분야가 재무설계 및 상담서비스와 재무교육 분야이다. 재무상담의 경우 미국의 소비자재무상담서비스를 연구한 손상희(2004)의 연구와 인터넷재무상담 프로그램의 내용과 양식개발에 관한 연구(김경자, 2001) 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소분류에서 보면 교육효과분석과 재무태도, 그리고 위험관리와 보험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데 보험과 관련된 논문은 지난 10년간 4편이 이루어져(백은영, 정순희, 2005; 김경자, 2003, 2005; 박인섭, 이성효, 2009) 좀 더 활발한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다.

### 3) 연구방법별 가계재무관리

손상희(2000)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1990년대의 소비자재무 및 복지 영역의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재무관리일반에 관한 연구들은 재무관리행동과 재

정만족도 혹은 재무목표달성도와와의 인과관계를 체계론적 관점에서 규명하고자 한 것들이 주를 이루나 이들 연구의 제한점으로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식의 상이함으로 인해 연구결과의 일관적 성과제시가 어렵고 연구들 간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불필요한 중복연구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하였다. 금융자유화와 시장개방이라는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소비자의 다양한 재무행동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부채, 저축, 은퇴준비 관련 연구들이 다수 수행되었는데 특히 신용사회화에 따른 가계 부채사용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변화와 더불어 가계의 부채부담, 부채보유 및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차용과 저축과의 관계 등을 규명한 시의적절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 4) 선행연구 문제점과 과제

사회현안과 관련된 실무적 유용성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교육 및 연구의 양적 증가가 이루어졌으며 질적인 측면에서도 연구 성과들이 향상되었다. 그러나 개인재무관리분야 연구의 도약을 위해서는 몇 가지 선결해야 하는 과제들이 있다.

첫째, 학문의 역사를 가정학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 개인재무관리는 대부분의 연구가 이론이나 학설보다는 경험적 연구에 집중되어 있다. 지난 수 십년간 연구의 양적인 성과가 있었지만 연구 성과들이 이론적인 체계성을 가지고 이론을 구축하기에는 한계를 여전히 지니고 있다. 앞으로는 가설이나 이론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의 축적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개인재무관리분야의 학문의 특성상 현장적용의 실천성이 부각되는 학문영역이나 실제로 학계의 연구 성과들이 현장에 반영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부재함을 지적되고 있으나 여전히 이 부분은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따라서 내실있고 다양한 피교육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재무교육프로그램의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와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그리고 재무교육의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들이 추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많은 연구들이 사회적 현안에 관심을 두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연구를 시작하였으나 주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고, 향후 연구 방향으로 연구의 초기 단계부터 연구목적과 유용성을 심도 있게 평가해야 하며 실천적 연구가 현장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정책적 제안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연구결과의 현장시사점과 정책적 시사점을 염두에 둔 실용적인 연구가 좀 더 활성화되고 연구자의 연구주제에 대한 관심을 지속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연구대상만을 달리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반복적인 연구들은 과감히 사양하고 새로운 연구주제의 발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각기 다른 가계의 다면적인 특성을 고려한 행동재무학의 논의를 도입하고 이를 우리나라 개인의 재무행동에 적용하는 연구들이 추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재무설계나 재무교육의 은퇴설계나 종업원복지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들을 통해 고용주가 재무설계나 재무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연구결과물의 축적도 필요하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인 재무상담 영역과 위험관리에 대한 연구도 추가로 발굴해 나가야 하는 연구주제가 될 것이다.

### Ⅲ. 가계재무관리의 이론과 행동

가계의 재무특성은 크게 3 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객관적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소득, 지출, 자산, 부채 등과 같은 단순지표이다. 두 번째 가계재무 특성은 가계자산의 포트폴리오 또는 재무비율지표(안정성 지표, 성장성지표 등)이다.<sup>2)</sup> 보통 가계재무구조는 단순지표의 개념으로서 다음의 표와 같다.

<표3-1> 가계재무구성요인

구성 요인	구성
월평균가계소득	· 근로소득+금융소득+부동산소득+사회보험+이전소득+기타
월평균생활비	· 월평균 소비지출
월평균보험료	· 보장성보험(생명보험, 상해보험 등)
연간총저축액	· 예 · 직금+개인연금+저축성보험+계+기타
월평균부채상환액	· 금융기관부채상환액+비금융기관부채상환액+개인적으로 빌린 돈+전세금, 임대보증금 받은 것에 대한 상환액+미리타고 앞으로 부어야 할 계+기타
금융자산	· 은행예금+주식/채권/신탁(투자자산)+저축성보험+아직 타지 않은 계+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기타
실물자산	· 주택시가+주택이외의 다른 부동산 시가+주거를 위한 전(월)세/보증금으로 지불한 돈+주거이외의 부동산사용을 위한 전(월)세/임대보증금으로 지불한 돈
총자산	· 금융자산 + 실물자산
총부채	· 금융기관부채+비금융기관부채+개인적으로 빌린 돈(사채, 친척이나 친지에게 빌린 돈 등)+전세금, 임대보증금 받은 것+미리타고 앞으로 부어야 할 계+기타

한편, 재무비용지표는 주로 가계의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많이

2) 가계재무비율지표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개발되었는데 Griffith(1985)는 합리적인 재무관리를 위해 16개의 재무지표를 제안하였고, Prather(1990) 역시 실증자료를 통해 가계의 재정상태를 파악하기에 적절한 재무비율유형을 제안한 바 있다.

사용된다.

## 1. 가계 재무구조(단순지표)

### 1) 가계소득

가계소득은 가계의 재무상태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지표일 뿐만 아니라 가계 재무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 가계소득은 경제적 만족, 가계경제복지의 가장 중요한 평가기준이다. 개인이나 가계의 소득수준은 우리나라 가계 전체의 소득현황 또는 소득분위별 소득현황과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다.

### 2) 지출

소득과 지출흐름은 미혼기부터 자녀 성년기까지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역 U자형을 나타내었으며, 소득과 지출은 비교적 평행한 흐름을 나타내 가계의 소비, 저축 행동이 전통적 생애주기가설 보다는 생애주기 단계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생애주기에 따른 주요 지출은 생애주기 별로 다르게 나타났는데 자녀 출산 및 양육기부터는 교육비에 대한 지출이 크게 늘어나 자녀학령기에는 가장 큰 지출을 차지하는 주요지출로 나타났고 자녀 독립 및 은퇴기에는 그 이전 단계에 없었던 보건의료비가 주요지출로 나타났다.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으로는 채무와 교육비가 주요 항목으로 나타났고 특히 교육비의 경우는 자녀학령기부터 자녀 성년기에 이르기까지 가계에 최대 경제적 부담이 되는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탄력성에 따라 소비지출 비목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 소득탄력성이 낮은 소비지출비목: 식비, 주택, 연료·전기 및 상하수도, 가계운영, 기타 교통, 보건위생, 개인비

- 소득탄력성이 높은 소비지출비목: 의식비, 가구 및 집기, 피복·세탁 및 수선, 자동차, 교육, 오락 및 문화생활, 보험, 기타잡비

### 3) 저축

가계저축은 가계재무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그런데 저축은 가계 생활주기 또는 생애주기에 따른 분석이 유용하다. 백은영(2009)은 생애주기에 따른 가계의 재무구조와 저축성향을 분석한 결과 생애주기에 따른 저축목적은 주요 지출을 잘 반영하고 있었으며 항목별 저축으로는 보험을 통한 저축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주기 별 자산과 부채는 생애주기와 상관없이 모든 단계의 가계에서 실물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8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자산 규모는 미혼기에 비해 자녀 초등학교기의 경우 평균 3배 정도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순자산 규모가 최고에 달하는 자녀 성년기에는 미혼기의 약 5배 정도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각 생애주기에 부합하는 저축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 4) 부채

저축 및 차용은 가계의 합리적 운영의 중요하고도 필수적인 수단이다. 가계부채 유형은 신용카드나 할부제도 등을 이용한 소비자신용, 주택융자 등 자금대출로서 사금융대출, 금융권 대출이 있다. 금융권 대출은 담보대출, 비담보대출로 구분하며 1992년 우리 나라 가계 대출액 약 31%가 신용대출, 나머지 담보대출(양세정, 강미나, 1993)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3-1> 가계신용의 분류

소비자 신용	소비자 금융 (대출)	제도금융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주택자금대출 제외) 비통화금융기관의 가계대출:개발기관,투자기관, 은행 신탁계정,생명보험사,중금사
			신용카드에 의한 card loan 및 현금서비스
	사금융-사채 및 계 등		
	판매 신용	할부판매신 용	제조업자, 판매점에서의 할부판매
신용카드에 의한 신용		은행계:국민, BC, VISA, 장은 비은행 백화점계: 신세계, 롯데 등 전문회사계: 위너스, 엘지, 다이너스, 아멕스	
할부금융사 에 의한 할 부금융		내구재 등 일반할부금융 (주택, 가계할부금융 제 외)	
주택금융 (주택자 금대출)			

Hira(1990)는 월소득 중 부채상환에 이용되는 금액의 비율이 20%를 넘는 경우 가계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부채부담은 소비자파산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Shephard, 1984).

(1) 가계부채 부담 측정 방법

가계부채를 측정하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이다.

① 가계 부채액의 규모

부채는 금융기관 대출금, 직장대출금, 사채, 신용카드 미결제액 등의 채무와 임대보증금의 총액이다. 현금화곤란 자산액은 즉시 현금화가 곤란한 자

산으로 토지, 건물, 자동차에 대한 일정비율의 금액이다. 즉 채권과 귀금속과 같이 수시로 가격이 변하는 자산인 경우 시세의 일정비율을, 보험과 같이 중도해약하면 납입원금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경우는 납입금의 일정부분을 위험액으로 본다.

## ② 부채액/총자산

보통 총자산 중 부채액의 비중이 0.4보다 큰 경우 재정적 어려움, 0.70이상 최악의 재정 긴장을 의미한다(김연정, 1991). 장동구, 함정호(1994)는 1975년에서 1993년 까지 가계부채 증가율이 자산증가율을 앞서고 있는데 73년 말 25%에서 93년 말 45%로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 ③ 부채액/금융자산

가계자산총액 중 부채액수를 공제한 액수가 순자산이다. 최근 가계자산의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가계금융조사에 따르면 2011년 3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가구당 평균자산은 2억 9천 765만원이었고, 전체 가구의 가구당 부채액은 5천 205만원이었으며, 62.8%가 가구당 부채액수는 평균 8천 289만원(7.3% 증가)이었다.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억 4천 560만원으로 나타났다.

<표3-2>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 및 부채현황

구분	전체 가구		보유가구	
	평균	비중	비율	평균
자산총액	29,765	100.0	100.0	29,765
금융자산	6,903	23.2	99.6	6,933
저축액	5,023	16.9	99.0	5,075
전월세보증금	1,880	6.3	36.1	5,203
부동산	21,907	73.6	66.1	33,139
(거주주택)	11,812	39.7	56.5	20,902
기타 실물자산	955	3.2	73.6	1,297
부채총액	5,205	100.0	62.8	8,289
금융부채	3,597	39.1	56.2	6,396
(담보대출)	2,850	54.8	35.5	8,024
(신용대출)	625	12.0	23.2	2,690
임대보증금	1,608	30.9	17.0	9,474
순자산	24,560	-	100.0	24,560

주: 단위는 만원, %, %P

한편,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총자산 대비 총부채비율은 17.5%, 저축액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71.6% 이다.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 및 원리금상환액 비율은 각각 109.6%, 18.3%로 밝혀지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가계의 소득 5분위별로 살펴보면,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은 1분위 가구가 가장 적은 13.3% 5분위 가구가 가장 큰 18.4%이다. 저축액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1~2분위 가구가 각각 86.5%, 88.0%로 5분위 가구는 65.3%로 가장 낮다.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1분위 가구가 201.7%로 가장 높고, 나머지 분위 가구는 100%를 약간 상회하고 있다.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은 1~4분위 가구가 20% 전후이고 5분위 가구는 가처분소득이 많아서 15.1%로 낮다.

#### ④ 월평균 부채상환액/월평균 가계소득

소득 중 부채상환 비중이 가계부채를 측정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는 주장이 있다. 성영애, 양세정(1995)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의 평균

부채부담비율은 13%, 부채보유가계 만의 평균부채부담률은 33.99%로 나타났다. 그런데 가계는 어느 정도까지의 부채를 지고도 가계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월소득 중 부채상환에 드는 금액의 비율이 20%를 넘지 않는 것이 권장되고 있다. 미국 전문채무설계사들은 20~40%를 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다.

과도한 가계부채는 재정적자, 지불연체, 가계파산과 같은 가계경제문제를 야기한다. 미래를 앞당겨 쓰는 가계부채는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부담이다. 따라서, 가계에 부담을 적게 주면서 부채를 활용하는 합리적 부채이용의 중요성은 크다. 적절한 부채규모, 적정 규모의 월평균 부채상환액, 소득 대비 어느 정도의 부채를 상환하는 것이 좋은지, 어떤 부채유형을 이용하는 것이 좋은지, 주택구매와 관련한 부채에서도 상환기간의 선택, 대출의 출처 등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부채관리상의 오류, 과도한 부채는 지불능력을 초과하는 파산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가계의 재정적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순소득을 증가시키는 방법, 부채를 절감시키는 방법, 자산 소유 및 부채 재구성 방법(균형적인 포트폴리오 구성)

## (2) 가계부채

전자상거래 확산으로 인한 신용카드사용 증가, 조세정의사회구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신용카드 활성화정책(소득공제제도,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도, 기업구매 카드 활성화 정책), 금융기관간의 경쟁 심화 등이 신용카드가용의 일반화, 가계신용증가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저리 또는 무이자할부를 제공하는 내구재 판매기업의 증가, 1996년부터 업무를 개시한 할부금융사들의 활동 등으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해 왔다. 보통 신용카드 대금을 1개월 이상 연체하면 카드사용 중지, 3개월 장기연체하면 악성채무자로서 모든 카드 사용 중지된다.

최현자, 성영애(2000)가 대우경제연구소에서 실시한 한국가구패널조사와

통계청의 가구소비실태조사 및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1994년부터 1999년까지 우리나라 가계의 부채이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 기간에 걸쳐 평균 2 가구 중 1가구는 부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평균부채보유액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를 보유한 가계만의 평균부채보유액은 전체 평균의 약 2배로서 금융자산을 능가하는 부채규모로서 과다부채로 인한 재정문제가 우려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들은 가계소득의 약 10%내외를 매달 부채상환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가계에 대한 합리적인 가계설계 교육이 필요하며, 현재 부채를 지지 않은 가계에 대해서도 향후 차용행동에 대비한 가계재무설계방안에 대한 효과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가계가 빚을 진 경우 가계가 갖게 되는 문제는 i) 부채상환과 관련한 문제: 연체이자의 가중(기한이익 상실에 대한 것), ii) 부채회수상 강제적 집행: 금융기관의 대출금상환독촉서, 담보책임청구서, iii) 신용불량과 소비자파산: 경제활동인구 10명당 1인이 과다채무로 인한 신용불량자이다. 최근 소비자파산은 증가하고 있다. 채무상환연체는 신용불량판정으로 연결되고, 채무변제를 위한 추가차입이 차단되므로 소비자파산이라는 극단적인 결과가 초래된다. 따라서 소비자파산에 대한 채무상담제도가 도입되고 있으며, 소비자신용문제를 상담해 주는 전문가가 출연하고 있다. 신용관리교육이 소비자파산을 막고 가계경제의 건전성 강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 금융기관의 경쟁적인 영업활동, 가계의 상환능력을 넘는 과도한 신용사용은 더 많은 신용불량자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

### (3) 부채 관련 선행연구

가계부채 관련 선행연구는 i) 부채보유여부나 부채총액 그리고 그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성영애, 양세정, 1995; 문숙재, 김순미, 양정선, 1996; 최현자, 1996), ii) 부채이용이 소비지출 등 가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심영,

1993; 최현자, 1996), iii)가계부채 부담의 부채상한선 또는 임계수준 연구(최현자, 2001), iv) 주관적 부채부담감과 대처행동(손상희,1995), 객관적 부채부담이 주관적 부채부담에 미치는 영향(채은석, 성영애, 2000), v) 가계부채 관련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위한 연구(최현자, 성영애, 2000) 등 이다.

성영애, 양세정(1995)은 전체가계의 부채부담은 13%, 부채를 보유한 가계만의 부채부담은 약 34%으로 조사하였고 일반적으로 재무상담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부채상한선인 부채부담률 20%를 넘는 가계는 전체의 17%, 부채부담률이 50%가 넘는 가계도 약 7%로 조사하였다.

성영애(1996)는 1982년부터 1992년 까지 통계청이 제공하는 도시가계연보의 시계열 자료 사용하여 전 도시 가계의 가계부채부담을 조사한 결과 월평균가계소득의 10~13%를 부채상환에 쓰고 있음을 밝혔다. 이때, 도시 가계의 30~49%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부채보유가계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월평균가계소득의 25~39%정도가 부채상환에 지출되고 있었는데 그 비중이 과거에 비해 증가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시계열 자료를 조사한 결과 부채를 보유한 가계의 비율은 감소하고 있으나, 일단 부채를 보유하게 된 가계는 과부채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더욱 많아지고 있으며, 이는 소비지출의 억제, 심리적 압박감 증가 등 가계복지를 저해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합리적 가계재무설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저소득층이 담보 및 신용부족으로 용자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저소득층 편의에 근거한 무담보대출 등 대출제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가계대출제도 확대, 대출금 상환기간의 장기화를 통한 월상환액의 감소방안, 부동산가격 안정화정책을 통한 가계부채 문제 완화, 현재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많은 가계에 대해서도 앞으로 부채행동에 대비한 가계재무설계방안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성영애(1996)는 대체로 자가를 소유한 가계, 대학졸업의 가계, 봉급자가계의 경우 가계소득 중 월평균 부채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 즉 가계부담이 더 크다고

발표하였다.

문숙재, 김순미, 양정선(1996)은 1993년 대우경제연구소의 한국가구패널조사(KHPS)를 가지고 가계부채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가계의 약 35%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부채보유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구주의 연령 및 교육수준 그리고 직업, 주택 소유 여부, 금융자산과 근로소득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학력자, 비정규직 및 미취업자, 무주택자, 근로소득이 적은 경우, 금융자산이 증가하는 경우 부채보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하였다. 또한,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장기적인 융자혜택, 담보체계의 개선, 상환조건의 다양화,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른 차별적인 가계재무관리 교육, 신용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규제, 부채지불능력에 대한 부채한도액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을 제공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가 부채보유에 대한 개인의 직접적인 선호나 태도가 포함되지 않았다. 부채에 대한 주관적인 성향, 즉 심리적 변수가 부채보유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채은석, 성영애는 주관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객관적 부채부담정도를 중점으로 가계에 주관적으로 부담을 가중시키는 객관적인 부채부담 포인트를 추정하여 부채 관련 기준 설정을 시도하였다. 객관적 부채부담은 월평균 부채상환액, 소득 대비 월평균 상환액, 부채 잔액 3가지로 측정되었다. 또한, 주관적 부채부담은 6개 문항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월평균 부채상환액 20만원을 기점으로, 소득대비 월평균상환액 비율 0.2%를 기점으로, 부채잔액 1500만원을 기점으로 주관적 부채부담감, 즉 심리적 부담감이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밝혔다.

최현자, 성영애 (2000, 2001)는 가계부채관리교육 및 상담프로그램 개발연구를 하였다. 상담프로그램은 부채문제의 강도에 따라 흑자, 적자, 악성채무가계로 구분하여 다 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부채관리의 주

체는 개별가계이나 부채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제도적 사회적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또한, 가계부채 이용 후 발생하는 문제는 과다부채문제, 상환관련 문제, 연체문제, 채권회수 관련 문제, 신용정보 훼손의 문제, 소비자파산의 문제이다. 이를 위하여 부채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는데, 구체적으로 과다부채와 관련한 상담 내용으로 과다채무의 징후를 알아보고 확인하기, 과다채무 대처하기, 신용불량 관련 불이익이나 등재시 대처요령 파악하기, 소비자파산절차나 파산시 입계되는 불이익에 대한 상담 등이었다. 이를 통해서 가계의 부실화를 막고 금융기관의 여신과 관련한 부실화를 최소화하여 국가경제의 장기적 성장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최현자(2001)는 가계부채 부담의 부채상한선 또는 임계수준을 기준으로 가계경제의 위기를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서 통계청의 1999년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우리나라 가계의 부채상한선은 미국보다 약간 높은 부채부담 25% 수준이 적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시 말해, 부채부담이 25%를 초과하는 경우 가처분소득으로 부채상환과 소비지출을 충당하지 못하는 적자가계를 영위하면서 가계경제구조를 왜곡시켜 가계경제가 위기에 처하게 된다. 조사결과 전체 가계의 83%가 부채부담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전체 가계의 7.3%는 부채부담률이 40%를 넘고 있어 현 생활수준을 유지하면서 부채상환하기 어려운 상태로 밝혀지고 있다.

Hira(1990)은 부채문제로 상담을 한 적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부채량에는 가족수, 취업여부, 부채액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림(2005)은 과소비·부채가계의 가계경제구조를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i) 가계지출이 가계소득을 초과하는 과소비·부채가계 비율은 13.34%이며 평균적으로 월소득의 약 18%를 초과하는 과소비를 하고 있다. ii) 과소비의 약 89%는 자산에 의해, 약 11%는 부채에 의해 충

당되었고, 연간 순자산 감소분은 월소득의 약 2배 정도이다. iii) 과소비·부채의 원인이 되는 주요 비정상지출은 대학교납입금, 자동차 구입, 교육비 송금으로 나타났다. iv) 과소비·부채가계에서는 사치적인 소비에 많은 지출을 하고 있고 규모가 큰 지출을 요구하는 비정상지출수준이 높다. v) 과소비·부채가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부채 변수는 월부 및 외상이며 소득, 가족생애주기, 직업, 주택 및 자동차 소유가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연구의 분석결과는 과소비가계는 그렇지 않은 가계에 비해 소득은 낮으면서 지출 수준은 월등히 높다고 지적한 박명희 외(1996)와 높은 수준의 부채보유가 보다 고급의 소비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심영(1993)과 최현자(1996)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과소비·부채가 소득이 매우 적어서 소득만으로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소비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득이 부채를 지고 소득이상의 지출을 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기보다는 보다 풍요로운 생활을 추구하는 가계의 자발적인 소비 선택에 따른 결과라는 진단이 보다 적절할 것 같다.

<표3-3> 과소비·부채가계에 대한 부정적 증거와 긍정적 증거

부정적 증거	긍정적 증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소비·부채가계의 분포(13.34%)</li> <li>· 급격한 순자산 감소-자산감소, 부채증가</li> <li>· 과소비가 주로 월부/외상부채에 의존하는 경향</li> <li>· 과반수 이상이 소득 계층이 하층</li> <li>· 생애주기 후반부인 첫자녀 대학교육기에 다수 분포</li> <li>· 정상적 소비지출 비목에 대한 지출비중이 높음</li> <li>· 과소비의 원인이 되는 비정상지출 중 송금 및 보조금은 지속적인 지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우자 및 기타가구원 소득 비중이 낮음</li> <li>· 자산이 감소했음에도 저축성 보험료 납입을 지속됨</li> <li>· 과소비의 자산의존도(89%), 과소비가 부채보다 주로 자산에 의존함</li> <li>· 가계지출 중 비정상지출 비중이 높음</li> <li>· 정상적 지출 중에서 선택적 지출에 대한 비중이 높음</li> <li>· 자동차나 집을 소유한 가계가 많음</li> <li>· 가구주 직업이 기술 및 준전문직인 경우가 많음</li> </ul>

심영(1993)은 가계부채가 소비패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가계의 높은 부채부담은 소비패턴을 불균형하게 함으로써 가계의 경제복지를 저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부채를 안고 있는 경우 어느 일정기간 동안 한정된 소득을 지닌 가계는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되며 그러한 경제적 부담은 따라서 어느 일정시점에서 가계가 누릴 수 있는 소비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부채는 계획하고 있던 지출을 연기하거나 정규적인 지출을 축소시켜야 하는 것과 같은 예산상의 조정을 가져온다. 일반적으로 일시적인 소득변동으로 인해 예산상 압박이 있을 경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식료품에 사용하는 비용을 어느 정도 무시할 수 있는 지출로 여긴다. 또한 부채상환을 위하여 점점 증가하고 있는 지출몫은 가계로 하여금 비임의적 소비지출(nondiscretionary spending)보다 임의적인 소비지출(discretionary spending)을 더욱 크게 삭감하도록 한다.

항상 소득가설(Permanent Income Hypothesis)에 따르면, 가계는 어느 일정기간 동안 한정된 예산으로 구매되는 소비재화와 용역으로부터 최대의 효용 즉, 만족감을 얻고자 한다. 이때 가계의 예산은 그 단기간 동안 가계가 획득하는 현재소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혹은 평생동안 기대되는 소득을 기초로 한 기대된 소득(expected income)에 의해 결정된다. 기대된 소득은 가계가 소유하고 있는 자원들, 즉 인적 자원과 비인적 자원(자산)의 장기적인 예측을 기초로 한 것이다. 따라서 어느 일정기간 동안 이용가능한 가계의 예산은 그 일정시점에서 가계가 획득한 현재소득이나 부채의 정도에 무관하다.

##### 5) 자산

자산은 현금, 금융기관 예치금, 주식과 채권(시가), 귀금속(시세), 전세보증금, 빌려준 돈, 토지, 건물의 시가, 자동차(중고차 시세)를 모두 합한 금액으

로 크게 유동자산과 고정자산의 합이다. 안전자산의 기본조건은 투자자금 가치의 안정성과 원금회수의 확실성이다. 안전자산은 일반적으로 이자지급이 보장된 국공채, 은행저축이며 위험자산은 원금상환이 불투명하고 배당지급도 기업이윤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주식, 회사채권, 사채, 계 등 이다. 결국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한 상태에서 기대수익을 얻을 것인가의 선택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위험자산투자여부는 위험자산 유형 중 하나 이상의 항목을 보유하면 위험자산투자자로 볼 수 있는데 보통 가계의 경우 전체 자산투자중 위험자산투자 비중이 25%, 50%, 75%로 구분하여 분석할 수 있다.

한편 금융포커스에서 게재된 내용에 따르면, 가계의 금융부채 상황 능력 지표로서 i) 금융부채/가처분소득(%), ii) 금융자산/금융부채(배)를 사용한다. 한국은행, 자금순환동향, 조사통계월보 등에서 위 2가지 지표가 공개되고 있다.

금융자산의 선택과 관련하여 Uhler & Cragg(1971)는 개인의 재산, 연령, 가족의 크기 등이 개인의 금융자산을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Yoo(1994)는 연령이 포트폴리오 구성을 결정하는 요인임을 발견하였다.

한편, 투자성향과 자산배분에 관한 연구에서는 자산구성이 생애주기에 따라 개인의 저축률이나 투자성향에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투자성향은 생애주기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를 이용하여 참고 포트폴리오를 만들기도 한다. 투자성향은 주로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투자자의 생애주기 위치에 따라서도 결정된다.

<표3-4> 투자 관련 개념의 분류체계

조사영역			문항내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투자경험	투자목적	목적	자금 사용 목표
		금액	투자원금과 자산 내 투자비중
		기간	원금회수까지의 기간
투자위험	투자경험	투자경험	과거 주식 관련 상품 투자 경험
		투자비중	현재 주식 관련 상품 투자 비중
투자위험	투자위험	위험개념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생각
		허용범위	손실허용범위
투자유형	투자상품	안정성	안정성을 고려한 상품선택
		수익성	수익성을 고려한 상품선택
	투자안선택	투자기회	확률에 의한 대안 선택
		투자안	포트폴리오의 선택
투자비중	위험	위험대응	위험에 대한 반응
	수용	위험지정	투자성향 지정
		직접지정	금융자산 투자비중 지정

가계의 자산배분행동에 대한 연구로서 문숙재, 양정선(1996)는 가계의 위험금융자산과 안전금융자산투자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고, 여윤경, 정순희(2004), 김영숙과 김지현(2003)은 주식투자행동에 대해 조사·분석하고 있다. 이은실, 최현자(1998)는 가계 포트폴리오를 유동성 중심, 자산증식 중심, 위험대비 중심으로 구분한 후 자산수준에 따라 가계포트폴리오를 분석한 결과, 자산수준이 높을수록 자산증식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보유할 가능성이 높음을 발견하였다. 한편, 박주영, 최현자(1999)는 고자산계층일수록 총자산 중 부동산보유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음을 밝힌 바 있다. 최지은, 정순희, 여윤경(2005)은 소비자의 자산계층별 금융자산 포트폴리오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결과, 저자산계층 소비자들은 요구불예금과 저축성보험과 같은 안전한 저축형 투자에 치중하고 있는 반면, 고자산계층 소비자들은 저축, 신탁, 유가증권 등 상대적으로 위험한 투자에 비중을 두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로 인한 수익률에 있어서 고자산 계층의 경우 저자산 계층보다 약 100배 이상의 투자수익을 내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대체로 많은 선행연구들은 가계자산이 많을수록 위험자산보유비중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 6) 경제적 안정도와 비상자금

경제적 안전도(economic security)는 재무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개념으로 경제적 위기가 발생하였을 때 주어진 생활수준 또는 소비수준을 지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계의 능력(김경자, 1993)으로 개념화하고 총자산과 유동자산의 시가를 월평균 소비지출액과 빈곤선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이종혜(1993)는 같은 개념으로 경제적 안정도(economic stability)를 측정하였는데 가계가 보유한 순자산을 현금화하여 종신연금의 형태로 투자할 경우 매년 받는 연금의 현재가치와 그해의 소비수준의 최소요구량이라 할 수 있는 가계원수를 고려한 연간 최저 생계비와의 비율로 측정하였다. 이는 순자산을 위험에 대한 대처능력으로 간주한 것이나 최저생계비를 유지하는 수준만 고려하였다는 단점이 제시되었고(황덕순, 1995) 소득의 중단 외에 가계의 상태를 위협할 수 있는 다른 위험의 측면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제한점이 있다. 경제적 안전도는 가계에 경제적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 일정수준의 경제적 생활수준이 안전하게 보장될 수 있는 정도, 능력으로서 가계의 소득과 자산을 고려한 해결책의 개념이다.

한편, 비상자금도 가계경제 또는 가계재무의 중요한 기준이다. 비상자금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자. 정운영, 한경미(2004)는 가족생활주기와 가계의 비상자금 적정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비상자금 적정도 수준을 두 가지 비율(Quick emergency fund ratio, Comprehensive emergency fund ratio)로 측정하였고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다 빠르게 사용될 수 있는 비상자금(QEF) 적정도의 평균수준은 3.59 보다 포괄적인 비상자금(CEF)적정도의 평균수준은 3.98로 나타났다. 가계의 비상자금에 대해 일반

적으로 합의된 정의는 없다.

최현자(2003)는 비상자금을 갑작스런 소득의 중단에 처할 경우 금융자산을 가지고 몇 개월 정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지로 정의하고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을 월평균 생활비와 월평균 소득으로 나눈 비율로서 측정하였다.

이제까지 연구들에서는 비상자금의 적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매달 지출과 순소득을 평가 척도로서 사용하였고 비상자금의 적정도를 위한 기준은 1년의 생활비에서부터 2~3달의 소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대부분 연구에서는 3달간의 가계의 순소득을 적정도를 비상자금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실업자가 다른 직장을 찾는데 적어도 3개월간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근거 아래 설정한 것이다.

i)이 외에도 가계의 비상시 경제안정도를 유지하기 위한 자금으로 은행 저축과 같이 보다 빠르게 현금화 할 수 있는 유동자산의 합을 그 가계의 3달간의 소득으로 나눈 비율(quick emergency fund, QEF ratio), ii)은행예금 뿐 아니라 주식과 채권, 유가증권과 같은 자산의 합을 3개월간의 소득으로 나눈 비율(comprehensive emergency fund, CEF ratio)로 측정하기도 한다. 보통은 비상자금지표로서 금융자산을 월평균 생활비로 나눈 값, 이에 대한 정보가 확실치 않은 경우 월평균 생활비의 대체값으로 측정한다(최현자 외 3인, 2003).

## 2. 가계재무 건전성 및 가계재무평가

가계재무건정성 또는 가계재무상태에 대한 평가는 크게 주관적 재무상태 평가상태와 객관적 재무상태로 구분한다. 주관적 재무상태는 현재의 경제상태를 측정하는 것으로 보통 경제적 정도와 경제적 안정도로 측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김효정(1999, 2000), 김경자, 박명숙, 정운영(2002) 등은 가계의 재무

관리행동은 가계재정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밝힌 바 있다. Malroux, Xiao(1995)는 노후소득에 대한 주관적 적정도를 평가한 바 있다.

객관적 재무상태는 소득, 지출, 자산, 부채 등과 같은 단순지표, 그리고 재무비율지표(안정성지표, 성장성지표)이다. 합리적인 재무관리를 위해 재무상태에 대한 지표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여 Griffith(1985)는 16개의 재무지표를 제안하였고, Prather(1990) 역시 실증자료를 통해 가계의 재정상태를 파악하기에 적절한 재무비율 유형을 제안한 바 있다. 이들의 지표를 활용한 많은 선행연구(예: Iwuagwu, 1989, Winger, Frasca, 1989)들은 많은 지표 중 유동자산 관련 비율이 가계의 재정안전성에 가장 중요한 실질적인 지표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Winger, Frasca(1989)는 가계의 경우 가처분소득의 3개월에서 6개월분의 유동자산이 필요하며, 유동자산이 단기부채보다 많은 경우 가계재정이 건전하다고 간주하였다. Hong, Swanson(1995)는 재무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가계소득, 비상금적정도(유동자산, 2개월분의 가계소득), 소득에 대한 부채비율을 사용하였다.

그동안 재무비율 관련 연구는 주로 미국에서 수행되었으며, 개발된 재무비율의 종류나 준거기준 또한 미국실정에 적합한 것들이다. 이에 최현자 등(2002)은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시장환경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가계의 주요 재무목표가 주택마련이나 자녀교육에 두고 있어 미국에서 개발된 준거기준을 적용한다는 점에 무리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재무상태 평가지표와 준거기준을 개발하였다. 가계의 재무비율은 가계의 전반적인 재무상태를 나타내 주는 소득, 지출, 자산, 부채 등과 같은 가계 경제 요소를 결합하여 산출할 수 있는 것으로 종합적 자산관리를 위한 신뢰성 있는 재무상태 평가지표로 평가받고 있다.

#### 1) 재무건전성의 개념 및 이론적 배경

가계의 재정상태를 파악하고, 이를 분석·평가하는 일은 합리적인 재무의

사결정을 유도하여 재정적 복지를 이룩하는데 매우 중요하며, 이를 통해 가계는 소득과 부의 극대화, 소비의 효율성, 재정적 안정, 노후를 대비한 자산 축적 등을 이룰 수 있다. 종합적인 자산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확한 재무상태의 평가가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며 평가의 기준으로 재무비율의 이용이 매우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무비율은 가계 재무관리자에게 순자산의 유동성과, 지불능력 등과 같은 재정적 상태를 나타내 주는 도구이다(Griffith, Widdows, 1985; Prather, 1990). 특히 재무비율은 각 준거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가계의 재정불안, 파산율을 예측할 수도 있다(DeVaney, 1993). Lytton et. al. (1991)은 재무비율의 유용성을 주장하면서, 재무비율은 개인 또는 현재 가계의 재정상태를 피드백 할 수 있으며, 전 시기에 걸쳐 재정상황의 변화를 측정하며, 재무의사결정에 사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결국 재무비율은 개인 또는 가계의 재무안정성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기준일 뿐만 아니라 가계재무복지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데 유용한 기준이라고 하겠다.

재무비율은 가계재무상태의 다양한 측면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들에서 재무 상담과 계획시에 가계재무 진단의 도구가 되며, 재정상태 분석과 논의의 시발점이 된다. 또한 재무비율지표는 시간의 변화에 따른 재정적 능력평가를 쉽게 하기 위해 구성된 객관적 척도로서 각 가계의 재정상태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며 유용한 방법임이 입증되었다(양정선, 1997; DeVaney, 1993; Garman, Forgue, 1994; Prather, 1990).

한편, 체계이론(system theory)에 따르면 가계의 재무관리행동 목표설정 및 재무계획, 재무관리실천행동, 그리고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가계재무관리의 결과는 대체로 주관적 재무만족도, 객관적 재무건전성, 재정만족도 등으로 나타나게 된다. 다시 말해, 가계재무관리행동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 목표설정 및 이행 등 과정이다.

Weagley, Gannon(1991)은 Missouri 거주 가계를 대상으로 가구주 연령에

따라 가족생활주기를 구분한 후 자산보유유형을 비교·분석한 결과 가구주 연령이 높을수록 위험자산을 더 보유하고 있으나, 퇴직에 가까울수록 위험자산을 줄이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Xiao(1996)는 생애주기와 가계소득에 따라 가계의 자산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하였다. 이은실, 최현자(1998)는 자녀미취학기에서 노년기가 될수록 자산의 종류(예:소득, 유산상속, 비상금, 퇴직연금 등)는 줄어드나, 부동산 투자비중은 증가함을 밝혔다. 생애주기가 자산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앞서의 연구결과는 정운영(1996), 김순미(1998) 등 많은 선행연구결과와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한편, 정운영, 한경미(2004)는 가족생활주기와 가계의 비상자금적정도에 관한 연구를, 여윤경(2009)은 생애주기에 따른 위험자산 선택행동연구를 수행하였다.

가계재무비율을 가계경제의 상태를 안정성과 성장성이라는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안정성비율과 성장성비율로 분류하였으며, 안정성지표에는 가계수지지표, 비상자금지표, 위험대비지표, 부채부담지표를, 성장성지표에는 저축성향지표, 투자성향지표, 유동성지표를 포함하였고, 이에 따른 준거기준을 개발하였다.

준거기준이라 함은 바람직한 재무비율의 임계치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준거기준이 이상적인 재무비율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금융자산/월평균생활비 비율의 경우 준거기준은 1.0로 제시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제시하는 비상자금의 이상적인 비율은 3~6배라 일컬어진다.

재무건전성은 가계의 재무상태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것으로 가계의 객관적인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개념 및 측정방법을 살펴봄으로서 재무건전성의 개념과 측정방법의 특성을 알 수 있다. 재무건전성은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가계가 신속하게 현금화 될 수 있는 자산의 시가액인 가용순자산을 어느정도 보유하고 있고 변제의무가 있는 채무액 및 보유자산의 불리한 변동으로 야기될 수 있는 위험액 즉 급박한 지출 또는 예기치 않은 지출이나, 갑작스런 부도로 그 책임을 떠안았을 때 그것을 충분히 막을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느냐를 점검하는 것으로 가용순자산의 총위험액으로 나눈 비율로서 측정된다(대신경제연구소, 1998). 그러나 이는 개인의 신용평가를 위해 사용된 지표로 가계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가계의 재무목표와 가계 특성에 맞는 개념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다.

김경자(1993)는 가계재무건전성이란 경제적 위기가 발생하였을 때 이전의 생활수준을 그대로 유지·지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계의 재무상태라고 강조하였다. 정운영, 황덕순(2002) 가계재무건전성이란 가계의 재정상태를 평가하는 지표로서 가계가 재정적 위험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충분히 막을 수 있고, 그 이전의 수준으로 재정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재정구조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사항으로 위험에 대비한 가계의 재정구조를 평가라는 지표로 정의하였다.

황덕순(1993)은 재정적 안정, 재정적 압박감, 재정만족도, 생활만족도, 대처행동, 인적 사항, 소득 관련 변수, 고용 관련 변수를 통하여 가계의 경제적 안정상태를 연구한 결과 재정적으로 안정될수록 가계의 재무건전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 재무건전성 관련 선행연구

가계재무건전성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관적 재무관리 평가와 객관적 재무관리 평가를 수행하였다. 많은 연구자들이(예: Iwuagwu, 1989, Winger, Frasca, 1989) 유동자산 관련 지표가 가계의 재정안전성에 가장 중요한 실질적인 지표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Winger, Frasca(1989)는 가계의 경우 가처분소득의 3개월에서 6개월분의 유동자산이 필요하며, 유동자산이 단기부채보다 많은 경우 가계재정이 건전하다고 간주하였다. Hong, Swanson(1995)는 재무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가계소득, 비상금적정도(유동자산/2개월치 가계소득), 소득에 대한 부채비율을 사용하였다. 한편, 주관적 재무상태는 현재의 경제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의미한다. 그런데, 개인

의 위험인지나 위험감수성향과 가계재무 건전성과의 연관성을 연구한 소비자학 분야의 선행연구는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

가계재무상태 평가지표의 타당성을 검토한 김민정, 최현자(2007)의 연구결과 첫째, 가계재무상태 평가를 위한 객관적 평가지표로써 재무비율지표가 단순지표보다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위 연구에서 사용한 재무비율지표의 준거기준을 상향 또는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안정성지표의 경우 객관적으로는 바람직하게 평가되었지만 주관적으로는 재무상태를 부정적으로 여기는 가계가 많았고 성장지표의 경우에는 객관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게 평가되지만 주관적으로는 재무상태를 긍정적으로 여기는 가계가 많았다. 따라서 안정성지표의 준거기준은 하향조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안정성지표의 준거기준은 상향조정을, 성장성지표의 준거기준은 하향조정을 고려를 제안했다. 셋째, 가계재무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서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을 이용한 투자성향지표의 효율성에 대해 신중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성장성지표에 사용되는 실물자산에 대한 일관된 정의가 필요하며, 거주를 위한 부동산과 거주이외의 부동산은 성격이 다른 실물자산이므로 별개의 준거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민정, 최현자(2007)는 합리적인 재무관리의 주요 목적은 소득과 자산을 증가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개인이나 가계의 경제적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재무상태의 객관적 지표향상과 함께 주관적 만족도 향상에 있는 것이며, 보다 정확하게 설정된 평가지표와 준거기준이라면 주관적인 재무상태와 객관적 재무상태가 어느 정도는 일치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계재무상태 평가지표를 이용하여 가계유형을 분석한 성영애 등(2004)은 안정성 지표와 성장성지표의 준거기준 만족여부에 따라 가계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의 가계가 갖는 재무비율의 특성과 재무특성을 살펴보고 간접적으로나마 재무비율의 유형과 준거기준의 적합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즉, 연구결과에서 4개의 성장성 지표를 모두 만족한 가계가 1.1%에 불과한 것은 성장성 지표의 준거기준이 다소 높은 것을 의미하지만, 안정성보다 성장성 기준을 먼저 충족하는 가계가 0.3%에 지나지 않는 것은 성장성에 앞서 안정성을 우선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반영하여 개발된 평가지표와 준거기준이 어느 정도 타당함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하였다.

객관적 가계경제복지와 주관적 가계경제복지의 상호관계를 연구한 김민정(1995)은 다양한 객관적·주관적 경제복지지표를 구성하여 가계경제복지수준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객관적 경제복지수준과 주관적 경제복지수준이 일치하지 않는 32%의 가계 중 객관적 경제복지수준은 높음에도 불구하고 주관적 경제복지수준은 낮은 가계는 연령과 가구원수가 낮았고 근로계층의 비율이 높았으며, 반대로 객관적 수준은 낮으나 주관적 수준이 높은 가계는 교육수준이 더 높고 신중계층의 비율이 높았다.

단순지표만으로 가계재무상태를 평가하는 것은 가계재무상태의 복합적인 측면을 평가하는 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근 연구들(허경옥·한수진, 2005; 성영애, 2003; 배미경, 2001; 채은석·성영애, 2000; 김년희, 2000 등)은 재무비율지표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에서 이용한 재무비율과 준거기준은 외국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금융시장환경이 상이한 국내 가계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재무상태 평가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학계는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최현자 등(2003)은 주관적 경제만족도의 임계치를 활용하여 7개의 안정성지표와 4개의 성장성지표 등 총 11개의 가계재무상태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각각의 지표에 대한 준거기준을 설정하였고, 이후 국내연구자들도 최현자 등(2003)이 개발한 지표를 자주 사용하고 있다(성영애 등, 2004; 김민정, 2005 등).

최현자 외(2002)의 연구에서는 가계재무비율을 이용한 기존의 가계재무상태 평가지표에 관한 고찰과 평가를 바탕으로 한국 가계에 적합한 재무비율

을 제안한 바 있다. 이들의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제안된 재무비율의 준거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가구는 2.1%에 불과하였다. 성장성지표에 비해 안정성지표를 모두 만족하는 가구의 비율은 46.3%로 거의 절반수준인 반면, 성장성지표를 만족하는 가구는 2.4%였다. 비상자금지표와 부채부담지표는 비교적 다수 가구들이 준거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성지표를 만족하는 가구의 비율이 지극히 낮은 것은 총자산에서 투자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만족시키는 가구의 비율이 낮았기 때문인데, 여전히 가계들의 자산 운용형태는 안전지향적으로 수행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둘째, 재무비율을 모두 만족하는 가계의 특성을 살펴보면 가계재원이랄 수 있는 가계소득과 총자산규모가 타집단에 비해 높았고, 월생활비, 월평균보험료, 월평균저축액이 많았으며, 자사보유방식에서도 금융자산과 투자자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봉급생활자였고, 30대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재무비율의 준거기준에 의한 가계재무상태의 평가가 보편타당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가계의 재정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객관적 변인인 자산분석에 초점을 두고있다(Prather, 1990). 이는 가계에 축적된 저량(stock)인 순자산저량, 총순자산량 등의 산술적 크기를 기초로 한 재정상태의 측정으로서 누구나 쉽게 측정하고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승철, 김년회(년도없음)의 재무비율을 이용한 가계의 재정상태 분석에 관한 논문에서는 이 방법은 개별 가계의 재정상태를 비교·평가하는 데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특정가계가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를 지니고 있거나 대부분을 고정자산의 형태로 가지고 있어 가계내의 유동성이 극히 부족한 상태에 있다면, 그 가계를 건전한 재정상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두 가지 이상의 재정변수를 조합한 재무비율들(financial ratios)을 통해 각 가계의 재정상태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며 유용한 방법이라고 제안한다.

기업의 재무상태분석에 사용되는 재무비율을 가계에 도입하게 된 것은 가계의 재정상태를 단순히 소득과 지출 등 한 측면만으로 측정하는 것 보다 두 가지 이상의 재무적 항목을 사용한 재무비율을 도입하는 것이 측정의 정밀성과 비교 가능성의 측면에서 재정상태의 유형을 평가하고 분석하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재무비율을 이용한 가계의 재정상태 분석은 대차대조표와 소득지출상태표를 이용하여 분석한다(Garman, Fogue, 1994).

Prather(1990)는 가계의 재정상태를 점검하고 계획하는데 있어서 두 가지 이상의 측정치를 기초로 상대적 비율을 측정한 재무비율은 순자산에 대한 다양한 평가에 용이하다고 보고 있다. 이와 같이 재무비율 분석은 가계로 하여금 재정 목표에 도달하도록 적절한 저축과 투자유형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여 준다. 뿐만 아니라 재무비율 분석은 특정 가계의 상태를 평가하고 상담하는 목적에도 적절하고, 가계의 재정유형을 분석하는 연구목적에도 유용하다(DeVaney, 1993).

그동안 다양한 측면에서 가계의 재정상태와 관련한 재무비율 분석이 이루어져 왔다. 생활주기에 걸쳐 가계의 재무적 상태를 재무비율로 분석한 연구(Prather, 1990)와 16개의 재무비율을 이용하여 순자산을 분석한 연구(Griffith, 1985), 재무비율로서 소비, 투자 및 신용카드 이용과 소비자의 재정복지에 대해 측정한 연구(Mason, Griffith, 1988) 등이 있다. 그리고 Lytton 등(1991)은 가계재정상태 분석을 3가지 영역 즉, 소득과 지출의 관계, 부채부담 및 재무목표 진행의 측면에서 재무비율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Garman, Fogue(1994)는 가계의 재정상태를 평가하는데 이용될 수 있는 재무비율로서 총부채 대 총자산, 연간 부채상환액 대 총소득, 연간 부채상환액 대 연간 가처분소득 등의 비율을 제시하였다.

Lytton, Garman, Poter(1991)은 다음 <표3-7>에 나타낸 9가지 재무비율을 제시하였으며, 각각에 대한 개념 정의와 사례를 이용하여 재무비율을 산출하고 해석하였으며 재무상담사와 고객 모두에게 가계복지상태의 측정 및

예측에 재무비율이 유용함을 제시하였다.

<표3-5> Lytton, Garman, Poter의 재무비율

재무비율	개념	준거기준
월평균순소비지출/ 월평균가처분소득	소득에 대한 소비비율로 현재의 재정적 지위를 측정. 월평균순소비지출:필수지출+임의지출(신용과부채상환 포함, 저축과 투자제외)	1.0 미만
유동자산/월평균순소비지출	가계의 유동성 측정. 자가고용,불규칙고용자일 경우 더 많이 필요함.	2~6개월분
월평균총주거지출/ 월평균가처분소득	총주거지출:월세, 주택담보금상환 관련세금, 사용료, 유지비, 수리비, 주택보험료.	0.30~0.40
월평균소비자 부채상환액/ 가처분소득	소비자 부채상환 비율의 지표로 가처분소득에 대한 소비자부채 상환의 부담을 나타냄. 11~15%는 유동성이 감소됨. 16~20%가 한계선임.	0.10이하
총연간부채상환액/ 총연간소득	소득에 대한 총 부채부담을 나타내는 지표. 가구주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함.	0.30~0.35
총주거자산/총주거관련부채	가계의 지불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광의의 재정적 유동성 측정 지표로 사용.	-
연간총저축/연간가처분소득	저축률을 나타내는 지표.	세전소득의 10%
투자자산/순자산	순자산에 대한 투자자산의 비율, 주택소유와 다른 재정적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지를 나타냄.	0.20이상

DeVaney(1993)는 가계 재정복지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Lytton, Garman, Poter (1991), Garman, Forgue (1991), Winger, Frasca (1993)가 제시한 재무비율 기준을 사용하여 다음 <표3-8>와 같은 재정상태를 판단하는 개념을 개발하였다. 특히 이들은 주거비 지출비율을 측정하고자 총소득에서 연간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제시하여 측정하고 있다.

<표3-6> DeVaney의 재무비율

재무비율	개념	준거 기준
총 자산/총 부채	전반적인 지불능력을 나타내는 지표. 지불능력비율이 1보다 작으면 지불능력이 없는 것으로 봄.	1.0 이상
투자 자산/순자산	투자자산은 금융자산, 기타자산, 사업자산으로 구성되며, 이때 주택은 제외된다. Lytton, Garman, Poter(1991)에 따르면 적어도 가계 자산의 25%는 유동성이 있어야 하여 은퇴기에 가까울수록 유동성이 증가하여야 함.	0.25 이상
유동 자산/가처분소득	유동성비율은 유동자산을 월별 지출과 비교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월별 지출액 대신 가처분소득을 사용하였다. Mason, Griffith(1984)와 Winger, Frasca(1993)는 적절한 기준으로 3~4를 제시하였는데 즉, 유동자산이 3-4개월분의 가처분소득과 같아야 함을 의미함.	0.25 이상
연간 소비자부채 지불액/가처분소득	가처분소득액 중 부채를 위해 지불하는 비율로서, 저축이나 그 이외의 용도에 사용될 수 없는 소득의 비율을 나타낸다. Garman, Forgue(1991)는 부채사용의 안전한 한도를 가처분소득의 10%로 보았으며, 최대로 확장시키는 경우 가처분 소득의 16-20%가 신용지출을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때 소비자부채에는 저당 부채가 포함됨.	0.15 이하
연간 주거비/총소득	주거비 지출율은 주택에 할당되는 소득의 비율을 말한다. 미국연방 주택 대부 저당조합(Federal Home Loan Mortgage Corporation)에 의하면, 주거비 지출은 월평균 총소득의 28%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Winger, Frasca, 1993). Lytton, Garman, Poter(1991)는 주거비 지출율이 30-40%의 범위로 관리되어 저야 한다고 제시함.	0.28 이하
총연간 부채지불액/가처분소득	Garman, Forgue(1991)는 이 지표의 값이 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Lytten et. al.(1991)은 이 비율이 가정 생활주기를 거치는 동안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남.	0.40 이하

### 3) 가계재무건전성 측정방법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가계 재무상태를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소득, 지출, 자산, 부채 등 단순지표를 측정하는 방법과 재무비율지표로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 즉, 가계의 소득, 저축, 투자, 자산, 부채 등의 절대액을 측정함으로써 재무상태를 파악하는 방법과 재무비율을 근거로 상대적 비율을 측정함으로

로서 객관적인 재무상태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최근에는 재무비율에 의해 재무상태를 파악하는 연구가 대부분으로 재무비율이 측정의 정밀성과 비교가능성을 용의하게 한다는 점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으나 그 종류와 준거기준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Griffith, 1985; Prather, 1990; Lytton, Garman, Porter, 1991; DeVaney, 1993, 1994; Garman 외, 1994; 양정선; 1996, 최윤지, 1998).

재무건전성은 가계가 경제적 위협에 직면했을 때 빚 없이 그 이전의 수준으로 재무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능력으로 가용순자산에서 총 위험액을 나눈 개념이다. 재무건전성은 가용순자산에서 총위험을 빼는 방식으로 측정한다. 이때 가용순자산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현금화곤란자산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또한 총위험은 시장위험과 거래상대방위험과 기초위험과 신용집중위험의 합이다.

- 자산: 유동자산 + 고정자산
- 부채: 금융기관대출금, 직장대출금, 보증금, 할부잔금, 사채 등의 총액
- 현금화곤란자산액: 자산, 토지, 건물 시가 50%, 중고차시세의 20%
- 시장위험액: 주식의 10%, 채권의 5%, 채권형수익증권의 10%, 주식형수익증권의 20%, 저축성보험의 30%, 보장성보험의 50%, 귀금속의 10%
- 거래상대방 위험액: 보증잔액의 50%, 근저당설정액 50%, 채무액50%, 전세보증금 10%
- 기초위험: 1년 경상지출액의 60%, 대신경제연구소에서 제안한 기초위험은 1년 경상지출의 50%를 선정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경제적 안정도를 측정한(김민정, 1995) 연구를 살펴볼 때, 우리나라 가계의 경제적 위기시 대처할 수 있는 기간이 평균 7~8개월 정도로 밝혀지고 있다.
- 신용집중위험: 동일인에게 가용순자산의 20%를 초과하여 제공했을 경우 가용순자산의 20%에 해당하는 값이다.

### 3. 개인과 가계의 재무관리행동

가계재무관리행동은 가계의 최종 재무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예를 들면 재무자원을 할당하는 관련 계획이나 실천행동을 총합한 것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 가계재무관리행동은 좁은 의미에서는 자산과 부채를 운용하는 방식이며(박근주, 이기춘, 2002), 넓은 의미에서는 현재 또는 미래의 개인과 가계가 기대하는 생활양식에 적합한 재무목표를 달성해 가는 전 생애에 걸친 행동으로 정의된다(이기춘, 박명희, 윤정혜, 손상희, 김경자, 성영애, 1998). 여러 선행연구자들(예: 김경자, 2003; 정미선, 계선자, 강혜경; 2008, 이기춘 외, 1998)들의 개념을 정리·종합하면 가계가계재무관리행동이란 현재 또는 미래의 소득 자산을 증대시키고 보전하여 가계가 기대한 생활양식에 적합한 재무목표를 달성해가는 전 생애에 걸친 과정으로, 이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재무목표를 설정하며 재무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동계획을 개발하고 이를 실행하며 점검·평가하는 행동이다.

한편, 가계의 가계재무관리행동의 영역 및 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조동필, 양세정, 배미경(2007)은 가계재무관리행동을 재정계획행동, 저축행동, 구매행동, 자녀용돈 교육행동으로 구분하였다. 홍향숙, 이종혜(1999)에 따르면 가계재무관리행동을 자산 및 지출기록, 신용관리, 위험관리, 소비습관검토 등 여러 하위 영역별로 유형화하여 그 행동성과를 측정하고 있는 것들이라 하였다. 가계재무관리행동에 대한 개념은 주로 재무관리 계획과 수행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재무관리관련 정보탐색이 가계재무관리행동의 한 요소로 많이 다루어지고 있다.

Gunnarsson, Wahlund(1997)는 스웨덴 가계의 재무관리전략 유형을 6가지로 구분한 바 있는데, 이는 잔여저축형(자산/부채 거의 없고 유동적 저축보유, 중장기적 저축계획이나 고위험 금융상품 거의 보유 없음), 강제저축형(다양한 형태의 부채 보유, 부채중 담보부채 많음), 보장저축형(은퇴 관련 금융

상품과 채권투자 함), 투기형(고위험 장기성 자산 투자, 보유 금융자산 규모가 크고 금융 관련 지식 많음), 신중투자형(여러 유형의 저축에 투자, 고위험자산회피, 채권선호), 다양형(특수하며 전문적 고위험자산에 투자)이다.

허경옥(2004)은 구매행동유형이 가계재무관리행동 및 투자행동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즉 소비행동의 실패는 가계경제 및 재무관리의 실패로 이어지게 된다고 밝혔다. 윤정혜 외 6인(2001)은 개인 또는 가계의 재무문제는 과도한 세금부담, 적자가계 운영, 재무관리의 실패 등으로 인한 문제 등으로 발생한다고 보았고, 특히, 재무관리의 실패는 기본적으로 화폐관리의 실패로 소득, 소비, 저축, 신용 간의 분산이나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실패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 같은 실패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윤정혜 외 6인(2001)의 재무교육 프로그램 내용을 살펴보면, 청소년기의 경우 돈에 관련된 가치교육, 사회공동체 일원으로서 이웃을 배려하는 소비, 저축과 관련한 교육, 소비의 기회비용에 대한 것 등을 강조하고 있어 개인의 소비행동이 저축에 영향을 미치는 물론 재무관리의 성과에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손상희(1998)는 소비수준이 가계복지에 중요한 지표라고 판단하여 농촌가계의 재무관리행동과 주관적 소비수준과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분석결과 예산행동은 주관적 소비수준에 정적 영향을 미치나 지출관리행동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계재무관리에서 소비의 중요성은 여윤경(2002), 권택호(2009)의 소득대체율과 소비대체율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은퇴설계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은퇴후의 적정한 소득과 소비를 계산하기 위해 이 두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은퇴설계에서 소득대체율은 보통 60세이상 가구의 평균소비액과 평균소득 금액의 비율로 정의하고, 최저생활비를 추정하기 위한 소비대체율은 은퇴전의 약 60%에서 80% 정도로 가정하고 있다. 심영(1993)은 가계부채가 소비패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분석함으로써 소비와 부채간의 관계를 규명한 바 있다.

박명호(2007)는 소득충격의 지속성이 예비적 저축과 한계소비성향에 미치

는 효과를 분석하여 소득과 소비의 그리고 저축간의 상호연관성에 대해 체계적인 분석을 한 바 있다. 그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미래 노동소득 불확실성의 도입은 예비적 저축동기를 유발하여 현 시점의 최적 소비를 감소시키고 노동소득의 충격이 지속될수록 예비적 저축동기가 강해지며, 한계소비성향의 크기가 커짐을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소비와 저축 간의 관계를 밝힌 연구, 즉 소비의 불확실성 가설을 검증한 이명훈, 최창규(2000)의 소비증가와 예비적 저축효과 연구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이성림(2005)은 과소비, 부채가계의 가계경제구조에 대한 분석결과 과소비가계의 비율은 전체의 약 13.34%로, 평균 월소득의 약 18%를 초과하는 과소비를 하고 있었고, 과소비의 약 89%는 자산에 의해, 11%는 부채에 의해 충당되고 있었고, 연간 순자산 감소분은 월소득의 약 2배 정도 임을 밝혔다. 또한, 과소비 가계의 소비는 주로 사치적인 소비, 규모가 큰 비경상지출에서 많이 소비되고 있었고 이들 가계의 경우 판매신용부채 및 월부 및 외상을 주로 사용하고 있어 연구자는 가계재무관리의 시급함을 지적하였다.

차은영(2007)은 가계내의 위험분산과 소비에 대한 연구에서 완전위험분산(full risk sharing) 가설을 소개하였는데 이는 보험시장이 완전할 때 가계의 소비와 저축은 위험분산을 통하여 외생적인 가계 고유의 충격으로부터 자유롭게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시장기구가 완벽하게 작동하여 최적자원배분이 보장되는 체제라면 가계소비는 거시적 위험에는 노출되나, 소득과 고용의 불확실성 같은 미시적 충격에는 영향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이 가설은 위험분산이 가능하다면, 가계가 직면하는 경제상황의 변동에 관계없이 계획된 소비경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차은영(2007)은 실증data를 사용하여 이 가설을 검증한 결과 이 같은 완전위험분산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소비와 저축이 상호 영향 받고 있음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차은영(2007)은 2001년에서 2005년 5년간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고용과 소득의 충격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소득, 소비, 투

자 등의 행동은 상호연관이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는 가계재무관리, 위험관리해동 등에 소비의 측면을 반드시 고려해야 함을 보여주는 연구라고 하겠다.

가계재무관리행동은 가계가 자산증식이라는 최종 재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무 자원을 할당하는 관련 계획이나 실천행동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 가계재무관리행동은 좁은 의미에서는 자산과 부채를 운용하는 방식이라고 하겠다(박근주, 이기춘, 2002).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재무설계는 현재 또는 미래의 개인과 가계가 기대하는 생활양식에 적합한 재무목표를 달성해 가는 전 생애에 걸친 과정으로 정의되기도 한다(이기춘, 박명희, 윤정혜, 손상희, 김정자, 성영애, 1998).

Gunnarsson, Wahlund(1997)는 스웨덴 가계의 재무전략유형을 6가지로 구분한 바 있는데, 이는 잔여저축형(자산/부채 거의 없고 유동적 저축보유, 중장기적 저축계좌나 고위험 금융상품 거의 보유 않음), 강제저축형(다양한 형태의 부채 보유, 부채중 담보부채 많음), 보장저축형(은퇴 관련 금융상품과 채권투자 함), 투기형(고위험 장기성 자산투자, 보유 금융자산 규모가 크고 금융 관련 지식 많음), 신중투자형(여러 유형의 저축에 투자, 고위험자산회피, 채권 선호), 다양형(특수하며 전문적 고위험자산에 투자)이다.

선행연구에서 주로 응용한 가계재무관리행동에 대한 이론적 접근은 체계이론(system theory)과 포트폴리오 접근이다. 체계이론은 재무목표수립 후 이에 대한 재무목표관리행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개인의 정보처리유형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포트폴리오 접근법은 자산군의 분산투자, 투자대상 선택(금융상품, 실물자산, 부채)에 대한 것으로 가계의 포트폴리오는 자산의 수준과 저축목적에 따라 영향받는 것이 보통이다.

한편, 홍향숙(1999)은 재무관리 행동을 가계의 재정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경제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보고 가계의 현재와 미래의 소득과 자산을 보전하고 증식시켜 가계의 안정과 성장이라는 목표를 성

취하는 것과 관련된 소득관리, 세금관리, 지출관리, 부채관리, 투자관리, 위험관리행동으로 정의한다. 홍향숙(1997)은 가계의 재무관리를 주택마련과 자녀교육비와 같은 구체적인 재무목표를 선정하여 이에 대한 계획과 수행으로 측정하였고 이선형 등(1997)은 목표설정, 소비표준설정, 예산책정, 소득과 비용의 평가에 대한 계획과 소비자 구매, 가계부 기록, 저축 및 투자, 소비자 권리행사, 소비습관 검토 및 평가, 유산분배계획과 유산 분배의 수행으로 재무관리행동을 측정하였다.

#### 1) 위험과 가계재무관리행동

자산관리, 가계재무관리를 위해 무엇보다도 위험에 대한 인지, 선호, 감수도 등을 먼저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소비자의 재무관리행동 등 각종 투자 관련 의사결정이나 재무비율 구조를 이해하고 연구함에 있어 투자위험관리의 개념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재무위험인지와 보험료에 대한 김경자(2003)의 연구에 따르면 위험은 어떤 상황이나 사건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가계의 목표나 목적을 위해 최소비용으로 위험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 재무위험관리라고 정의내리고, 위험의 정도를 인식하는 정도를 재무위험인지라고 밝혔다. 김성민, 길재욱, 김현수(1999)는 위험관리과정이 위험존재, 위험에 대한 인지, 위험회피요구 존재, 위험회피 및 감소를 위한 실제 행동이라고 주장하였고, Garman, Fargue(1994)은 위험관리방법을 위험회피와 위험보유, 손실통제, 위험이전, 위험감소 형태로 구분하였다.

개인 또는 가계의 재무관리 또는 투자행동에서 중요한 것은 재무 및 투자에서의 위험인지이다. 가계재무에서 위험은 고용불안정성(예: 지난 2년간 정리해고 횟수, 현재 직업의 지속 가능성), 또는 소득불안정성(예: 소득 유입시기의 일정성)을 중요시하게 된다. 김경자(2003)는 재무위험의 종류를 첫째, 가계소득의 일시적, 영구적 상실, 즉 가계소득원 사망이나, 질병, 장애발생, 실직으로 발생하는 위험, 둘째, 재산가치 상실 또는 하락 관련 위험, 예를

들면, 은퇴 후 장기연금, 생활노인가계의 경우 물가 상승에 따른 화폐감소, 셋째, 배상 또는 보상책임의 위험, 예를 들면 자동차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등이다. 그런데, 위험의 인식 정도는 소비자 개인에 따라 각기 다르다.

#### (1) 위험관리

가계가 취할수 있는 위험대응방법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위험회피(risk avoidance): 손실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회피, 위험발생 가능 행동을 아예 하지 않거나 위험 초래 물건을 아예 갖지 않음(예: 자동차 사고 방지를 위해 자동차 무소유)
- 위험이전(risk transfer): 잠재적 손실 발생빈도나 결과의 강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경제적 부담과 책임을 제 3 계약자나 보험회사에 넘기는 것
- 위험보유(risk retention): 위험으로 인한 장래의 손실을 스스로 부담, 위험 발생가능을 알면서도 그 가능성 수용(예: 위험 크기가 작거나 대비책을 갖고 있는 경우)
- 위험통제(risk control): 발생위험 빈도나 가혹함의 정도를 조절하여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시키려는 것(예: 화재경보기 설치, 도난방지용 자물쇠 설치)

이 외에도 개인이 투자를 할 때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심리적 위험도 있다.

#### (2) 위험관리와 투자자 유형

투자자유형을 위험 감수정도에 따라 정순희(2003)은 투자자 유형을 개인주의형(individualist), 모험형(adventure type), 신중형(guardian type), 소심형(celebrity)으로 구분하였다. 주식거래에서 거래유형(김영숙, 김지현, 2003)은 매매방법, 정보수집원천에 따라 완전의존형, 부분의존형, 완전독립형으로

구분하였고 재무목표에 따라 김영숙, 김지현(2003)은 노후대비, 주택마련, 사업자금마련, 자녀양육 및 교육, 자산증식 및 재테크, 채무상환 및 기타로 구분하였다. 한편, 위험의 인식 정도는 개인마다 각기 다르다. 위험 회피/수용 성향이 바로 그것이다. 개인의 위험수용성향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고 위험추구와 위험회피의 연속체상에 위치하는 상대적인 개념이긴 하나(Greene, 1971), 감당할 수 손실의 크기에 따라 세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허경옥 외, 2006). 첫째, 위험회피형으로써 이들은 위험을 좋아하지 않는 투자자로서,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가능한 한 적은 위험을 부담하려는 유형이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위험이 커질수록 투자안의 가치를 작게 평가하고, 위험에 대한 대가, 즉 위험 프리미엄이 적절히 주어지지 않으면 그 위험을 감수하려 하지 않는다. 위험회피형은 위험이 한 단계 증가할 때 이보다 더 큰 기대수익의 증가가 있어야 동일한 만족을 느끼는 것으로, 수익의 증가에 따라 한계효용이 체감하는데, 위험회피형은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기대수익을 희생시킨다. 즉 기대수익이 작을지라도 위험이 작은 것에 따른 심리적 효용, 만족이 크기 때문에 낮은 기대수익으로 인한 효용의 감소를 상쇄하게 되어 기대수익이 낮은 투자안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위험회피형은 보통 분산투자를 많이 하여 투자위험을 감소시킨다. 위험회피형은 이익보다 손실을 더 싫어하는데 보통 1만큼의 이익보다 1만큼의 손실에 두 배 정도 더 싫어한다고 알려지고 있다. 만약, 어떤 투자자가 위험회피적인 투자전략을 선택한다면, 시장에서 직면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나름대로의 기대수익을 얻고자 노력하게 된다. 반면 투자자가 우월한 예측능력을 가지고 시장 평균보다 높은 투자성과를 얻기 위해 위험수용적인 투자전략을 선택한다면 소수의 투자대상을 선별하여 위험추구성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으로써 더 큰 수익률과 더 큰 위험을 기대할 것이다. 위험추구적인 관리란 자본시장이 비효율적이고, 가격이 균형상태에 있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투자자는 차익거래에 관심을 갖고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

게 거래되거나 비싸게 거래되는 자산을 선택함으로써 투자수익을 얻고자 한다(허경옥 외, 2006). 하지만 위험회피형 투자자들도 위험프리미엄이 충분히 주어진다면 기대효용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투자를 행할 수 있다.

둘째, 위험추구형 투자자로서 높은 수익을 위해 큰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는 유형으로서 높은 위험을 수용하고 높은 수익을 기대하는 만큼 큰 손실을 볼 가능성 역시 높다. 위험추구형은 기대수익이 한 단계 증가하였을 때 그 이상의 위험증가가 있어도 만족하는 개인이다(김치환, 1987).

셋째, 위험중립형 투자자로서 위험의 크기에 관계없이 기대수익 혹은 기대하는 부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유형으로 이들의 한계효용은 위험수준과 상관없이 일정하며, 수익률에 의해서만 총효용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위험중립형은 위험이 한 단계 증가할 때 똑같은 수준의 기대수익이 증가만 있으면 동일한 만족을 느끼는 것이다. 즉 위험의 크기에 관계없이 기대수익에 의해서만 의사결정을 하는 가계로 기대수익이 가장 높은 대안을 선택한다.

미국의 Bailard, Biehl & Kaiser 회사는 투자에 대한 확신정도와 행동양식에 따라서 투자자를 개성형, 관리자형, 유행형, 모험가형, 평균형 5가지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개성형은 투자에 대한 나름대로의 철학과 확신을 가지고 있으나 서두르지 않는 집단으로, 고유한 가치판단의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중심리에 휩쓸리지 않으며, 다른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면 스스로 해결하는 경향이 있다. 관리자형은 재산의 보전에 가장 큰 주의를 기울이며, 위험을 최대한 회피하려 한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금이나 적금, 단기채권 투자가 바람직하며 주식투자도 주식편입 비중이 낮은 안정형 펀드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행형은 대중적인 인기를 좇아 투자하는 형태로 개인적인 투자원칙이나 판단이 없는 경우이다. 투자에 적극적이면서도 두려움이 많아 중개인에게 좋은 고객이지만 투자 성공가능성이 낮고 무엇보다 자기자신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하고 핵심적인 투자자산은 체계적으로 운용되도

록 해야 한다. 모험가형은 투자에 대한 확신과 기업가적인 적극성을 나타낸다. 투자조언을 하기가 어려운 유형이며, 분산투자를 좋아하지 않는다. 평균형은 어느 한 집단에 치우치지 않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투자자이다.

### (3) 위험관리와 재무관리행동 관련 선행연구고찰

#### ① 위험관리와 재무관리행동 선행연구

위험관리 및 각종 투자 관련 위험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위험회피/수용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한 연구(정홍주, 1996, Bajtelsmit & Bemas, 1996; Cordell, 1996; Grable & Lytton, 1998; Sung & Hanna, 1996), 금융투자위험에 대한 태도와 위험대응행동 연구(한민희, 신상근, 안성아, 2000), 주식투자 위험관리에 대한 연구(임병진, 2002), 금융부채에 대한 체감도 분석(오만숙, 현승미, 2009)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김경자(2003)는 가계의 위험인지, 위험대비수준에 따른 주부의 재무위험인지수준, 보험료지출액의 차이에 대해 조사하였다.

김경자(2003)는 위험관리방법으로 i) 위험회피방법으로 위험발생가능 행동을 아예 하지 않거나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이나 자산을 아예 갖지 않는 것, 예를 들면, 자동차사고방지를 위해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는 것이고, 위험보유는 위험발생가능을 알면서도 그 가능성을 수용하는 것이다. 보통 위험보유는 위험의 크기가 작거나 대비책을 갖고 있는 경우라고 하겠다. ii) 손실통제 방법으로서 손실발생 가능성 또는 손실의 크기를 감소시킬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화재경보기설치, 도난방지용 자물쇠 설치 등이 그것이라고 하겠다. iii) 위험이전은 위험을 타인에게 완전 이전시키는 것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보험이다. iv) 위험감소 방법으로 이는 위험을 가계가 통제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낮추는 방법이다. 정순희(2003)는 위험대응방법으로 김경자(2003)의 네 가지 위험관리방법이외에 개

인이 투자를 할 때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심리적 위험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경제적 불안과 재무관리행동 간의 관계를 다룬 대부분 연구(정서린 외, 2007; 정운영 외, 2002; 홍향숙, 1999)는 경제적 불안이 재무관리행동에 부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적 불안의 하위영역에 따라 부분적으로 정적 영향을 보고한 결과(정서린 외, 2007)들도 있다. 홍향숙(1999)은 고용과 소득이 모두 불안정한 가계들은 가계소득과 자산 수준과 같은 경제적인 상태가 평균보다 좋지 않고, 재무관리행동 즉 소득관리행동, 세금관리행동, 지출관리행동, 투자관리행동, 부채관리행동, 위험관리행동 수준 또한 다른 유형의 가계들에 비해 유의하게 낮으며 재정만족도 또한 낮았다고 하였다. 정서린 등(2007)은 가계의 경제적 불안 정도에 따라 주부의 재무관리행동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데, 소득·자산불안과 재정안정성 불안이 높은 주부들은 낮은 주부들보다 투자관리행동을 잘하지 못하며, 선택적 지출불안이 높은 주부들은 낮은 주부들보다 소득·지출관리행동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필수지출불안과 부채불안이 높은 주부들은 낮은 주부들보다 투자관리행동과 위험관리행동을 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위험의 개념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가계의 위험자산비중으로 가계의 위험감수도를 도출한 연구(주소현, 2008), 투자성향으로 위험태도를 측정 한 후 위험태도에 따른 위험자산비중을 분석한 연구(정운영, 김경자, 2004; 정은주, 1992), 가계의 위험감수도와 저축의사결정에 관한 연구(최현자, 2007), 위험감수도의 결정요인을 규명한 연구(성지미 외 8인, 2007), 위험회피성향을 고려한 가계의 자산선택에 관한 연구(이진형, 2008), 위험감수 성향변화에 따른 소비자포트폴리오를 분석한 연구(김민정외 2인, 2007), 투자성향에 따른 자산포트폴리오 변화에 관한 연구(김민정, 최현자, 2008)가 있다.

## ② 위험관리와 재무관리행동 영향요인

### i) 가계자산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자산의 크기가 위험금융자산 및 안전 금융자산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대체로 가계의 자산이 많을수록 위험자산의 보유비율이 높은 포트폴리오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Warner, Cramer, 1995; Zhong, Xiao, 1995; 박주영, 최현자 2002; 정은주, 1992; 최지은외 2인, 2005).

### ii) 가계소득

가계소득이 위험관리 및 가계재무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 왔다. 권지현(2007)은 가계가 직면하고 있는 소득위험을 추정하여 안전금융자산보유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소득위험이 높은 가계일수록 안전금융자산을 더 많이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계구성원 수가 많을수록, 부채가 많을수록 안전금융자산 보유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유동성에 대한 예비적 수요이론과 부응하고 있는데 소득의 불확실성이 증가할 경우 가계가 안전 및 유동자산의 보유를 확대한다는 논리를 뒷받침하고 있다.

문숙재, 양정선(1996)은 가계의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투자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한 결과, 도시 거주자일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봉급생활자일수록, 자가 소유자일수록 위험자산 투자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자산은 자산소득, 이진 및 기타소득이 증가할수록 투자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iii) 위험에 대한 태도 및 기타 위험 관련 변수

위험에 대한 개인의 태도 또는 위험 관련 변수의 영향력 검증에 대한 연

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다. 정은주(1992)는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른 가계의 투자행동에 관해 연구하였는데, 도시가계는 위험회피형이 많고, 위험에 대한 태도는 연령이 적을수록, 남성이 더 위험추구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은 위험회피적이며, 중간소득층은 위험추구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투자선호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위험회피형은 안전자산을, 위험추구형은 위험자산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추구적일수록, 변화지향적인 투자관리를 할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위험자산보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현자(2007)는 가계의 위험감수도에 따른 저축의사결정을 분석한 결과 위험회피자들이 위험감수자나 위험중립자에 비해 보장성보험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으며,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소현(2008)은 순자산을 5계층으로 구분하여 위험자산, 실물자산, 부채비중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검증한 결과 위험자산의 비중은 순자산이 커질수록 그 비중도 함께 커져 순자산과 위험회피도 간의 음의 관계가 드러났다. 실물자산은 순자산이 높을수록 투자부동산의 비중이 크게 나타났고, 부채비중은 순자산과 음의 관계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통해서 포트폴리오 구성의 차이가 부(wealth)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민정의 2인(2007)은 직업안정성과 위험감수성향변화에 따른 소비자 포트폴리오를 비교·분석하였다. 직업안정성이 높은 집단에서 위험을 감수하려는 성향이 높았으며 소비자 포트폴리오 분산 개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채권·신탁 보유율은 직업안정성과 위험감수성향이 모두 높은 집단에서 높았다. 직업안정성이 낮은 집단이 총자산 대비 주식·채권·신탁자산 비중이 낮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소득의 불안정성이 높아질 때 위험자산에 대한 수요가 낮아진다는 자산선택이론이 부합되고 있다.

김민정, 최현자(2008)는 은퇴자의 투자성향에 따른 자산포트폴리오 변화에

대해 살펴본 결과, 안정추구형 은퇴자의 금융자산과 자가의 부동산자산액이 모두 20%정도 가장 크게 증가했으며, 위험추구형 은퇴자의 자산액 변화율은 안정추구형 은퇴자들에 비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안정추구형과 위험추구형의 은퇴자가 자산증가의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자산증가가 투자성향에 의해 영향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성지미 외 8인(2007)은 위험자산별 위험감수도 결정요인을 살펴본 결과 여성이 상대적으로 위험자산을 기피하는 성향이 유의하게 강한 것으로 나타났고, 혼인상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 연령의 경우 일정 시점(교육 13.2년~14.7년, 연령, 34.2~35.9)에서 위험자산선호가 가장 높고 그 이하 또는 그 이상의 수준에서는 위험 감수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U자형 거꾸로) 부동산자산보유는 위험감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금융자산보유는 위험도가 낮은 위험자산의 선택에는 유의하게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은 서울지역과 비교할 때, 충북, 강원 지역이 위험감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인천, 광주, 전북남 지역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진형(2008)은 위험회피성향을 추정하였는데 위험회피성향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위험자산의 비율은 뚜렷한 감소추세를 보이지 않거나 거의 35%의 수준에서 일정한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개인의 위험선호와 그 결과 사이에는 반드시 일치하는 경향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영향력을 조사한 결과 연령이 증가할수록, 여성인 경우 위험회피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졸이 위험회피성향이 낮은 반면 석사이상의 학력 소유자는 위험회피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를 보유한 가계, 근로소득이 증가할수록, 결혼한자가 위험회피성향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가 자영업자보다는 위험자산보유 비율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부채와 위험자산보유 비율과의 관계는 양의 값으로 나타나 주식채권에 투자하기 위해서 차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

었다.

위험과 관련한 가계재무 분야의 외국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Weagley, Gannon(1991)은 Missouri 지역 가계를 대상으로 자산수준에 따른 위험자산 보유비중을 연구한 결과 자산수준이 증가할수록 위험자산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위험피라미드 모델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가구주 연령이 증가할 수록 위험자산비중이 증가하였으며, 퇴직에 가까울수록 위험자산비중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Bertaut, McCluer(2000)는 순자산이 많은 계층일수록 위험자산의 비중이 높음을 밝혔다. Campbell(2006)은 부가 많을수록 위험이 큰 개인사업과 주식 및 유가증권의 비중이 크고 부가 작은 가계일수록 안전자산에만 투자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었으며 이는 가계가 투자활동을 하는데 있어 범하는 하나의 실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Warner, Cramer(1995)는 자산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위험자산보유액, 위험자산보유가능성이 높음을 밝혔고, Zhong, Xiao(1995)는 금융자산이 많은 소비자일수록 주식보유액이 크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Xiao(1995)는 소비자포트폴리오 구성요소 간의 관계를 규명한 결과 위험자산(주식, 채권)을 보유한 소비자는 과거 다양한 안전자산을 보유한 경향이 있었으며 장기재무욕구를 충족시키는 자산형태를(IRA) 보유하는 가계는 단기재무요구를 충족시키는 자산과 위험자산을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은행의 단기금융상품(은행저축성예금, 은행요구불예금)과 증권회사 등에서 발행하는 단기금융상품(MMA) 간에 대체성이 존재함을 밝혔다. 소비자가 자산의 위험수준과 장단기 재무목표를 고려하여 소비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들 간에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Bertaut와 Starr-McCluer (2000)는 상위 1%의 순자산계층과 나머지 자산계층의 포트폴리오의 특징을 비교한 결과 순자산이 높은 가계일수록 위험자산에 치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고 위험자산의 형태가 개인 소유 사업자산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49세까지는 연령이 증가하

면서 위험자산의 비중이 함께 증가하지만 그보다 연령이 높아지면 그 패턴이 불분명함을 밝혔다. 그는 이렇게 순자산계층에 따라서 각 자산의 비중에 차이가 존재하는 이유를 시장의 불완전성, 위험에 대한 태도 차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황덕순(1995)은 가계의 경제적 안정을 위협하는 요소인 4개의 구성체(물가불안, 소득불안, 고용불안, 재정불안)에 상대적 박탈 불안을 더한 5개의 경제적 하위범주에서 불안이 발생한다고 보고 이들 불안에 대하여 스스로 위태롭다고 인지하는 주관적 불안과 객관적으로 불안한 상태라고 판단되는 객관적 불안으로 나누어 불안구조를 설명하였다. 연구 결과, 가계의 경제적 상태에 대한 주관적 불안 정도가 객관적 불안 정도보다 상당히 높으며, 물가, 소득, 재정영역에서의 불안이 크고 고용과 상대적 박탈 영역에서는 불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적 불안은 주거소유 형태, 가장의 직업지위, 소득의 크기, 자산의 크기에 영향을 받는데 주관적 불안은 소득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객관적 불안은 자산의 영향을 민감하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혜경(1999)은 Voydanoff의 경제적 불안 척도를 사용하여 가계의 경제적 불안과 소비행동을 측정하였는데 주부들은 고용상태보다는 소득 상태에 대해 불안을 더 많이 느끼며 객관적인 경제적 상태보다 주관적으로 더 높은 불안을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향숙(1999)은 가계의 불안정성을 고용불안정성(가장의 실직경험, 현재 직업의 지속가능성)과 소득불안정성(소득의 유입시기, 매달 소득액)으로 측정하여 가계의 경제적 불안정성 유형에 따른 재무관리행동과 재정만족도를 보았다. 그 결과 소득불안정성 수준보다 고용불안정성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한국FP협회(2002)에 따르면 개인은 일반적으로 위험에 대한 인지를 첫째, 투자에서 손실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둘째, 자신에게 생소한 금융 등 재무상품을 위험하다고 인식하며, 셋째, 기존에 손실을 본 상품에 대해서 위

험하다고 인식하며 넷째, 대다수의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에 반대로 행동하는 것을 꺼려한다.

개인의 위험감수성향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인구학적 특성, 가계특성, 가계의 재무관련 특성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위험감수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선행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그 결과는 일치하지 않고 있다. 연령이 위험감수성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연령이 많으면 위험수용성향이 더 강하다는 연구결과(Wang, Hanna, 1997)와 연령이 낮을수록 재무위험수용성향이 높다는 연구가 있으며(정은주·문숙재, 1992; 정은주, 1992; 이진형, 2008; MacCrimmon, Wherung, 1990; Morin, Suarez, 1983), 또한 연령과 재무위험수용성향은 역 U자형 관계를 갖는다고 보고한 연구(Grable, Joo, Adityavarman, 2003)도 있었다.

#### iv) 성별

성별의 영향력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여성보다는 남성의 재무위험수용성향이 더 높다는 선행연구결과가 많다(예: 정은주, 1992; 성지미·안주엽, 2006; 이진형, 2008; Cohen, Zinberg, Zeikel, 1982; Bajtelsmit, Bernasek, 1996). 여성이 남성보다 위험수용성향에서 보수적이다 보니 투자수익률 측면에서 남성에 비해 낮은 경향이 있다는 연구가 많았다. 한편, 소득이나 자산이 많으면 감당할 수 있는 손실의 규모가 그만큼 커질 수 있으므로 재무위험수용성향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예: Cohen et al., 1982; Cordell, 2001; Cohn, Lewellen, Lease, Schlarbaum, 1975).

외국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위험을 지각하고 감수하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가정 하에 소비자행동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연구조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여성은 부동산 투자를 선호하고 남성이 주식투자를 선호하는 투자대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Graham과 Stendardi(2002)에 연구에서는 남녀 간의 투자 의사결정 스타일

에 있어서 이러한 측면인 반영된다고 하였다. 여성투자자는 세부적인 사항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하며 관련된 질문을 더 많이 하는 성향을 보이는데 반해, 남성은 의사결정에 있어서 많은 정보를 생략하고 주로 중요한 두 개의 단서에 의존해서 결정하는 의사결정 스타일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여성은 미묘한 단서들도 더 세심하게 고려하고, 세부적인 정보들을 모두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신중함 때문에 오히려 여성들을 의사결정과정에서 남성에게 비해 인지적 부조화를 느끼기 쉬우므로 투자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여성이 남성보다 위험회피적이라는 통념이 입증되었었지만 조상대상이 관리자급이거나 전문직 여성일 경우 남성과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결과되고 있다. 다른 투자대상을 고려하지 않고, 주식투자를 대상으로 성별의 차이를 밝힌 연구들을 보면 남성의 자기확신이 높을 때 여성은 수익률에 대한 기대가 높을 때 위험자산에 투자하려는 성향을 보이고 있으며(한미영, 김재휘, 2007) 기존 연구들과는 다르게 여성의 과잉확신 정도가 남성보다 크게 나타나기도 한다(변영훈, 2005)는 연구결과가 있다.

#### v) 연령

Grable과 Lytton(1998), Wang과 Hanna(1997)의 연구에서는 재무적 위험감수성향이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한다고 하였다. 미혼인 경우가 기혼인 경우에 비해 위험감수성향이 높게 나타났다(Grable, Joo, 2004; Sung, Hanna, 1996). 소득에 관해서는 Grable과 Joo(2004) 및 Grable과 Lytton(1998)의 연구에서 소득이 높을수록 투자위험 감수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자산수준에 대해서는 순자산 및 유동자산의 규모도 위험감수성향을 결정짓는 요소로서 순자산 및 유동자산의 규모가 클수록 위험을 감수하려는 성향이 높게 나타났다(Grable, Joo, 2004; Sung, Hanna, 1996).

성지미, 안주엽(2006)는 위험자산별 위험감수도 결정요인을 살펴본 결과

교육과 연령의 경우 일정시점(교육 13.2년~14.7년, 연령, 34.2~35.9)에서 위험자산선호가 가장 높고 그 이하 또는 그 이상의 수준에서는 위험 감수가 낮아진다고 주장하였다(U자형 거꾸로). 그들은 또한 결혼여부, 부동산자산보유는 위험감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밝혔다. 거주지역의 효과로써 서울지역과 비교할 때, 충북, 강원 지역이 위험감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인천, 광주, 전북남 지역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진형(2008)은 대졸이 위험회피성향이 낮은 반면 석사이상의 학력 소유자는 위험회피성향이 높음을 밝혔다. 또한 그의 연구에서는 자가 보유 가계, 근로소득이 증가할수록, 결혼한자가 위험회피성향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가 자영업자보다는 위험자산보유 비율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부채와 위험자산보유 비율과의 관계는 양의 값으로 나타나 주식채권에 투자하기 위해서 차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정은주(1992)는 위험에 대한 태도와 가계의 투자행동에 관해 연구한 결과 도시가계는 위험회피형이 많고,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은 위험회피적이며, 중간소득층은 위험추구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Bertaut, McCluer(2000)은 연령이 49세까지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위험자산의 비중이 함께 증가하지만 그보다 연령이 높아지면 그 패턴이 불분명함을 밝혔다. 그는 또한 순자산 계층에 따라 자산보유유형에 차이가 존재하는 이유는 시장의 불완전성, 위험에 대한 태도 차이라고 주장하였다. Friend, Blume(1975)은 투자자들의 위험부담행위에 대한 연구에서 소득이 많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위험추구적 투자행동을 한다고 밝혔다.

## 2) 가계자산 포트폴리오

### (1) 가계자산 포트폴리오의 개념 및 기초 이해

재무관리 또는 금융자산투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산배분, 즉 금융자

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으로 투자자금 전체를 몇 가지 자산유형별로 나누어 배분하는 것이다. 즉,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는 여러 종류의 금융자산들의 집합을 의미한다. 가계의 금융자산 포트폴리오의 범위는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계,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 등이 있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이유는 분산투자의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분산투자 효과란 어느 한 종목에만 투자하는 경우의 위험보다 여러 종목을 주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투자할 때의 위험이 감소되는 효과를 말한다. 즉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상황의 변화에 따른 위험(수익률의 변동)을 어느 정도 분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다. 투자의 기본원리인 수익과 위험의 상반관계에 따라 자산의 유형을 분류하면 위험자산(risk asset)과 안전자산(safe asset)으로 나눌 수 있다. 위험자산은 투자에 따르는 위험이 커서 미래에 얻게 될 수익의 크기가 불확실한 자산으로서 주식, 고위험 회사채, 전환사채, 선물, 옵션, 부동산, 미술품, 기타 귀금속 등이 포함된다. 안전자산은 무위험자산(risk free asset)이라고도 하며, 미래수익의 크기가 확실한 자산으로서 원리금이 보장되는 국공채, 우량기업 회사채, 예금, CD와 같은 화폐자산 등이 포함된다. 위험자산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위험포트폴리오라고 하고, 안전자산으로 구성된 자산집합을 안전자산 포트폴리오라고 하며,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는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인지도 또는 위험감수 성향에 따라 달라진다. 위험회피적인 투자전략을 선택한다면, 시장에서 직면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나름대로의 기대수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반면 투자자가 우월한 예측능력을 가지고 시장 평균보다 높은 투자성과를 얻기 위해 적극적인 투자전략을 선택한다면 소수의 투자대상을 선별하여 위험포트폴리오를 구성함으로써 더 큰 수익률과 더 큰 위험을 기대할 것이다. 위험추구적인 관리란 자본시장이 비효율적이고, 가격이 균형상태에 있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투자자는 차익거래에 관심을 갖고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게 거래되거나 비싸게 거래되는 자산을 선택함

으로서 투자수익을 얻고자 한다(허경옥 외 4인, 2006).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란 소비자가 총 자산을 여러 종류의 금융자산에 분산하여 보유하는 것으로 자산 종류의 조합을 의미한다(이필상, 1996), 가계의 포트폴리오는 자산의 수준과 저축목적에 따라 영향 받는다. 최근 선행연구(Xiao&Olson, 1993, Weagley, Gannon, 1991)들은 소비자가 보유하는 다른 형태의 자산들은 결코 대체가능하지 않고, 소비자 욕구나 투자목표로서 각각의 자산들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한다. 또한 소비자투자 행동 연구는 주로 포트폴리오 관련 연구가 주축이 된다. 그리고 재무목표와 소비자 포트폴리오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Ramaswami 외, 1992)에서는 2이상의 재무목표에 따라 소득, 연금, 상속, 비상금, 적세 등의 투자 대안으로 분리된다. 가계포트폴리오의 자산구성은 유동성중심 포트폴리오, 자산증식중심 포트폴리오, 위험대비중심 포트폴리오로 구성하였다(이은실, 최현자, 1998).

## (2) 가계자산포트폴리오의 구성 영향요인

가계의 자산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는 소비자 또는 투자자의 위협에 대한 인지도나 위험감수성향에 의해 영향 받으므로 이 변수가 중요하게 취급되어 왔다. 정은주(1992)는 위협에 대한 태도에 따라 투자선호가 차이가 있음을 밝혔는데 위험회피형은 안전자산을, 위험추구형은 위험자산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추구적일수록, 변화지향적인 투자관리를 할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위험자산보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지현(2006)은 가계가 직면하고 있는 소득위험을 추정하여 안전금융자산 보유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소득위험이 높은 가계일수록 안전금융자산을 더 많이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소득의 불확실성이 증가할 경우 가계가 안전 및 유동자산의 보유를 확대한다는 유동성에 대한 예비적 수요이론의 논리를 뒷받침하고 있다.

김민정, 손지연, 최현자(2007)는 직업안정성과 위험감수성향 그리고 가계

포트폴리오를 비교·분석한 결과 직업안정성이 높은 집단에서 위험을 감수하려는 성향이 높았으며 소비자 포트폴리오 분산 개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채권·신탁 보유율은 직업안정성과 위험감수성향이 모두 높은 집단에서 높았다. 직업안정성이 낮은 집단이 총자산 대비 주식·채권·신탁 자산 비중이 낮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소득의 불안정성이 높아질 때 위험 자산에 대한 수요가 낮아진다는 자산선택이론이 부합되고 있다.

김민정, 최현자(2008)는 은퇴자의 투자성향에 따른 자산포트폴리오 변화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안정추구형 은퇴자의 금융자산과 자가외 부동산자산액이 모두 20%정도 가장 크게 증가했으며, 위험추구형 은퇴자의 자산액 변화율은 안정추구형 은퇴자들에 비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안정추구형과 위험추구형의 은퇴자가 자산증가의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자산증가가 투자성향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진형(2008)은 위험회피성향을 추정하였는데 위험회피성향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위험자산의 비율은 뚜렷한 감소추세를 보이지 않거나 거의 35%의 수준에서 일정한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개인의 위험선호와 그 결과 사이에는 반드시 일치하는 경향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위험피라미드 모델은 위험/수익성 측면에서 가계포트폴리오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설명해 준다(Weagley, Gannon 1991). 위험피라미드 모델에서의 기본전제는 안전자산을 충분히 축적하여 다양화한 다음에 다음 단계로 나아간다는 것이다. 즉 축적된 안전한 가계자산의 양이 많을수록 가계의 상대적 위험회피도는 낮아지게 되며 따라서 위험자산의 양이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위험피라미드 모델에서는 단계가 높아질수록 위험과 수익이 증가한다. 보통 위험수위에 따라 단계별로 자산을 구성하게 되는데 1단계로서 안전성을 추구하는 단계, 2단계로서 안전성과 수익성을 추구하는 단계, 3단계로서 성장성을 추구하는 단계, 4단계로서 투기성을 추구하는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한민희, 신상근, 안성아(2000)는 위험이론을 도입하여 조사한 결과 소비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가 수익상황에 따라 일관되지 않고, 수익상황에서는 위험회피성향이 강한 반면, 손실상황에서는 위험추구성향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위험분산행동이 달라지는데, 위험추구적 성향이 강할수록 위험자산 투자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과 관련한 가계재무 분야의 외국 연구들을 살펴보자. 먼저, Gunnarsson, Wahlund(1997)은 스웨덴 가계의 재무전략유형을 위험추구와 관련하여 6가지로 구분한 바 있는데, 이는 잔여저축형(자산/부채 거의 없고 유동적 저축보유, 중장기적 저축계좌나 고위험 금융상품 거의 보유 않음), 강제저축형(다양한 형태의 부채 보유, 부채중 담보부채 많음), 보장저축형(은퇴 관련 금융상품과 채권투자 함), 투기형(고위험 장기성 자산 투자, 보유 금융자산 규모가 크고 금융 관련 지식 많음), 신중투자형(여러 유형의 저축에 투자, 고위험자산회피, 채권선호), 다양형(특수하며 전문적 고위험자산에 투자)이다.

Chon, Lewell, Leuse, Schlumbauma(1975)는 소득 및 부가 증가할 때 위험자산의 비중이 커진다는 것을 밝혔는데 이는 소득이 높고 자산이 많을수록 투자자금에 여유가 있고 만약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가계의 재정상태에 미치는 영향이 적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Xiao(1995)는 소비자가 자산의 위험수준과 장단기 재무목표를 고려하여 소비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인자가 소비자포트폴리오 구성에 중요한 요인이며, 각 자산들 간에도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Mitra(1995)는 순자산과 위험회피도 간에 음의 상관관계를 발견하였고, 가구주가 35세 이하인 가계에서는 순자산과 위험회피도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은 반면, 35세 이상에서는 그 관계가 매우 유의하게 나타나 생애주기에 따라 위험회피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3) 가계재무관리전략

#### (1) 가계재무관리전략의 이론과 기초 이해

가계재무전략이란 가계가 자산증식이라는 최종 재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무 자원을 할당하는 관련 계획으로 좁게는 자산과 부채를 운용하는 방식이다. 가계재무전략접근법은 크게 두가지로 체계이론의 경우 재무목표수립, 재무목표관리행동 → 여기에 개인의 정보처리유형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한편, 포트폴리오 접근법이 있는데 자산군의 분산투자, 투자대상선택(금융상품, 실물자산, 부채) 부분이다. Wahlund, Gunnarsson(1994, 1996, 1997)은 스웨덴의 가계재무전략유형으로 6가지를 제시하였다.

- 잔여 저축형 가계: 자산과 부채가 거의 없고 유동적 저축보유, 중장기적 저축계획이나 고위험 금융상품은 거의 보유하지 않음
- 강제저축형 가계: 다양한 형태의 부채를 많이 보유, 부채 중에서도 담보부채가 많음
- 보장저축형 가계: 은퇴 관련 금융상품과 채권에 투자를 많이 함
- 투기형 가계: 고위험 장기성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좋아하고 보유한 금융자산의 규모가 크고 금융 관련 지식이 많음
- 신중투자형 가계: 여러 가지 종류의 저축에 투자하지만 고위험 자산을 꺼리고 채권 선호
- 다양형 가계: 특수하며 전문적인 고위험 자산에 투자하기 좋아함

가계자산포트폴리오 관련 이론을 살펴보면 첫째, 기간 간 효용극대화 이론으로써 생애주기가설의 기초이다. Fisher(1930)의 기간간효용 극대화 이론을 토대로 항상소득가설(Fridman, 1957)과 생애주기가설(Ando, Modigliani, 1963)이 전개되었다. 소비에 대한 시간선호는 현재시점에서의 가계소득에 따라 저축결정이나 차용결정으로 이어져 현재와 미래의 기간간에 가계 포트

폴리오는 여러 가지 금융상품과 각종 부채로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

둘째, 행동주의 생애주기 가설로써 불확실성하에서의 인간의 행동 특성을 고려한다. Shefrin, Thaler(1998)는 Kahneman, Tversky(1979)의 내적계정을 도입해 수정한 가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계에게는 유산산축 동기가 있고, 기대여명 예측은 불가능하다. 둘째, 자본시장은 불완전하여 실물자산의 연금화와 가계의 차용에 현실적인 제약이 존재한다. 셋째, 일생동안의 소득의 흐름은 고용불안과 건강의 위험 때문에 불확실하다. 넷째, 자산은 대체 불가능하다.

셋째, 위험/수익 피라미드 이론이다. 이 위험/수익 피라미드에서는 단계가 높아질수록 위험과 수익은 증가한다는 이론이다.(Mitra, 1990, Weagley, Gannon,1991, Kapooretalo, 1996) 위험피라미드 모델은 위험/수익성 측면에서 가계포트폴리오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설명해 준다(Weagley, Gannon 1991). 위험피라미드 모델에서의 기본 전제는 안전자산을 충분히 축적하여 다양화 한 다음에 다음 단계로 나아간다는 것이다. 즉 축적된 안전한 가계 자산의 양이 많을수록 가계의 상대적 위험회피도는 낮아지게 되며 따라서 위험자산의 양이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위험피라미드 모델에서는 단계가 높아질수록 위험과 수익이 증가한다. 단계별 자산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단계(안전성): 현금, 은행요구불 및 저축성예금, 양도성예금증서, MMF 등
- 2단계(안전성과 수익성): 보험, 연금, 국채, 회사채, 지방채, 금융채 등
- 3단계(성장성): 우량주, 투자신탁, 일반증권, 부동산임대, 전환사채 등
- 4단계(투기성): 미술품, 귀금속, 관리종목주식, 정크본드, 옵션, 선물상품 등

위험수익 피라미드는 아래 단계에서는 저수익·저위험 특성을 갖는 보수적 투자를 하고 중간 단계에서는 보다 위험하면서 고수익 특성을 갖는 모험적 투자를 그리고 피라미드의 정상단계에서는 투기적인 투자를 한다고 설정하고 있다.

## (2) 생애주기와 가계재무관리전략

저축은 미래의 만족을 위하여 현재의 욕망을 억제하는 것이므로 가계는 미래를 대비하여 예비적 동기, 성장적 동기, 향상적 동기, 타산적 동기 등과 같은 저축동기를 갖게된다. 가계는 구체적인 저축목표를 가지는데, 대체로 주택마련, 자녀교육비 및 결혼자금마련, 노후대책비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그 밖에도 다양한 예비적 저축목적은 가진다. 저축목적은 가족생활주기 단계가 전개됨에 따라 그 우선순위가 변한다. 형성기에는 주택마련과 자녀 교육비 마련 확대기에는 노후대비가 부각된다. 가계는 총자산 수준보다는 가계의 생활주기단계에 따라 위험자산을 다양하게 보유한다. 각 단계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가계는 다음과 같이 재무관리행동을 취하게 된다.

- 1단계 : 안전자산에 투자한다.
- 2단계 : 위험도가 높은 증권에 투자한다.
- 3단계 : 보수적 투자로 전환하여 위험을 균형화한다.
- 4단계 : 소득 절정기이므로 위험도가 높은 증권에 투자한다.
- 5단계 : 소득획득 가능성이 제한되는 시기이므로 미래 소득을 산출하기 위해 보수적 투자전략으로 재전환한다.
- 6단계 : 은퇴 직전기로서 보수적 투자전략으로 재전환한다.
- 7단계 : 소득상실기이므로 당기 소득 산출에 치우친 포트폴리오로 재구성한다.

저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인 가계의 재무생애주기는 1단계에서는 가계 초기에 주택 마련, 자녀교육, 비상금을 마련하기 위한 축적기, 2단계에서는 가계 안정기에 그 동안 축적한 자산을 활용하여 투자수익을 올리는 확대기, 3단계에서는 소득 절정기가 지난 은퇴이후를 준비하는 자산의 보존기단계이다.

보통 가계는 초기단계에는 안전자산을 보유하고 소득절정기에는 위험자산을 보유하면 은퇴기에는 소득원이 될 수 있는 안전자산을 보유한다는 것이다. 자산과 부채 간에는 상호의존성이 존재한다(Bruant, 1986). 다변량 재조정가설에 따르면 가계는 각각 자산과 부채에 대해 일정한 열망수준이 있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요인들이 변화함에 따라 균형을 유지하고 조정한다.

가계재무전략은 가계의 자산과 부채 즉 저축과 차용행동의 산물을 기준으로 추론하는 것이다. Katona(1975)는 사회적 행동은 능력과 동기로 결정된다고 보고 저축행동은 개인의 저축능력과 저축의지로 결정된다고 여겼다. 저축능력은 가처분소득으로, 저축동기는 경제 상태에 대한 낙관적이거나 염세적인 느낌 즉, 주관적 경기전망으로 측정된다(Lunt, Livingstone, 1991). 가계 포트폴리오 구성시에 능력이라는 가계의 자원 제약과 의지 및 동기라는 가계의 선호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선행연구 고찰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기간 간 효용극대화이론에 따라 가계의 시간선호와 소비욕구를 대변할 가족생활주기(연령), 교육수준, 직업, 가족 크기, 거주지역과 행동주의 생애주기가설과 Katona(1975)의 이론에 따라서 저축목적과 주관적 경기전망 등을 선호 관련 변수로 채택하였다. 또한 저축 및 차용을 위한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자원과 관계있는 변수로 월평균 소득, 취업자수, 주택유무 등을 가계특성 관련 변수로 설정하였다.

### (3) 재무관리행동의 측정방법

재무관리행동을 실제적인 관리행동으로서 파악하고 영역별 행동을 측정한 연구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Hira(1987)는 재무관리행동을 위험과 신용관리행동의 특정한 영역만을 측정하였으나 그 이후 Titus 등(1989)은 좀 더 영역을 구체화 시켜서 재무관리와 관련된 실제적인 활동 즉 예산수립, 가계부기록, 신용사용, 저축, 위기관리 행동을 측정하였고 Porter 등(1993)은 현금, 신용, 자본축적, 위험, 은퇴와 유산, 일반적 재무관리 행동을, Parrotta 등(1998)은 현금, 신용, 위험, 은퇴와 유산, 자본축적, 일반적 재무관리의 6가지 영역에 대한 재무관리행동을 측정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재무관리행동을 측정하였다. 또한 재무관리행동을 실제로 요구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는데 배회선 등(1996)은 화폐관리행동, 자녀교육비 대비행동, 노후준비행동으로 측정하였고, 홍향숙 등(1999)은 개인, 가계환경변수가 가계의 재무영역별 재무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측정하고자 소득관리, 지출관리, 부채관리, 투자관리, 위험관리로 나누어 재무관리행동을 측정하였다.

<표3-7> 경제적 불안 측정척도

소득 자산 불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 가정의 소득으로 필요한 모든 지출을 충당할 수 있다.*</li> <li>• 우리 가정의 총 소득에 만족한다.*</li> <li>• 현재 우리 가정이 하고 있는 저축 수준에 만족한다.*</li> <li>• 우리 가정의 총 자산 수준에 대하여 만족한다.*</li> <li>• 갑작스런 지출에 대비하여 가지고 있는 여유자금에 만족한다.*</li> <li>• 수입이 매달 규칙적이지 않아 불안하다.</li> <li>• 가계소득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저축액이 적어 불안하다.</li> <li>• 남편(또는 가장)의 월소득이 줄어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li> <li>• 가족 중 단 한사람만이 고정수입자라는 것이 불안하다.</li> </ul>
재정 안정 성 불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앞으로 우리 가정의 재정 상태는 지금보다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li> <li>• 현재 우리 가정의 재정 상태는 과거보다 더 나아졌다고 생각한다.*</li> <li>• 장차 자녀의 결혼자금 마련이 부담스럽다.</li> <li>• 남편(또는 가장)의 은퇴 후의 생활이 불안하다.</li> <li>• 장차(혹은 현재) 자녀의 대학등록금 마련이 부담스럽다.</li> <li>• 노후를 대비한 경제적 준비가 안 되어있어 불안하다.</li> <li>• 갑작스런 질병, 사고, 실직 등의 비상시에 대한 경제적 준비가 안 되어있어 불안하다.</li> </ul>
필수 지출 불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 집의 생활비는 충분하다.*</li> <li>• 살림을 하고 나머지 여유자금을 가지고 있다.*</li> <li>• 자녀의 학교 등록금 납부가 부담스럽다.</li> <li>• 생활필수품 구매조차도 어려움을 겪는다.</li> <li>• 각종 요금(전기료, 관리비 등)을 납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li> <li>• 자녀의 용돈을 주는데 어려움을 겪는다.</li> </ul>
선택 지출 불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댁 혹은 친정식구 관련 행사에 대한 지출이 부담스럽다.</li> <li>• 시댁 혹은 친정부모 부양과 관련된 지출이 부담스럽다.</li> <li>• 이웃, 동료, 친척들의 경조사로 인한 부조금 지출이 부담스럽다.</li> <li>• 가족의 건강관리 비용 및 질병 치료비 지출이 부담스럽다.</li> <li>• 자동차 유지 및 수리비가 부담스럽다.</li> <li>• 가구, TV, 냉장고 등을 새로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이 부담스럽다.</li> </ul>
부채 불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 집이 빚을 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하여 만족한다.*</li> <li>• 우리 집의 자산을 생각할 때 현재의 부채(빚)가 부담스럽다.</li> <li>• 은행(또는 회사)에서 대출한 융자금이 부담스럽다.</li> <li>• 주변사람(이웃, 친척, 동료 등)에게 빌린 돈이 부담스럽다.</li> </ul>

\* 표시는 역산문항임

<표3-8> 재무관리행동 척도

재무관리 행동유형	재무관리 행동유형 주요 내용
소득관리 행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문, 잡지, 전문서적 등에 배우자나 가족원들의 직장 일에 도움이 되는 정보가 있으면 오려두거나 메모해 둔다.</li> <li>• 가계소득이 안정적으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 근로소득(예; 월급 등) 뿐만 아니라 재산소득(예; 은행이자, 집세 등)이 있도록 이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li> <li>• 절약, 부업, 재테크 등을 통해 근로소득이외에 재산소득을 가지기 위해 노력한다.</li> <li>• 가계 주 소득자(예; 남편)의 건강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지식이나 기능(예; 자격증, 컴퓨터 사용 등)을 제때에 익히고 있는지 점검해 본다.</li> <li>• 우리 집의 씬씀이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가계소득이 적절한지 또는 부족한지 평가해본다.</li> </ul>
세금관리 행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문·잡지의 경제란, 전문서적 등에 가정생활과 관련된 세금혜택제도 및 절세방법에 관한 내용이 있으면 이를 오려두거나 메모해둔다.</li> <li>• 연중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의 종류와 금액, 납부시기를 파악하여 미리 세금납부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li> <li>• 세금의 납부기일을 지킴으로써 가산세를 지불하지 않도록 한다.</li> <li>• 과다하게 부과된 세금은 없는지, 세금을 연체하지 않고 제때에 납부했는지 확인한다.</li> <li>• 절세방법을 최대한 활용했는지 평가해 보고, 그 결과를 다음 기회에 참고한다.</li> </ul>
지출관리 행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효율적인 지출관리(생활품의 가격변동 여부 및 상설할인매장·할인점의 위치 등)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인터넷·신문·잡지를 이용하거나 친구들에게 물어본다.</li> <li>• 소득을 꼭 지불해야 할 부분(예; 저축, 세금, 관리비, 수업료 등)에 먼저 배분하고 남은 금액으로 식비, 피복비, 요양오락비 등에 사용한다.</li> <li>• 가계의 지출비목(예; 식비, 교통비 등)을 구분해서 각 비목별 지출내용 및 지출금액을 가계부에 기록한다.</li> <li>• 어떤 비목의 예산이 모자라게 책정되었으며, 어떤 비목의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는지를 두세달마다 주의 깊게 분석해본다.</li> <li>• 월말과 연말에 가계지출 내용을 결산하여, 이때 지출이 가족원들의 원하는 바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주었는지 평가·반성한다.</li> </ul>

투자관리 행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문, 잡지의 경제란, 인터넷, 재테크 서적을 이용하여 투자(예;저축, 증권, 부동산 등)에 관한 내용을 오려두거나 메모해둔다.</li> <li>• 가계의 투자목표와 현재의 경제수준에 적절한 투자방법(예;예금, 적금, 신탁, 증권, 부동산 등) 및 투자기간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li> <li>• 투자(저축)할 돈은 생활비로 쓰이기 전에 미리 떼어놓는다.</li> <li>• 금리 상승시에는 단기금융상품(6개월-1년)이나 변동 금리형 상품에 투자하며, 금리 하락시에는 장기금융상품(2년-5년)이나 확정 금리형 상품에 투자한다.</li> <li>• 선택한 저축방법과 투자방법이 저축목표와 투자목표를 달성하는데 적합한지 6개월-1년 단위로 평가한다.</li> </ul>
부채 관리 행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 마련시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의 팜플렛을 주의 깊게 살펴보거나(보았거나) 금융기관의 대출담당 직원과 상담한다.</li> <li>• 신용카드로 구입한 물건의 할부대금과 현금서비스 이용액을 갚기 위해 지출되는 돈이 생활비의 10%를 넘지 않도록 한다.</li> <li>• 현재 부채가 있을 경우 매월 부채(예;대출, 용자, 신용카드의 할부이용, 사채 등)를 제대로 갚고 있는지 자주 확인해 본다.</li> <li>• 가계자금(주택자금, 학자금용자 등)이 필요할 때(또는 과거에 필요했을 때) 대출을 받기 위한 자격요건이 갖추어져 있는지 확인한다.</li> <li>• 현재 부채가 있을 경우(또는 과거에 부채가 있었을 경우) 1년 단위로 가계의 부채상환결과를 평가해본다.</li> </ul>
위험 관리 행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사고나 실직, 질병에 대한 준비책의 마련을 우리 집의 중요한 문제로 설정하였다.</li> <li>• 보험을 선택할 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기 위해 전문가(보험회사직원, 재무설계사 등)과 상담한다.</li> <li>• 생명보험, 또는 자동차보험, 또는 연금보험 등에 가입하였다.</li> <li>• 보험료를 제때에 납입하고 있는지 확인한다.</li> <li>• 가계가 가입한 보험의 종류 및 보험금이 가계의 위험대비책으로 적절한지 평가한다.</li> </ul>

<표3-9> 재무지식 척도

재무지식 요인	측정질문예시
재무설계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플레이션은 물가수준의 하락을 의미한다.*</li> <li>• 소비자물가지수는 소비자들이 시장에서 실제 경험하는 물가를 반영한다.</li> <li>• 우리가 투자 시 고려해야 할 투자의 3원칙은 안전성, 수익성, 환금성이다.</li> </ul>
예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완전비과세 저축상품은 우리나라에 없다.</li> <li>•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예금보험의 최대한도는 금융기관당 3,0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다.*</li> <li>• 은행이나 투자신탁회사의 신탁상품은 일반적으로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다.</li> </ul>
주식 부동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주가지수는 주가가격의 변동을 나타내는 종합적인 지표이다.</li> <li>• 채권은 주식과 달리 해당 회사나 국가가 존재하는 한 원금상환이 보장된다.</li> <li>• 재건축의 경우 세입자에게 분양권이 주어진다.*</li> <li>• 확정일자만 공증 받으면 전세권보호를 받을 수 있다.</li> </ul>
신용부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보가 없으면 은행이나 보험회사에서 돈을 빌릴 수 없다.*</li> <li>• 서명도니 신용카드의 분실 신고 전 60일 이내의 부정사용(제3자의 사용)금액은 전액 면책 받을 수 있다.</li> </ul>
세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세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 후 매매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li> <li>• 증여세 공제한도는 성인 자녀의 경우 3,000만원이다.</li> <li>• 소득세 산출시 국민연금보험료 전액이 소득공제 된다.</li> </ul>
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계약의 효력발생은 보험 계약서를 작성한 때부터이다.*</li> <li>• 생명보험회사의 저축성 보험은 7년 이상 예치하는 경우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li> <li>•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은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li> </ul>
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다.*</li> <li>• 국민연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강제보험이다.</li> </ul>

\* 표시는 설명이 옳지 않은 문항임

<표3-10> 가계재무관리 행동유형과 평가내용

소득관리행동	· 소득증가를 위한 정보수집 · 가계소득 원천 다양화 계획수립 · 재산소득을 가지기 위해 노력 · 업무관련 기능 습득정도 점검 · 소득의 적절성 평가
세금관리행동	· 절세관련 정보수집 · 연간 세금납부 계획수립 · 세금납부 기일 지키기 · 세금부과 내역 및 연체여부 확인 · 절세방법 이용의 평가
지출관리행동	· 지출관련 정보수집 · 매월 고정지출액과 변동지출액의 계산 · 지출내용 및 지출액수의 기록 · 변동지출의 사용 점검 · 지출내용 결산 및 평가
투자관리행동	· 투자를 위한 정보수집 · 투자목표의 설정 · 투자방법 및 투자기간에 대한 계획수립 · 이자율을 고려한 금융 상품의 선택 · 투자방법의 적절성 평가
부채관리행동	· 부채이용을 위한 정보수집 · 월 신용카드 부채액 관리 · 월부채상환의 확인 · 대출자격 요건의 구비여부 확인 · 1년 단위로 부채상환 결과 평가
위험관리행동	· 보험선택을 위한 정보수집 · 위험대비책 마련을 주요 목표로 설정 · 보험가입 · 월보험료 납입 확인 · 가입한 보험의 적절성 평가

Beard, Firebaugh(1978)은 주부의 계획수립행동을 환경의 변화에 대한 수용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정지향형, 변화지향형으로 구분하였다.

- 변화지향형: 새로운 목표를 잘 수용하고 새로운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원확정, 융통성 있는 계획을 세움(임정빈 외, 1994). 목표는 새로운 정보나 기회에 따라 수정됨, 그러나 현명치 못한 행동 및 수정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비효율적이며 긴장, 좌절 발생 가능
- 안정지향형: 이미 결정된 목표를 가지고 이용가능한 자원을 확장 보다는 기존의 자원만 관리(임정빈 외, 1994). 목표지향적 계획수립, 구조적 변화회피, 원래상태로 돌아가려는 경향. 효율적이지만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제한되어 새로운 기회상실 가능

#### IV. 결론 및 제언

최근 금리인상, 급여삭감, 실업자 증가, 자산디플레이 등으로 인하여 가계경제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이러한 현상은 가계소득의 감소, 부채의 증가, 신용불량자 증가 등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또한 자산관리사, 가계재무 관련 종사자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은 저축, 신용카드, 보험, 자산관리 등의 금융상품개발 및 판매에 있어 가계재무관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이처럼 가계의 재무관리행동이 변하고 있고 가계재무관리행동이 업계에서 중요한 관심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가계의 재무관리행동 분야의 연구조사는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많은 선행 연구들은 관심있는 특정 주제를 가지고 연구목적을 달성해 왔으나 이 분야의 연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및 정리는 거의 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수행된 재무관리분야 선행연구들에 대한 이론적 고찰, 실증적 연구결과들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이 이루어진 바 없다. 가계재무행동의 이론적 접근, 가계재무구조, 가계재무 평가지표, 재무관리행동, 투자행동 등 가계의 생애주기에 따라 변화하는 가계재무관리행동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공통적 견해 또는 이들 연구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주요 내용 등에 대한 이해가 시급하다. 특히, 소비자 개인의 위험감수도, 현상유지도, 재무정보탐색 및 가계재무관리행동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나 분석 없이 가계의 재무관리행동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기 어려우며 가계의 재무관련 컨설팅 및 정책적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없다. 경제생활만족을 위해 필요한 재무 관련 의사결정이나 가계재무관리행동에 대한 충분한 이해, 위험감수성향, 가계재무관리 방법이나 투자방법, 가계성향 등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계의 가계재무관리행동을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해 기존의 연구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가계의 재무관리 행동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여 가계재

무관리행동에 관련한 개념, 이론, 선행연구의 실증결과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리·고찰하였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계재무관리행동의 이론적 배경으로 가계재무의 경제학적, 심리행동적, 생애주기적인 이론적 접근을 살펴보았고 가계재무관리행동의 이론적 관점에 따른 중 개념으로 휴리스틱, 닷 내림효과 조정, 양떼현상, 대표성 편향, 자기과신, 프레임 효과, 손실회피와 가격전략, 매몰비용효과와 고객관리, 언팩킹효과와 광고소구 방법을 살펴보았다.

둘째, 가계재무관리의 이론과 행동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가계재무구조인 가계소득, 지출, 저축, 부채, 자산, 경제적 안정도와 비상자금을 살펴보았고 가계재무 건전성 및 가계재무평가에서는 가계재무건전성의 개념 및 이론적 배경, 선행연구, 측정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개인과 가계의 재무관리행동에서 위험과 가계재무관리행동, 가계자산 포트폴리오, 가계재무관리전략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셋째, 개인과 가계의 투자행동에서는 투자행동에 대한 이론적 접근 및 주요 개념으로 최적대안선택 접근, 기대효용극대화 접근, 위험감수 접근, 손실 및 이익에 대한 태도, 인지행위적 재무접근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위험감수성향과 투자행동의 측정방법으로 투자위험 감수성향 측정방법, 자산 포트폴리오 투자성향, 투자대상 선호측정 방법, 이익과 손실간 투자성향 측정 방법, 개인의 투자유형 측정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끝으로 가계의 투자행동 선행연구 고찰에서 자기고양적 편향과 과신 연구, 성격과 투자행동 연구, 위험감수성향과 투자행동 연구, 과도거래와 투자행동 관련 연구, 이익과 손실 태도와 투자행동 관련 연구, 가계 생애주기와 투자행동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수행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첫째, 가계재무관리행동 관련 선행연구의 주제가 다양함을 알 수 있다. 과거에는 가계재무관리행동에 초점을 둔 연구가 많은 반면 최근 10년 사이에는 가계재무의 건전성, 은퇴설

계 관련 연구 등 국내외 금융 시장의 변화를 반영하는 시기적절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었다.

둘째, 최근 가계재무관리행동에 대한 행동심리학적 접근을 응용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긍정적이라고 하겠다. 행동심리학적 연구는 주로 가계의 투자행동, 위험인지 및 관련 분야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들의 제한점을 살펴보면 첫째,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가계재무관리행동, 위험인지, 가계투자행동, 가계경제구조, 가계재산배분 등에 영향요인을 조사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앞으로 연구의 목적이 영향요인 조사 외에 다양한 목적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둘째, 많은 선행연구들이 특정시점의 가계의 초점을 두고 연구하고 있다. 가계재무관리행동은 전 생애에 걸쳐 진행되므로 향후 후속연구에서는 생애주기별 체계적인 연구가 더 필요하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자료의 한국노동연구원, 대우경제연구소의 한국가구패널조사, 통계청의 가구소비실태조사 등 횡단적 패널 data를 사용하고 있어 장기적 차원의 가계재무관리행동 연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된다.

셋째, 가계의 실제적인 재무행동에 치침이 되고 실천 강령이 될 수 있는 실용적인 연구가 더 필요하다. 예를 들면, 가계재무 건전성을 직접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가계재무관리 행동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금융 소비자단체, 금융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연구가 더욱 수행되어야겠다.

다섯째, 아직도 많은 선행연구가 횡단적 자료를 사용하고 있는데 종단적 자료를 사용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여섯째, 지금까지 이 분야의 연구주제는 다양하게 전개되었으나 많은 연구가 다학제적 접근 이론의 개발, 실천적 응용 등에서 미흡하였다. 가계재무관리행동 연구는 재무학, 자원관리학, 소비자교육학, 사회학과 심리학의 이

론과 원리를 적용하여 개인, 가족, 가계가 자신의 현재와 미래의 재무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재무자원을 획득하고, 발전시키고, 배분하는가를 연구하는 다학제적인 학문이므로 여러학문 영역의 이론, 개념, 연구방법을 활용하는 연구로 발전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소비자학 분야에서 진행되어 온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을 중심으로 가계재무관리 분야에 통찰력 있는 이해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가계의 재무정보 및 가계재무관리행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계의 재무관리상담 및 컨설팅, 경제생활만족도를 높이는 각종 컨설팅 등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재무관리행동에 대한 본 연구의 종합적인 고찰은 개인과 가계의 재무관리 관련 의사결정에 기초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금융소비자교육, 소비자재무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가 개인과 가계의 저축, 부채, 자산관리 등의 합리적 의사결정, 가계재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 금융산업 및 부동산 등에 대한 재무관리정책수립 및 이행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참고문헌

- 강성호(2011). 부양의식 및 공적이전소득의 사적이전소득 구축효과와 소득보장효과.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13(1), 113-144.
- 강혜경(1990). 도시주부의 자산증식을 위한 행동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3), 87-103.
- 계선자(1999). 도시주부의 가계재무관리 능력 및 재정만족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3(1), 35-49.
- 고보선, 이영호, 임정빈(1997). 주부의 취업여부에 따른 가계재정상태에 대한 기대감,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2), 45-58.
- 고순화, 차경욱(2008). 학교 외 금융소비자교육 프로그램 내용분석. 소비자정책·교육연구, 4(4), 61-80.
- 공정거래위원회(2008). 소비자역량지수 개발 및 산출, 보도자료.
- 곽준식(2009). 행동경제학과 마케팅. 마케팅 Knowledge(2), 43-49.
- 곽준식(2012). 프로스펙트 이론: 이익은 나누고 손실은 합하라. 99호. 동아DBR.
- 구희일, 최석준(2009). 가구특성에 따른 가계의 여가소비지출 분석. 소비문화연구, 12(1), 25-49.
- 권지현(2007). 소득위험이 가계 포트폴리오 구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동패널조사자료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권택호(2009). 노후설계에서의 적정 저축률, Financial Planning Review, 2(1), 1-23.
- 금융감독원(2003). 청소년 금융이해력(Financial Quotient)측정결과(2003).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2004). 우리나라 중학생의 금융이해력(Financial Quotient)측정결과.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2009). 2008년 연차보고서.

- 금융감독원(2009).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금융이해력(Financial Quotient)측정 결과.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2007). 금융교육 강화방안.
- 길재욱, 박영석, 이재현, 박성호(2008). 개인투자자의 투자행태와 위험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 Financial Planning Review, 1(1), 19-46.
- 김경자(1993). 가계의 경제적 안정도: 단기지표와 장기지표의 비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1), 107-118.
- 김경자(2000). 라이덴 방식에 의한 주관적 생계비와 그 영향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1), 43-52.
- 김경자(2001). 인터넷 재무상담 프로그램의 내용과 양식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6), 207-220.
- 김경자(2002). 대학생들의 신용카드 사용실태와 문제점, 한국신용카드학회 학술세미나 자료집.
- 김경자(2003). 가계특성에 따른 재무위험 인지와 보험료 지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6), 43-51.
- 김경자(2003). 대학생들의 화폐태도와 개인재무관리 실태, 소비문화연구, 6(3), 33-50.
- 김경자(2005). 인터넷 보험에 대한 소비자태도와 수용성향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6), 133-144.
- 김경자(2007). 가구주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 교육비 지출액과 지출구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6), 111-120.
- 김경자, 박명숙, 정운영(2002). 가계 재무 상태와 가계재무관리행동 성과에 따른 재무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2), 21-28.
- 김경자, 이기춘(1986). 소득계층별 비교를 통한 저소득층 소비자문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4(2), 53-66.
- 김경자, 홍정하(2002). 대학생들의 재무지식과 개인 재무관리 행태 연구. 한

- 국가정관리학회 추계학술대회자료집.
- 김기태, 류기형, 박병현, 박봉길, 이경남(2001). 중년여성의 노인부양과 상속  
에 대한 태도 및 관련요인분석. 한국노인연구, 55-80.
- 김년희(2000).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도시가계의 재정상태분석.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동철, 최원욱, 박재완, 이윤종(2006). 개인투자자의 심리회계: 통합 및 분리  
매도를 통한 손익현실의 차별화현상. 경영학연구, 35(2), 671-692.
- 김미라, 김혜선(2008). 30대 기혼 채무 불이행자의 특성에 관한 심층연구. 한  
국가정관리학회지, 26(3), 169-189.
- 김미라, 황덕순(2008). 개인회생 채무자의 경제적·심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5), 109-127.
- 김미리(2007). 대학생 소비자의 금융이해력 및 금융소비자교육 요구도 분석.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미린, 홍은실(2010). 가계채무관리자의 경제적 불안과 채무관리행동에 관  
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8(5), 113-129.
- 김민정(1984). 가계소득 적정도 인지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  
원 석사학위 논문.
- 김민정(1995). 객관적 가계경제복지와 주관적가계경제복지의 상호관계. 서울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민정(2005). 가족생활주기와 주관적 경제상태에 따른 가계채무상태 분석.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민정, 박진선(1997). 생활양식과 구매유형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8(1), 1-21.
- 김민정, 손지연, 최현자(2007). 직업안정성과 위험감수성향에 따른 소비자 포  
트폴리오 비교 분석. 소비자정책교육연구, 3(2), 1-21.
- 김민정, 이희숙(2010).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가계 채무구조 분석. 한국지역사

- 회생활학회지 Korean J. Community Living Science, 21(1), 53-69.
- 김민정, 최현자(2007). 가계재무상태 평가지표의 타당성 검토. 소비자학연구, 18(3), 87-110.
- 김민정, 최현자(2008). 은퇴자의 투자성향에 따른 자산포트폴리오 변화. 소비자정책교육연구, 4(4), 23-40.
- 김성민, 길재욱, 김현수(1999). 생활재무관리. 경문사.
- 김숙향, 황덕순(2002). 가계소득계층별 가계소득변화와 휘발유가격변화가 승용차 연료비 지출액과 지출비율에 미치는 연구. 소비문화연구, 5(1), 1-13.
- 김순미(1998). 재무계획 수립을 위한 노인가계의 재정상태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6(10), 179-196.
- 김순미, 김연정(1991). 체계론에 근거한 주관적 재정안정도에 대한 인과적 모형. 대한가정학회지, 29(4), 151-165.
- 김순미, 양정선(1994). 재무관리유형에 따른 은퇴계획. 대한가정학회지, 32(5), 45-54.
- 김순미, 양정선(2004). 도시근로자 가계의 지출, 저축성보험, 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2(9), 37-51.
- 김시월(1999).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 부담감과 경제적 복지감과의 관련성 연구. 소비자학연구, 10(3), 101-121.
- 김시월(2007). 청소년소비자의 온라인 신용소비자교육 활성화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한·일 청소년소비자의 비교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3), 169-185.
- 김시월, 박배진(2003). 소비자의 의사결정유형과 상표충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1(11), 21-34.
- 김시월, 조향숙(2010). 한·일 청소년 소비자의 신용교육 요구도 비교 연구: 신용지식 및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FP학회, 3(2), 73-103.

- 김연정(1991). 체계론적 관점에서 본 가정의 주관적 재정 복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연정(1998). 재무비율분석을 통한 가계의 재정상태 분석:노후준비를 중심으로. 한국소비자학회 98년 학술발표회자료집, 37-63.
- 김영숙(2002). 성인 소비자의 여가비지출과 여가만족도에 관한 연구. 소비문화연구, 5(2), 129-158.
- 김영숙, 김여진(2006). 신세대소비자의 웰빙상품에 대한 소비자능력과 구매 후 행동에 관한 연구. 2006년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겨울학술대회 자료집, 61-74.
- 김영숙, 김지현(2003). 사이버주식투자자의 투자행태유형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14(4), 105-125.
- 김영신 (2003). 소비자의사결정 유형 및 관련변수에 관한 연구. 소비문화연구, 6(3), 51-78.
- 김영신, 강이주, 이희숙, 허경옥, 정순희(2000). 소비자의사결정. 교문사.
- 김은진(2009). 중학생의 금융이해력 제공에 관한 연구: 수도권을 중심으로. 숙명여대 정책 산업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인숙(2002). 대학생의 환경친화적 소비자행동과 환경의식적 시민행동 성향 - 청주시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11(3), 249-262.
- 김인숙(2003). 충북지역 가계의 재무관리 실태 및 평가. 한국생활과학회지, 12(1), 39-52.
- 김재진(2003). 신용불량자 급증요인과 대책. 한국조세연구원, 서울.
- 김재휘, 김지은, 박지영(2012). 미래의 손실 예상에 따른 심적 계좌와 낙관 편향이 소비자의 무제한 대안 선택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13(2), 185-203.
- 김정숙(1996). 주부의 저축과 소비에 대한 의식 및 저축동기가 가계의 저축율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4(2), 245-259.

- 김정현(2011). 소비자 재무관리역량 척도 및 지수 개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정현, 최현자(2011). 소비자 재무관리역량 척도개발 연구. *Financial Planning Review*, 4(3), 1-36.
- 김정훈(2000). 여대생의 돈과 신용에 대한 태도. *대한가정학회지*, 40(3), 165-175.
- 김정훈(2002). 여대생들의 돈에 대한 태도와 경험: 한국, 일본 및 한국계, 일본계 미국 여대생비교. *한국생활과학학회지*, 11(2), 169-175.
- 김정훈, 정혜경(1996). 돈에 대한 태도'에 대한 시험적 연구 : MBBS 적용 및 비교 문화적 관점. *대논문집*, 32-2, 521-535.
- 김창미, 김영신(2005). 대학생소비자의 신용카드 사용행동에 대한 인과분석: 현금서비스 사용 행동과 연체행동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2), 77-91.
- 김치환(1987). 투자선택행동과 효용이론. *사회과학연구* 7(1), 영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27-143.
- 김학주(2004). 가구주의 취업형태에 따른 가계의 부채부담 연구. *사회복지정책*, 20, 109-131.
- 김학주(2005). 소득계층별 가계의 부채부담 연구. *사회보장연구*, 21(1), 119-147.
- 김혜경, 여윤경(2011). 개인의 은퇴자산 부족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분석적 연구. *Jornal of & Finance*, 25(2), 83-115.
- 김혜연, 김미성(2001). 경조비에 대한 의식 및 지출 변화 - IMF경제위기 이후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9(1), 65-80.
- 김혜연, 홍성희(2001). 미국 근로자 가계의 의료보험지출과 영향요인. *대한가정학회지*, 39(3), 93-105.
- 김효정(1999). 부부의 가계재무 관리행동과 재정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7(1), 101-115.

- 정학회지, 7(8), 91-153.
- 김효정(2000). 체계론에 의한 가계의 재무관리행동과 재정만족도에 관한 연구: 부산 및 경남지역 주부를 대상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1), 53-66.
- 김효정(2001). 아동의 용돈관리에 관한 연구 - 김해시 초등학교 4,5,6학년층을 대상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9(10), 125-140.
- 김효정(2004). 아동소비자의 용돈관리행동과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2(8), 77-93.
- 김효정(2005). 대학생 소비자의 신용카드 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관리학회지, 43(11), 1-15.
- 김효정(2005). 대학생 소비자의 재무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관리학회지, 43(7), 79-91.
- 노민영, 심재은, 정효지, 이인희, 류정순, 백희영(2006). 2001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한 빈곤층 가구의 식료품비 추정. 대한가정학회지, 44(8), 79-87.
- 문숙재, 김순미(1997). 은퇴준비를 위한 재무계획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기초연구 - 가족생활주기적 관점의 재정복지실현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5(5), 1-15.
- 문숙재, 김순미, 양정선(1996). 가계의 부채보유여부 및 부채액에 대한 영향요인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2), 157-169.
- 문숙재, 양정선(1996). 가계의 위험 자산과 안전자산 투자 분석-금융자산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3), 109-120.
- 민재형, 구기동(2004). 불확실성하에서의 개인의 투자행태 및 투자결정요인. 경영논총, 15-2, 111-132.
- 민현선, 이기춘(1999). 환경친화적 소비태도와 소비행동 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7(1), 29-44.

- 박광희(1998). 소비자의 의사결정유형에 따른 환경보존적 태도 및 행동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9(2), 65-77.
- 박귀영, 허경옥(2013). 소비자의 위험감수도와 현상유지도가 재무정보탐색, 가계재무관리행동 및 경제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FP학회, 6(1), 1-26.
- 박근주(1990). 소비자의 신용카드 사용행동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근주, 이기춘(2002). 자산과 부채보유에 근거한 가계재무전략유형별 가계 포트폴리오의 구성. 소비자학연구, 13(1), 45-73.
- 박명숙(2003). 가계의 재무위기 대비에 대한 주관적 평가의 관련변수. 대한가정학회지, 41(11), 49-60.
- 박명숙, 유현정, 김인숙, 김혜선(2006). 고등학교 생활경제교과의 운영실태 및 효율적 개선방안. 소비자정책교육연구, 2(1), 41-60.
- 박명호(2007). 소득충격의 지속성이 예비적 저축과 한계소비성향에 미치는 효과: 분석적.
- 박명희, 이승신, 박미혜(1997). 가계재무관리 software개발을 위한 연구(1)-가계부 내용분석과 가계재무관리 실태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5(1), 85-98.
- 박명희, 이승신, 배미경(1998). 가계재무관리 software개발을 위한 연구(2), 대한가정학회지, 36(2), 131-144.
- 박미연, 차경옥(2008). 자녀학령기 가계의 노후준비자금과 사교육비 지출에 관한 연구. *Financial Planning Review*, 1(1), 131-156.
- 박미희, 여정성(2000). 개인과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 및 유형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8(12), 189-206.
- 박선욱(2008). 미국 편모가계의 자녀보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가정학회지, 46(1), 87-101.

- 박선욱(2008). 미취학자녀를 둔 가구의 자녀보육비 지출실태와 영향요인. 소비문화연구, 11(2), 197-213.
- 박성연 (1996). 한국인의 라이프 스타일 유형과 특성. 마케팅연구, 11(1), 19-34.
- 박세훈, 김문용(2007). 현상유지편향을 조절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아시아마케팅저널, 24(3), 149-171.
- 박운아, 이기춘(1999). 환경의식적 소비자 행동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3(4), 199-212.
- 박인섭, 이성효(2009). 개인투자자의 보험상품 선택에 관한 실증연구. Financial Planning Review, 2(2), 89-115.
- 박임출. 은행소비자 보호의 개선과제-펀드판매를 중심으로. 토론문 5.
- 박주영, 최현자(1999). 자산계층별 가계포트폴리오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4), 193-206.
- 박주영, 최현자(2002). 시장환경의 변화에 따른 가계포트폴리오 변화유형 및 각 유형별 가계특성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6), 1-12.
- 박주영, 최현자(2002). 시장환경의 변화에 따른 가계포트폴리오 변화유형 및 각 유형별 가계특성 분석: IMF 경제위기동안의 재무의사결정 유형.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6), 151-162.
- 박진영(2007). 노인가계의 재무전략유형별 재무성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3), 25-44.
- 박진영(2008). 저출산가계의 재무구조분석. 한국생활과학회지, 17(4), 679-692.
- 박진영, 김영숙(2007). 노인가계의 재무전략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6(1), 75-87.
- 박진영, 문숙재(2004). 가계 재무전략 유형별 재무성과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6), 165-175.

- 박진영, 문숙재(2004). 가계 재무전략의 유형화에 관한 연구-1999년과 2000년 한국 노동 패널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2), 85-95.
- 배미경(2001). 재무비율분석을 이용한 가계 재정상태 비교분석: 근로소득자 vs 자영업자 가구를 대상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9(9), 49-61.
- 배순영, 천현진(2011). 2010 소비자역량의 측정 및 평가. 정책연구 10-07, 한국소비자원.
- 백은영(2004). 소비자의 객관적, 주관적 재정복지의 측정 - 미국 베이비붐 코호트를 중심으로. 한국소비자학회 04년 춘계 학술발표회자료집, 105-113.
- 백은영(2005). 재정적 스트레스 및 재정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미국 대학생을 중심으로. 대한가정관리학회지, 42(5), 161-174.
- 백은영(2009).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가계 재무구조와 저축성향분석. 소비자학연구, 20(2).
- 백은영, 문숙재(2005). 가족생활주기 관점에서 본 가계의 재정목표, 문제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질적 접근방법의 적용. 소비자학연구, 16(2), 87-109.
- 백은영, 배미경, 이승신(2004). 재무교육이 미국 대학생들의 주관적 재정관리 행동문제 인지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2(8), 219-233.
- 백은영, 정순희(2005). 저축성 보험 보유 및 보유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3), 217-230.
- 범수인, 문숙재(1992).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가계의 투자계획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1), 199-217.
- 변진호, 김민수, 최인철(2007). 개인 투자자의 과도거래와 투자성과. 경영학연구, 36(7), 1707-1730.
- 부수현, 박하철, 한보리(2005). 양육 효능감과 자녀가치 및 자녀양육행동 유

- 형에 따른 부모의 소비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 298-299.
- 서경의(1997). 대학생 소비자의 신용카드 사용행동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은숙, 장윤옥(2008). 청소년의 소비자지식, 돈에 대한 태도 및 소비가치가 합리적 소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5), 241-257.
- 서인주, 두경자(2003). 신용카드 사용에 관한 소비자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대한가정학회지, 41(12), 117-132.
- 서지원, 윤정혜, 성영애(2012). 가계재무관리. 방송대출판부.
- 성영애(1996). 도시근로자가계의 부채부담 추이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4(6), 183-194.
- 성영애(2000). 가구주 직업이 가계의 부채구조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9(1), 21-32.
- 성영애(2003). 가구주 직업에 따른 연령별 가계재무상태의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41(1), 39-58.
- 성영애(2006). 패널자료를 이용한 가계부채변동 관련요인 분석. 소비자학연구, 17(4), 39-60.
- 성영애(2008). 가계신용관련 정책 기초자료를 위한 가계부채의 지역 간 비교 분석. 소비자정책·교육연구, 2(1), 83-100.
- 성영애(2008). 신용회복지원제도 이용자의 특성과 재무상태 분석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신청자를 대상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6), 35-50.
- 성영애, 손상희, 양세정(2001). 아동소비자의 화폐관리교육 프로그램 -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1), 111-129.
- 성영애, 양세정(1995). 가계의 부채부담과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1), 207, 219.

- 성영애, 양세정, 이희숙, 차경옥, 최현자(2006). 소비자재무설계 및 상담 교과과정의 발전적 운영을 위한 小考. 소비자정책·교육연구, 1(2), 21-39.
- 성영애, 양세정, 이희숙, 최현자(2004). 가계재무상태 평가지표를 이용한 가계유형의 분석. 소비자학연구, 15(3), 155-171.
- 성영애, 정희영(2008).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재무상태, 신용에 대한 태도 및 재무관리행동 분석: 연체미경험자와의 비교. 소비자학연구, 19(4), 65-82.
- 성영애, 주소현, 최현자(2009). 가계의 간접투자자산 투자현황 및 관련요인 분석. 소비자학연구, 20(4), 215-238.
- 성영애, 최현자(2000). 유형별 부채의 보유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8(2), 65-77.
- 성지미, 안주엽(2007). 위험감수도와 자영업 선택. 한국경제의 분석, 13(1), 125-193.
- 손상희(1995). 부채농가의 경제적 대처행동-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3), 133-143.
- 손상희(1998). 농촌가계의 재무관리행동과 주관적 소비수준. 한국생활과학회지, 7(1), 5-95.
- 손상희(2000). 소비자재무 및 복지 연구의 성과와 과제. 소비자학연구, 11(2), 103-121.
- 손상희(2001). 한국가계의 소비수준 및 표준: 지속가능한 생활양식의 실현 모색.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5), 259-277.
- 손상희(2004). 미국의 소비자재무상담서비스 연구. 소비문화연구, 7(4), 101-125.
- 손상희, 김경자, 나종연, 최신애(2010). 녹색소비역량의 측정 지표 개발 연구. 한국소비자원 연구용역보고서.
- 손상희, 정영숙(2003). 중년기 가족의 교육비문제와 디지털 시대의 해결방안

- 모색.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1), 49-60.
- 손주영(2006). 노인 재무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시. 가족자원경영학회지, 10(4), 125-143.
- 송순영(2010). 녹색소비역량 평가 조사, 정책연구 10-13, 한국소비자원.
- 송영출(2009). 적립식 투자는 거치식 투자보다 우월한 성과를 내는가? Financial Planning Review, 1(1), 45-73.
- 송지준(2009). 논문작성에 필요한 SPSS/AMOS 통계분석방법.
- 신용회복위원회(2010). 2009년 신용회복위원회 활동실적. 신용회복위원회 보도자료.
- 신효련, 홍은실(2009). 대학생의 부채에 대한 태도와 의복구매행동. 소비자정책교육연구, 5(1), 31-47.
- 심영(1993). 가계부채가 소비패턴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학연구, 4(2), 29-50.
- 안승철, 김년희. 재무비율을 이용한 가계의 재정상태 분석. 영남지역 발전연구, 28집, 73-97.
- 안승철, 정영숙, 배미경(2002). 신투자와 보험: 개인의 투자전략과 위험관리. 신정출판사.
- 안창희, 정순희(2006). 개인재무교육이 재무행동 및 객관적 경제복지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학연구, 17(2), 197-219.
- 안창희, 정순희(2006). 성인재무교육에서 경제복지의 주관적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 24(4), 37-50.
- 안창희, 정순희(2009). 자산수준별 재무교육이 재무행동과 주관적/객관적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Financial Planning Review, 2(2), 21-41.
- 양민애(1994). 가계 위험관리에 관한 신고-고령화사회를 앞두고. 보험학회지, 43, 341-363.
- 양세정(1997). 가계저축의 영향요인에 대한 시계열분석. 가정문화연구(상명

- 대), 11, 3-13.
- 양세정(1998). 주부취업상태와 가계저축포트폴리오. 가정문화연구(상명대), 12, 1-13.
- 양세정(1999). 주부취업의 가계경제적 기여도 측정. 대한가정학회지, 37(3), 27-42.
- 양세정(2000). 맞벌이 가구의 부채보유행태에 관한 분석, 사회과학연구, 13, 61-80.
- 양세정, 이영호(1996). 가계저축규모의 결정요인. 대한가정학회지, 34(2), 201-215.
- 양연선, 임정빈(2000). 가구주 연령과 직업에 따른 가계의 적정소비선.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3), 53-70.
- 양정선(1997). 산술적 저량과 재무비율 측정을 중심으로 한 가계의 재정상태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양정선, 김영순(2004). 노인가계의 지출적정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5), 283-292.
- 여윤경(2002). 목표 소득대체율을 통한 은퇴소비의 추정. 대한가정학회지, 40(3), 83-97.
- 여윤경(2005). 한국 중산층 가계의 노후자금 적정성.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5(1). 21-36.
- 여윤경(2006). 역모기지의 노후소득 효과. 소비자학연구, 17(1), 177-197.
- 여윤경(2009).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위험자산 선택행동. 응용경제, 10(3), 51-74.
- 여윤경, 김진호(2007). 한국가계의 은퇴자산 적정성 판단을 위한 시뮬레이션 분석. 금융연구, 21(2), 1-30.
- 여윤경, 정순희(2004). 가계의 주식투자결정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3), 11-21.

- 오만숙, 현승미(2009). 한국국민의 가계 금융부채에 대한 체감도 분석. 응용 통계연구, 22(2), 297-307.
- 은기운(2013). 한국경제, 일본형 불황 따라가나. 7.16일자 매일경제신문.
- 우석봉. 돈에 대한 가치관 유형에 따른 금융기관 이용행동 및 태도. 한국심리학회, 522-523.
- 우성봉(2000). 인터넷 사용에 따른 N 소비자 유형화. 소비자 광고심리학회지, 1(2).
- 유우정, 배미경(2007). 재정비율을 이용한 노인가계의 재정상태 평가. 대한가정학회지, 45(4), 17-28.
- 윤원아(2010). 중고령 가구의 재무구조와 성인자녀로 부터의 소득이전. 한국생활과학회지, 19(2), 361-374.
- 윤정혜, 김경자, 성영애, 손상희, 양세정, 이희숙, 최현자(2001). 소비자재무설계 · 상담 ·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방향. 소비자학연구, 12(3), 89-108.
- 윤정혜, 손상희, 김경자, 성영애(1997). 소비자재무설계사의 제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8(1), 133-146.
- 윤정혜, 송현주(2009). 외환위기 이후 가구구조의 종사상지위 변화유형이 가계소득증감여부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7(1), 109-122.
- 이경옥(2000). 가계의 경제위기 대처행동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기춘(1985). 소비자 능력 개발을 위한 소비자교육에 관한 연구 : 청소년 소비자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기춘(1999). 소비자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교문사.
- 이기춘, 박근주(1997). 소비자신용 연체행동에 대한 관련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3), 139-151.
- 이기춘, 박근주(2002). 자산과 부채 보유에 근거한 가계재무전략유형별 가계

- 포트폴리오의 특성. 소비자학연구, 13(1), 45-73.
- 이기준, 박명희, 윤정혜, 손상희, 김정자, 성영애(1998). 소비자재무설계론, 학현사.
- 이명훈, 최창규(2000). 소비증가와 예비적 저축효과:소비의 불확실성 가설의 검증. 경제학연구, 48(2), 5-20.
- 이미영(2006). 90년대 이후 도시가계 피복비 지출 패턴의 구조적 변화. 대한가정학회지, 44(6), 163-174.
- 이선영, 정순희(2009). 소비자의 에너지역량 관련 변수에 대한 연구. 소비자정책교육연구, 5(1), 85-97.
- 이성림(2002). 가계의 교육비 지출에 관한 시계열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40(7), 101-118.
- 이성림(2002). 가계의 소득계층별 사교육비 지출 불평등. 대한가정학회지, 40(9), 143-159.
- 이성림(2005). 과소비·부채가계의 가계경제구조분석-과소비·부채가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16(1), 73-95.
- 이성림(2005). 사교육비 부담과 가계의 소비지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3), 63-76.
- 이성림(2006). 도시가계의 사교육비 부담과 지출전략. 소비자학연구, 17(2), 115-132.
- 이성림, 김기욱(2009). 우리나라 독신가구의 여가활동 소비지출패턴에 관한 연구. 소비문화연구, 12(3), 105-123.
- 이성림, 성영애(2007). 적자부채가계의 지출구조 및 유형별 특성. 대한가정학회지, 19(6), 2483-2504.
- 이승신(2002).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과 경제적 복지. 대한가정학회지, 40(7), 211-227.
- 이승신(2003). 가계의 재무구조가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소득계층별

- 접근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1(11), 151-169.
- 이승신, 배미경(2003). 가계재무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포트폴리오 구성 및 프로그램 개발: 한미 간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41(9), 105-120.
- 이시영, 이효찬(2010). 행동경제학적 접근을 통한 국제경제현상의 분석. 무역학회지, 35(2), 1-20.
- 이영호, 임정빈(1997). 신용카드의 자금유통성 사용목적과 가계관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창간호.
- 이영희, 이승신(2006). 신용불량자의 신용불량구제정책에 관한 인지도, 기대도, 활용도. 대한가정학회지, 44(3), 1-11.
- 이옥순, 김영남(2005). 중학생의 식생활 관련 환경지식과 환경의식 및 환경친화적 식생활행동. 한국가정교육학회지, 17(2), 49-60.
- 이윤정(2005). '부자되기' 관련 사이버커뮤니티 특성 및 가입자의 재무지식 및 재무행동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은미(2002). 가계의 부채수준 및 투자포트폴리오 구성행태 분석. 삼성경제연구소.
- 이은실, 최현자(1998).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소비자포트폴리오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3), 111-122.
- 이은영(2008). 국가별 개인신용회복제도의 비교 및 시사점. 소비자정책·교육연구, 4(2), 19-32.
- 이은영, 허은정(2005). 부채가계의 연체행동 및 관련요인 분석. 소비자학연구, 16(1), 73-95, 179-194.
- 이은희, 남수정(2004). 소비성향에 따른 청소년 소비자 유형별 소비와 용돈관리 실태 비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4), 157-171.
- 이의숙, 성영애, 양세정, 최현자. 재무비율을 이용한 가계재무상태 평가. 123-133.
- 이재희(1996). 대학생들의 신용카드 인식 및 사용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

- 학회지, 5(2), 99-107.
- 이종혜(1993). 도시가계의 경제적 안정도와 재정만족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준영, 정지영(2011). 남성과 여성의 투자위험 감수성향 사이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9(10), 1-13.
- 이지영, 최현자(2009). 우리나라 은퇴자의 은퇴자금 충분성과 영향요인: 객관적 충분성과 주관적 인지의 비교를 중심으로.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9(1), 215-230.
- 이진형(2008). 위험회피성향을 고려한 가계의 자산선택 결정요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이철(1998). 소비자 행동 모델의 문화적 한계와 소비자행동연구의 발전 방향. 소비자학연구, 9(1), 1-15.
- 이희숙(2000). 도시근로자 가계의 교통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변화 : 1985 ~ 1998. 소비자학연구, 11(3), 15-39.
- 이희숙, 양세정, 성영애, 최현자(2004). 재무비율로 평가한 우리나라 가계의 재정상태. 소비문화연구, 7(3), 59-84.
- 임경목(2002). 한국 가계금융자산 구성의 결정요인 분석: 주식보유를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 정책연구시리즈.
- 임병진(2002). 소비자 재무설계의 주식투자 위험관리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 15(3), 147-156.
- 임정(1988). 주부의 가계복지 인지 및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임정빈, 고보선(1995). 도시 신혼기가계의 가정경제 안정도 인지와 가정생활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3(2), 1-18.
- 임정빈, 조미환, 이영호(1998). 도시가계의 가계재무관리행동과 재정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3), 141-153.

- 장상희, 조정문(2004). 문화와 일에 대한 태도, 한국과 일본 노동자의 일에 대한 헌신도 비교연구. 한국사회학, 38(3), 39-80.
- 전윤숙, 이희숙(2000). 도시가계의 교통비 지출 변화 : 1985-1998. 대한가정학회지, 38(1), 139-154.
- 정미선, 계선자, 강혜경(2008). 도시주부 가계재무관리행동의 변화지향성에 따른 가계재무건전성 및 재정만족도 차이.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5), 391-403.
- 정성훈(2011). 성별, 자산규모별 그리고 행동재무론. 산업경제연구. 24(4), 1951-1967.
- 정순희(2003). 금융자산수준별 가계부채 분석.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7(2), 45-57.
- 정순희, 김현정 (2002). 라이프 스타일 연구에 관한 이론적 고찰. 소비문화연구, 5, 2, 07-128.
- 정영숙(2005). 빈곤과 최저생계비 측정에 관한 연구 -노인, 모자, 장애인 가구에 대한 비교. 소비자학연구, 16(1), 195-207.
- 정영숙(2006). 가계부채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거시경제 요인을 중심으로. 산업경제연구, 산업경제연구, 19(6), 2483-2504.
- 정운영(1996). 도시가계의 투자행동: 결혼초기와 중기의 비교.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운영, 김경자(2004). 가계 재무위험 구성 요소들의 관계분석. 대한가정학회지, 42(10), 11-22.
- 정운영, 한경미(2004). 가족생활주기와 가계의 비상자금 적정도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15(1), 23-38.
- 정운영, 황덕순(2002). 도시가계의 재무관리행동과 재무건전성-광주광역시를 대상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0(2), 115-130.
- 정은주(1992). 위험태도에 따른 가계의 투자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은주, 문숙재(1992). 가계투자행동의 인과적 모형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0(1), 219-235.
- 정주원, 박명희(2006). 맞벌이 가계의 재무관리 행동에 대한 탐색적 연구-통합재무관리와 개별재무관리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4(6), 129-140.
- 정홍주(1996). 알기쉬운 보험상식. 21세기 북스.
- 조동필, 양세정, 배미경(2007). 도시가계의 재무지식 및 재무관리가 객관적 재무건전성과 주관적 재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16(2), 333-348.
- 조원경, 한정란(2009). 중년기 직장 남성의 직업에 대한 태도. 직업교육연구, 28(1), 43-61.
- 조형오(1996). 한국인의 라이프 스타일 유형분류 및 소비행동에 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7, 2, 223-242.
- 조혜진, 최현자(2006). 소비자의 신용과다사용 문제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17(2), 155-178.
- 주소현(2008). 가계의 순자산과 자산배분과의 관계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주소현(2008). 종업원 재무교육과 은퇴설계. 소비자학연구, 19(1), 73-91.
- 주소현(2009). 재무설계를 위한 행동재무학. FPbooks.
- 주소현, 최현자, 성영애(2009). 우리나라 펀드투자자의 펀드투자 의사결정에 따른 투자행태. Financial Planning Review, 2(1), 75-102.
- 주인숙(1996). 도시가계의 부채관리와 재정만족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차경욱(2003). 미국 편모가계의 저축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41(6), 91-104.
- 차경욱, 박미연, 김연주(2008). 20, 30대 임금근로자의 은퇴재무설계에 관한

-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1), 149-163.
- 차은영(2007). 가계내의 위험분산과 소비. 여성경제연구, 4(2), 115-132.
- 채서일(1992). 체계적 분석의 틀에 따른 라이프 스타일 연구. 소비자학연구, 3, 1, 46-63.
- 채은석, 성영애(2000). 부채가계의 객관적 부채부담 지표 및 기준설정을 위한 주관적 부채부담 관련요인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8(11), 1-12.
- 채정숙(1992). 제품관여 수준에 따른 소비자 구매유형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학생 소비자를 대상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0(1), 133-148.
- 채정숙(2001). 여대생의 라이프 스타일 유형에 따른 화장품 구매 및 사용행동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9, 11, 107-128.
- 최남숙, 백은영(2004). 인터넷을 이용한 어린이 금융교육: 쌍방향 금융교육 웹사이트 현황 분석. 가족자원경영학회지, 8(1), 47-60.
- 최미향(2010). 위험감수성향에 따른 가계금융자산 포트폴리오 변화.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윤지, 최현자(1998). 재무비율을 이용한 농촌 중·노년기 가계의 재정상태 평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2), 83-96.
- 최윤지, 최현자(2004). 농촌여성 재무관리 능력향상을 위한 농가 재정상태진단 교육프로그램 개발. 소비문화연구, 7(4), 65-80.
- 최은숙, 노자경(1991). 농가의 경제적 복지 측정 및 관련 변수 연구- 경기도 용인, 이천 지역을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2(1), 13-35.
- 최은진, 최현자(2006). 7차교육과정의 초·중·고등학교 금융소비자교육 내용분석 - 실업과와 사회과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4(5), 129-142.
- 최인철, 김민수, 변진호. 주식투자 행동에서의 개인차. 한국 심리학회, 206-027.
- 최지은, 정순희, 여윤경(2005). 소비자의 자산계층별 금융자산 포트폴리오. 소비자학연구, 16(10), 55-71.

- 최태성, 김성호(2004). 사회과학을 위한 통계자료분석, 다산출판사.
- 최현자 등(2003). 재무비율을 이용한 가계재무상태 평가지표개발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14(1), 107.
- 최현자(1996). 가계의 신규부채수요 결정요인과 부채이용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4(3), 59-73.
- 최현자(2001). 다기간자원배분양식의 분석을 통한 가계부채부담의 임계수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5), 279-291.
- 최현자(2007). 가계의 저축의사결정- 예·적금, 개인연금, 보장정보험과 저축성보험. 한국금융학회 정기학술대회 자료집, 23-46.
- 최현자, 김정현(2010).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재무관리역량 : 일반소비자와의 비교. 소비자학연구, 21(3), 83-105.
- 최현자, 박주영(2002). 시장환경의 변화에 따른 가계포트폴리오 변화유형 및 각 유형별 가계특성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6), 151-163.
- 최현자, 성영애(2001). 가계의 부채관리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의 개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1), 235-251.
- 최현자, 이희숙, 양세정(2003). 신용문제 진단 및 처방 프로그램. 신용회복위원회 용역결과보고서.
- 최현자, 이희숙, 양세정, 성영애(2003). 재무비율을 이용한 가계재무상태 평가지표개발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14(1), 99-122.
- 최현자, 이희숙, 양세정, 성영애(2003). 재무비율을 이용한 가계재무상태평가지표개발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14(2), 99-121.
- 최현자, 조혜진(2008). 다중연체자의 채무재조정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19(1), 25-46.
- 최현자, 주소현, 김민정, 김정현(2009). 한국의 은퇴준비지수산정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20(3), 128-214.
- 최현자, 최은진(2005). 초·중·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의 금융소비자교육 내

- 용분석: 교육영역을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16(3), 109-132.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 통계청(2006). 가계자산조사.
- 한국FP협회(2002). 투자설계.
- 한국경제(2008). 저금리시대 연령별 재테크 전략. 2008년 11월 3일자.
- 한국은행(2010). 11월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동향.
- 한국투자자교육재단, 서울대학교 은퇴설계지원센터(2008), 2007 간접투자자 조사 보고서.
- 한미영, 김재휘(2007). 개인투자자의 자기고양적 지각과 투자확신이 위험투자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3(3), 89-109.
- 한민희, 신상근, 안성아(2000). 금융고객의 위험태도와 위험대응구매행동. 경영학연구, 29(3), 337-352.
- 한정란, 안경실, 오병철(2010). 중년 직장 남성의 직업 및 퇴직에 대한 태도. 한국노년학, 30(2), 599-613.
- 허경옥 등 (1997). 돈에 대한 태도 유형별 가계의 저축행동. 소비자학연구, 8(2), 43-60.
- 허경옥(2000). 소비자파산제도에 대한 소비자태도 분석. 소비자학연구, 11(3), 193-217.
- 허경옥(2004). 소비자 구매행동유형과 환경에 대한 태도 및 환경친화적 행동. 한국생활과학회, 13(4), 569-579.
- 허경옥(2006). 소비자투자자와 보험. 교문사.
- 허경옥(2007). 측정방법을 활용한 자녀양육비 측정 및 새로운 측정방법 개발. 소비자학연구, 18(3), 19-42.
- 허경옥, 백은영, 정순희(1997). 돈에 대한 태도 유형별 가계의 저축행동. 소비자학연구, 8(2), 3-13.

- 허경옥, 여윤경, 유현정, 고선강, 차경옥(2006). 소비자투자자와 보험, 교문사, 서울.
- 허경옥, 이현진, 최미향(2010). 가구주의 위험감수성향의 변화와 금융자산 포트폴리오 구조분석. Financial Planning Review, 3(2), 105-134.
- 허경옥, 차경옥, 유현정, 김성숙, 허은정(2011). 소비자투자자와 자산관리. 교문사.
- 허경옥, 한수진(2005). 재무비율을 이용한 소득계층별 가계재무상태분석. 한국생활과학회지, 14(4), 613-629.
- 허은정(2003). 주류에 대한 도시가계의 구매결정과 지출결정요인. 대한가정학회지, 41(5), 1-13.
- 허은정, 김우성(2003). 도시 가계의 레저지출과 관련요인 분석. 소비자학연구, 14(1), 59-79.
- 현대경제연구원(2007). 한·미 가계자산 비교와 시사점. 253호.
- 현대경제연구원(2008). 국내 가계자산이 불안하다: 주요국에 비해 자산안정성 취약. 360호.
- 홍성택, 류창열(1990). 중학교 학생의 가정환경에 따른 일과 직업에 대한 태도. 대한공업교육학회지, 15(1), 72-77.
- 홍성희(2007). 직장인의 퇴직 및 재취업결정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1(2), 1-19.
- 홍성희, 이경희, 광인숙(2004). 도시주부의 환경지식과 자원절약 태도가 자원절약 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2(9), 67-83.
- 홍은실, 황덕순(2001). 여대생 소비자의 화폐에 대한 태도유형별 가치특성에 관한 연구. 소비문화연구, 4(2), 21-38.
- 홍향숙(1997). 가계의 재무관리와 재무목표달성도. 대한가정학회지, 35(6), 157-171.
- 홍향숙, 이기춘(1999). 도시가계의 경제적 불안정성 유형에 따른 재무관리행

- 동. 대한가정학회지, 57(9), 39-56.
- 홍향숙, 이종혜(1999). 개인, 가계, 환경변수가 가계의 재무영역별 재무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과학회지, 2(1), 12-24.
- 황덕순, 김미라, 홍은실(1999). 주부의 소비자기능과 관련변수간의 인과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3), 131-143.
- 황덕순, 정운영(2001). 재무태도와 재무 의사소통이 재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 대한가정학회지, 39(8), 121-134.
- Ajzen, I.(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s.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 50, 179-211.
- Alpert, M. I. (1974). Personality and the determinants of product choice.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9, Feb. 89-72.
- American Economic Review*, 59, 324 - 330.
- Anderson, J.c., & Gerbing, D. W.(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 411-423.
- Ando, A. & Modigliani, F. (1963). The life cycle hypothesis of saving: Aggregate implications and test. *American Economic Review*, 53(1), 55-84.
- Baek, E. & Hong, G-S. (2004). Effects of family life-cycle stages on consumer debts.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25(3), 359-385.
- Bajtelsmit, V. L. & Bernasek, A.(1996). Why do women invest differently than men.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7, 1-10.
- Barsky, R. B., Juster, F. T., Kimball, M, S. & Shapiro, M. D.(1997).
- Bell, David E.(1982). Regret in Decision Marketing Under Uncertainty. *Operations Research*, 30(5), 961-981.
- Bentler, P. M.(1990). Comparative Fit Indexes in Structural Models.

*Psychological Bulletin*, 107, 238-246.

- Bernheim, B. D., Garrett, D. M., & Maki, D. M.(2001). Education and saving: The long-term effects of high school financial curriculum mandate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0, 435-465.
- Bertaut, C., and Starr-McCluer, M. (2000). Household Portfolios in the United States, Working Paper of Federal Reserve Board of Governors.
- Bettman, J. R.(1979). *An Information Processing Theory of Consumer Choice*, MA: Addison-Wesley.
- Borden, L., Lee, S., Serido, J., & Collins, D.(2008). Changing college students' financial knowledge, attitudes and behavior through seminar participation.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29(1), 23 - 38.
- Browne, M. W. & Cudeck, R.(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Bollen, K. A. & Long, J. S.[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Newbury Park, CA: Sage, 136-162.
- Campbell, J. Y., Viceira. L. M.(2006). *Strategic asset alloc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 CFP Board website [www.cfp.net](http://www.cfp.net)
- Chen, P. & Finke, M. S. (1996). Negative net worth and the life cycle hypothesi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7, 87-96.
- Cohen, B., Zinberg, E. D., & Zeikel, A. (1982). Investment analysis and portfolio.
- Cohn, R. A., Lewellen, W. G. Lease, R. C., Schlarbum, G. G.(1975). Individual Investor Risk Aversion and Investment Portfolio Composition. *The Journal of Finance*, 111(2), 605-619.
- Cordell, D. M. (2001). Risk pack: How to evaluate risk tolerance, *Journal*

of Financial Planning.

- Cordell, D. M.(1996). Fundamentals of financial planning. The American College. cost burden,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15(1), 31-39.
- Danes, S. M., Tahira K. Hira(1990). Knowledge, Beliefs and Practices in the Use of Credit Card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8(3), 223-235.
- Danes, S., Haberman, H.(2007). Teen financial knowledge, self-efficacy, and behavior: A gendered view.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18(2), 48 - 60.
- Davis, E. P., Carr, R. A. (1992). Budgeting practices over the life cycle.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3, 3-16.
- Davis, Elizabeth, P., Helmick. S. A.(1985). Family Financial Satisfaction: The impact of reference point, *Home Economics Reseaech Journal*, 14(1), 123-131.
- Deacon, R. E., Firebaugh, F. M.(1988). Family resource management principles and application, 2nd ed, allyn and bacon, inc.
- DeVaney, S. A.(1993). Change in Household Financial Ratio Between 1983 and 1986: were American Households Improving Their Financial Statu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Volume 4*, 31-46.
- DeVaney, S. A., Chiremba, S., Vincent, A-M. (2004). Life cycle stage and housing cost burden.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15(1), 31-39.
- DeVaney, S. A., Chiremba, S., Vincent, A-M. (2004). Life cycle stage and housing cost burden. *Econometrica*, 70(1), 47-89.
- Elliehausen, G., Lundquist, E. C., Staten, M. E. (2003). The impact of

- credit counseling on subsequent borrower behavior. *The Journal of Consumer Affairs*, 41(1), 1-28.
- Engel, J. F., Blackwell, R. D., & Miniard, P. W. (1995). *Consumer behavior*. 8th. ed., Dryden.
-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7, 1-10.
-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7, 87-96.
- Financial Literacy and Education Commission (FLEC; 2006). Taking Ownership of the Future: The National Strategy for Financial Literacy. [www. mymoney. gov](http://www.mymoney.gov).
- Financial Services Authority(2005). Measuring Financial Capability: an Exploratory Study, Consumer Research Series, 37.
- Financial Services Authority(FSA, 2008). Financial Capability: A Behavioural Economics Perspective, Consumer Research 69.
- Fishbein, M & Ajzen, I.(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MA: Addison-Wesley.
- Fisher, K. (1965). Exploration in savings behavior. *Oxford Institute of Economical and Statistical Bulletin*. 18, 201 - 277.
- Fitzsimmons, Vicki S., Tahira K. Hira, Jean W. Bauer, and Jeanne L. Hafstrom(1993). Financial Management: Development of Scales.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14(3), 257-274.
- Fowler, E. S.(1972). Factors related to the economic well-being of the family, Ph. D Dissertation. Purdue University.
- Friend, I., Blume, M. E. (1975). The demand for risky asset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65(5), 900-922.
- Garman, E. T., Forgue, R. E. (1994). Personal finance. Houghton Mifflin Company.

- Garman, T. E., & Forgue, R. E.(2000). *Personal Finance*. MA:Houghton Mifflin Company.
- Godwin, Deborah D.(1997). Dynamics of Households' Income, Debt, and Attitudes Toward Credit, 1983 - 1989. *Journal of Consumer Affairs*, 31(2), 303-325.
- Gourinchas, P-O. & Parker, J. A. (2002). Consumption over the life-cycle. *Econometrica*, 70(1), 47-89.
- Grable, J. E., & Lytton, R. H.(1998). Investor risk tolerance: Testing the efficacy of demographics as differentiating and classifying factor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9(1), 21-31.
- Grable, J. E., Joo, S. H.(2004). Environmental and biopsychosocial factors associated with finance risk tolerance. *Financial Counselling and Planning*, 15, 73-80.
- Grable, J. E., Joo, S. H., & Adityavarman, R.(2003). Examining the link between sensation seeking and financial risk taking of young professional, *Academy of Financial Services Proceeding*.
- Grable, J. E., Lytton, R., O'Neill, B., Joo, S, H., & Klock, D.(2006). Risk tolerance, projection bias, vividness and equity prices, *Journal of Investing*(summer), 68-74.
- Graham, F. & Isaac, A. G., (2002). The behavioral life-cycle theory of consumer behavior: Survey evidence.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48(4), 391-401.
- Graham, J. F., & Stendardi, E. J.(2002). Gender differences in investment strategies : on information processing perspective, *International Journal of Bank Marketing*, 20(1), 17-26.
- Greene, M. R.(1971). Risk aversion, insurance and the future.
- Griffith, R.(1985). Personal financial statement analysis: A modest beginning. In Langreher(Ed), *The Proceedings of AFCPE*, 123-131.

- Gunnarsson, J. & R. Wahlund(1997). Household financial strategies in Sweden: An exploratory study,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18, 201-233.
- Hall, R. E. (1978). Stochastic implications of the life cycle-permanent income hypothesis: theory and evidenc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6(6), 971-987.
- Haney, P.(1991). Consumer Competencies: Critical Issues for the 'pos' National Coalition for Consumer Education, Consumer Protection in the year 2000: Change and Implementation.
- Hirad, A., & Zorn, P. M.(2001). A little knowledge is a good thing: Empirical evidence of pre-purchase homeownership counseling. McLean, VA: Freddie Mac.
- Hong, G., & Swanson, P. M. (1995). Comparison of financial well-being of older women: 1977 and 1989.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6, 129-138.
- Hubbard, R. G., Skinner, J., & Zeldes, S. (1994). Precautionary savings and social insuranc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3, 360 - 399.
- Iwuagwu, V. S. (1989). Financial ratios and perceived household financial security.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 of Wisconsin-Madison.
- Jump\$Start Coalition(2007). National Standards in K-12 Personal Finance Education, 3rd Edition.
- Kahneman, Daniel & Amos Tversky(1979). Prospect Theory: An analysis of Decision under Risk, *Econometrica*, 47(march), 263-291.
- Kimberlee, D. & Durband, D.(2008). Valuing the Implementation of Financial Literacy Education,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19, 20-30.

- Knetsch, Jack L. and J. A. Sinden(1984). Willingness to Pay and Compensation Demanded: Experimental Evidence of an Unexpected Disparity in Measures of Valu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99.
- Kozup, J., & Hogarth, J.(2008). Financial literacy, public policy, and consumers' self-protection—ore questions, fewer answers. *Journal of Consumer Affairs*, 42(2), 127 - 36.
- Lakonishok, J. and S. Smidt(1986). Volume for Winners and Losers: Taxation and Other Motives for Stock Trading. *Journal of Finance*, 41, 951-974.
- Lea, Stephen E. G., Paul Webley, and Catherine M. Walker(1995). Psychological Factors in Consumer Debt: Money Management, Economic Socialization, and Credit Use.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16, 681-701.
- Lin, Fan and Sharon A. DeVaney(1996). "Factors Affecting Families' Consumer Debt Burden," *Consumer Interests Annual*, 42, 141-149.
- Lysonski, S., Durvasula, S., & Zotos, Y. (1996). Consumer decision making styles: a multi-country investigation, *European Journal of Marketing*, 30(12), 10-21.
- MacCrimmon, K. R.,& Wherung, D. A.(1990). Characteristics of risk taking executives, *Management Science*, 36(4), 422-435.
- Malroux, Y. L., & Xiao, J. J. (1995). Perceived adequacy of retirement income.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6, 17-24.
- Mandell, L.(2009). The Impact of Financial Literacy Education on Subsequent Financial Behavior.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20, 15-24.

- Mandell, L., & Klein, L.(2007). Motivation and financial literacy. *Financial Services Review*, 16, 105 - 116.
- March, J. G.,& Shpira, Z.(1987). Managerial Perspectives on risk and risk taking,
- Markovich, Carl A. and Sharon A. DeVaney(1997). College Seniors' Personal Finance Knowledge and Practices. *Journal of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89, 61-65.
- McClelland, D. C.(1993). Introduction. in L. Spencer & S. Spencer(Eds.), *Competence at Work : Models for Superior Performance*, New York: John Wiley & Sons.
- McCormick, M(2009). The Effectiveness of Youth Financial Education: A Review of the Literature,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20, 70-83.
- Meier, S., & Sprenger, C.(2007). Selection into Financial Literacy Programs: Evidence from a field study. Federal Reserve Bank of Boston Public Discussion Paper, No.07-5.
- Mirabile, R. J.(1997). Everything You Wanted to Know about Competency Modeling. *Training and Development*, 51(8), 73-77.
- Mitra, S.(1995). *Practicing Financial Planning: A Complete Guide for Professionals*. Michigan: Mitra & Associates.
- Morchis, G. P. (1976). Shopping orientation and consumer uses of information. *Journal of Retailing*, 52, 61-70.
- Morin, R. A.,& Suarez, F.(1983). Risk aversion revisited, *The Journal of Finance*, 38, 1201-1216.
- Nunnally, J. C.(1978). *Psychometric Theory* (2nd Ed.), New York: McGraw-Hill.

- Odean, T.(1998). Are Investor's Reluctant to Realize Their Losses?,  
Journal of Finance, 53, 1775-1798.
- OECD(2003). Definition and Selection of Competencies(DeSeCo):  
Theoretical and Conceptual Foundations - Summary of the Final  
Report, OECD Press.
-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OECD).(2006).  
The importance of financial education. Policy brief. Retrieved June  
20, 2008, from  
<http://www.oecd.org/dataoecd/8/32/37087833.pdf>
- Ostman, R. E. & Parker, J. L.(1987). Impact of Education, Age,  
Newspaper and TV oAgenviroAmental Knowledge, Concerns, and  
Behaviors. Journal of EnviroAmental Education, 19, 3-9.
- Parrotta, J. L. & Johnson, P. J.(1998). The Impact of Financial Attitudes  
and Knowledge on Financial Management and Satisfaction of  
Recently Married Individual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9(2), 59-75.
- Peng, T. M., Bartholomue, S., Fox, J. J., & Cravener, G.(2007). The  
impact of personal financial education delivered in high school  
and college courses. Journal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28,  
265-284.
- Poterba, J., Rauh, J., Venti, S., & Wise, D. (2006). Lifecycle asset  
allocation strategies and the distribution of 401k retirement  
wealth. NBER Working paper.
- Prather, C. G. (1990). The ratio analysis technique applied to personal  
financial statements: Development of household norm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1, 53-70.

- Ritov, Ilana & Jonathan Baron(1995). Outcome Knowledge, Regret, and Omission Bias,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 64(2), 119-127.
- Samuelson, William & Richard Zeckhauser(1988). Status Quo Bias in Decision Marketing, *Journal oh Risk and Uncertainty*, 1(March), 7-59.
- Schuchardt, J., Hanna, S., Hira, T. Lyons, A., Palmer, L., and Xiao, J.(2009). FinancialLiteracy and Education Research Prioritie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20.
- Schultz P. W.(2002). Knowledge, Information, and Household Recycling: Examining the Knoweldge-Deficit Model of Behavior Change, in *New Tools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 Education, Information, and Voluntary Measures-*,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Press, 67-82.
- Scott, D. & Willits, F. K.(1994), Environmental Attitudes and Behavior: A Pennsylvania Survey. *Environment and Behavior*, 10, 77-101.
- Shefrin, H. & Thaler, R. (1988). The behavioral life-cycle hypothesis. *Economic Inquiry*, 26, 609 - 643.
- Shim, S., & Koh, A. (1996). Profiling adolescent consumer decision-making styles; effect of socialization agents and social-structural variables. *Journal of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16(1), 22-29.
- Simonson, Itamar(1992). The influence of anticipating regret and responsibility on pyrchase decis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9(June), 105-117.
- Solomon, M. R. (1992). Consumer behavior: Buying, having, and being.

Boston: Allyn and Bacon.

- Spencer, L. & Spencer, S.(1993). *Competence at Work : Models for Superior Performance*, New York: John Wiley & Sons.
- Sproles, G. B., & Kendall, E. (1986). A methodology for profiling consumers' decision-making lifestyles. *Journal of Consumer Affairs*, 20(2), 267-279.
- Sung, J., & Hanna, S. (1996). Factors related to risk tolerance.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7(1), 11-20.
- Tang, Thomas L.(1995). The Development of a Short Money Ethnic Scale : Attitudes Toward Money and Pay Satisfaction Revisited.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9(6), 809-816.
- Thaler, Richard H.(1990). Anomalies\_Saving, Fungibility, and Mental Accounts.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4(1), 193-205.
- Thurow, L. (1969). The optimum lifetime distribution of consumption expenditures. *American Economic Review*, 59, 324 - 330.
- Titus, P. M., Fanslow, A. M. & Hira, T. K.(1989). Net Worth and Financial Satisfaction as a Function of Household Money Managers' Competenci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7(4), 309-318.
- Tucker, L. R., & Lewis, C.(1973). A Reliability Coefficient for Maximum Likelihood Factor Analysis, *Psychometrika*, 38, 1-10.
- Walson C. Co. & Fitzsimmons, V. S.(1993). Financial manager's perception of rural household economic wellbeing : development and testing of a composite measure,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14(3).
- Walson, C. O.(1991). determinants of financial manager's perception of rural household economic well-being : An analysis of a composite measure,

University of Illinois, Ph. D.

- Wang, C. & Hanna, S. D.(2007). The risk tolerance and stock ownership of business owning household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18(2), 3-18.
- Wang, H., & Hanna, S.(1997). Does risk tolerance decrease with age?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8(2), 27-31.
- Warner, N., & Cramer, S. (1995). Saving behaviors: first wave baby bummies,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19, 57-67.
- Warneryd, K-E. (1999). *The psychology of saving: A study on economic psychology*. Edward Elgar Publishing.
- Weagley, R. O. & Gannon, C. F., 1991, Investor portfolio allocation,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vol. 2, pp. 131-154.
- Weagley, R. O., & Gannon, C. F.(1991). Investor portfolio allocation,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2, 131-154.
- Weckstein, H.(1962). Welfare criteria and changing test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52, 133-153.
- Westbrook, R., A., & Fornell, C. (1979). Patterns of information source usage among durable goods buyer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6, 303-312.
- Wilkie, W. L. (1994). *Consumer Behavior*. New York: Wiley & Sons, Inc.
- Willis, L.(2008). Against Financial Literacy Education, 94 IOWA L. Rev. 197.
- Winger, B. J., & Frasca, R. R. (1989). *Personal finance*(2nd Ed), Merrill Publishing Co.
- Wood. W.A. (1996). *Psychological dimensions of consumer behavior*.

*Journal of Marketing*, 15-19.

- Xiao, J. J. (1996). Effects of family income and life cycle stages on financial asset ownership.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7(1), 21-30.
- Xiao, J. J.(1995). Patterns of household financial asset ownership.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6, 99-106.
- Xiao, J.J., Alhabeeb, M.J., Hong, G.S., Haynes, G.W.(2001). *The Journal of Consumer Affairs*, 35(2), 307-325.
- Yao, R., Hanna, S. D.,Lindamood, S.(2004). Changes in financial risk tolerance, 1983-2001, *Financial Services Review*, 13, 249-266.
- Zhong, L. X. & Xiao, J. J, (1995). Determinants of Family Bond and Stock Holding,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vol. 6, pp. 107-114.

## ABSTRACT

Family Financial Management in the field of consumer behavior research  
studies investigated

Concepts, theories focusing on

Min, Kyung Jin

Dept. of Living Culture & Consumer Science

The Graduate School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of households with respect to consideration of the concept of previous research, theory, and empirical results of previous studies based on the overall behavior of household financial management was organized, integrated. Discussed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household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of household financial economics, behavioral psychology, theoretical approach looked at the life cycle household financial management activities in accordance with the theoretical perspective of the concept of heuristics, anchor lowering effect adjustment, sheep phenomenon, representativeness bias, self-confidence, frames, effects, loss avoidance and pricing strategies, cost-effective and customer management burial, unpacking effects and showed how advertising appeals. Second, household financial management theory and looked at the behavior, household

financial structure, household income, expense , savings, debts, assets, and economic stability and financial health emergency fund looked at household and household financial assessment of the concept of household financial health and theoretical background, previous research, measurement method was investigated. Personal and household financial management of risk and household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in action, the household asset portfolio, the household financial management strategies over looked.

So far, the results of the previous studies examining the behavior of household financial management diversity of research topics can be seen. However, previous studies have mostly stopped Factors Survey. Family Financial Management actions are in progress throughout the entire life, so by the next follow-upstudy, the systematic study of the life cycle are required. In addition, research on the family's actual financial behavior and Code of Practice guidelines may need to be more specific research. For example, the household and its financial health diagnostics directly household financial management based on the results that could lead to changes in behavior study. In addition, financial organizations, financial policy, more research is necessary to take advantage of.